

The background of the cover is a rich, textured painting. It depicts a mountain range with a prominent peak in the center, rendered in shades of blue, white, and purple. Below the mountains, a river flows through a valley, surrounded by dense green trees. The overall style is expressive and colorful, with visible brushstrokes and a mix of warm and cool tones.

東草文化

1995/第11號

東草文化院

관광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앞장설것을 다짐합니다.

雪嶽觀光株式會社

케이블카



會 長
韓 丙 起



代表理事 社長
崔 澤 琳

■ 본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34-7365)
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39 정남빌딩 401호 (☎ 558-3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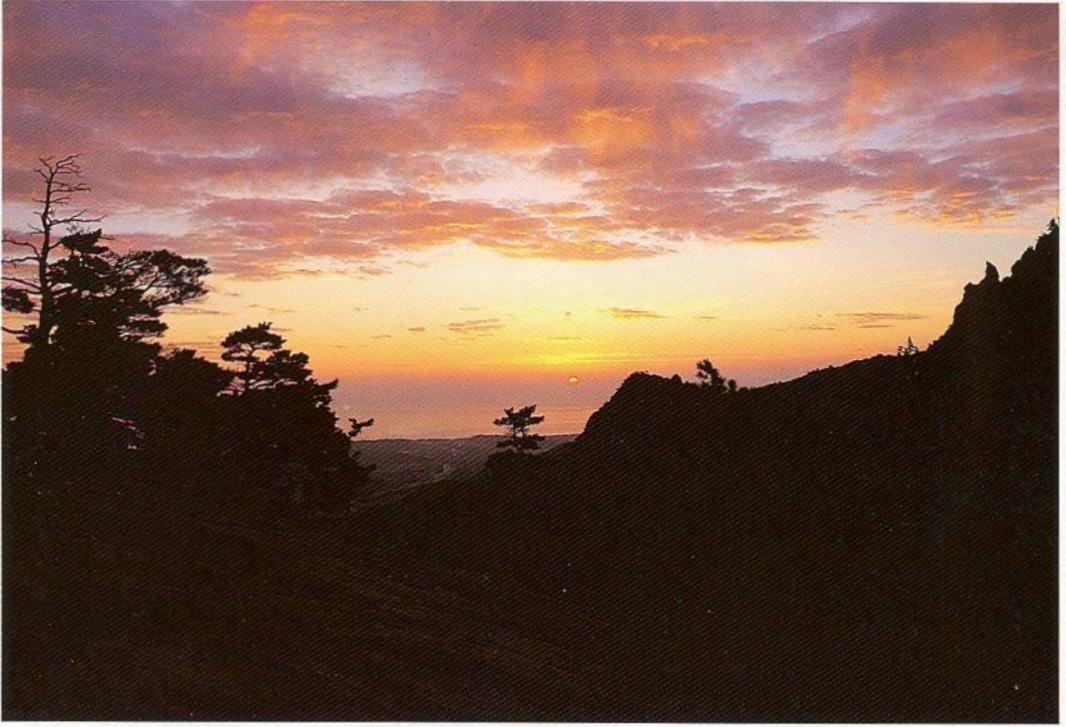


일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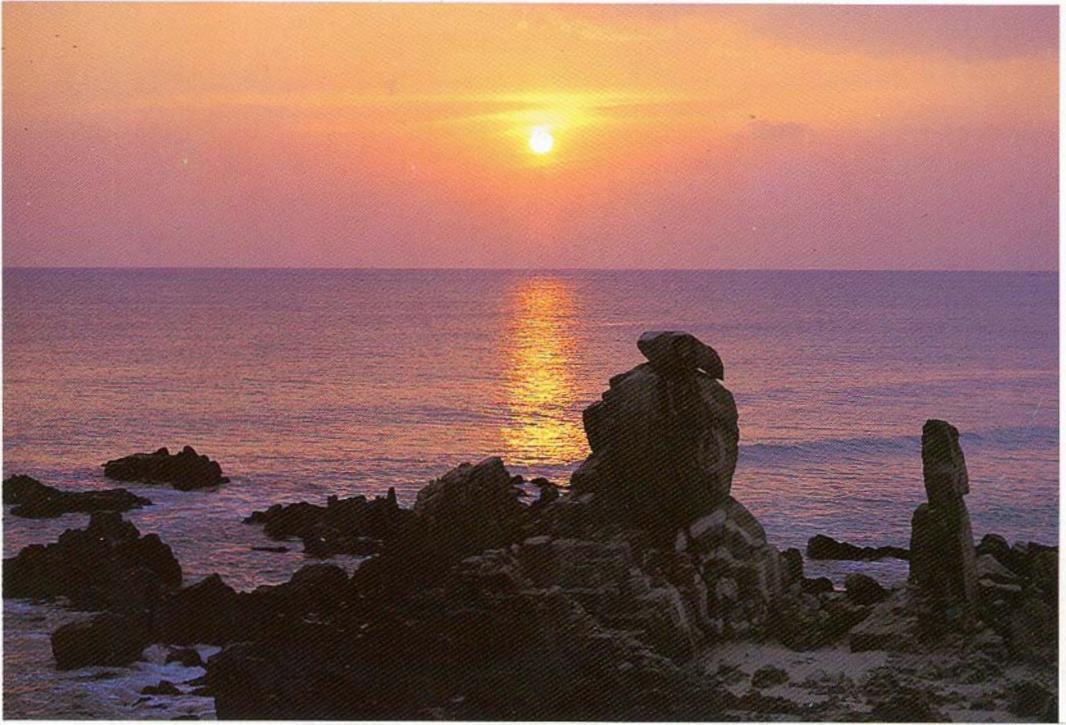
崔 洛 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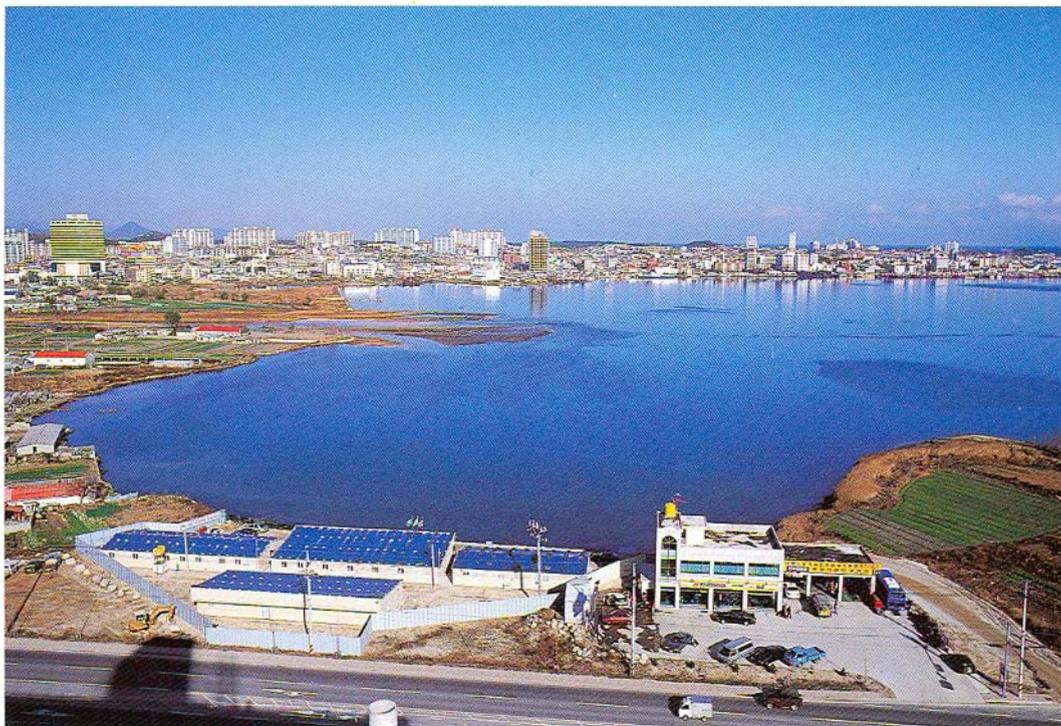
- '82 서울 美術祭 入選
- '82 韓國 傳統 美術 公募展 銅賞 受賞
- '83 韓國藝術大展銀賞 受賞
- 第16回 江原美術大展 入選
- '89 個人展
- '81~'93 東草 美協 會員展
- '93 江原道 美協招待展
- (現)東草美術協會 會員
- 住所：東草市 雪嶽洞 246-119
- 電話：(0392)34-7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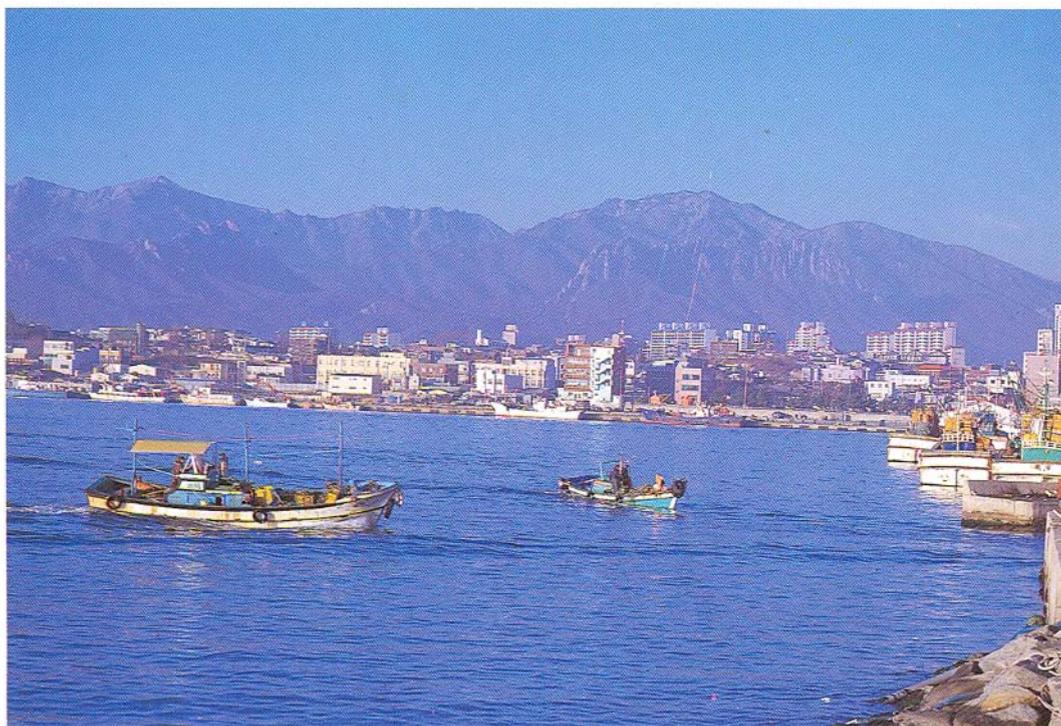
일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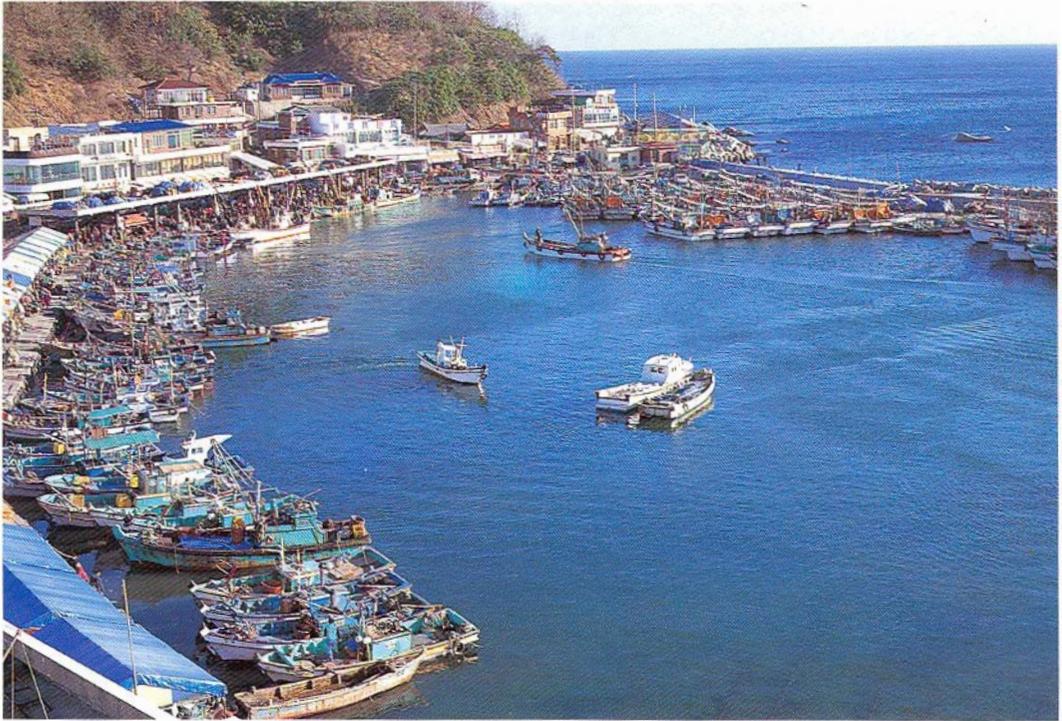
일출3



청초호반의 속초시가지



동명항의 아침



대포항의 아침



설악문화제 입장식



농악대 공연



시가행진



고적대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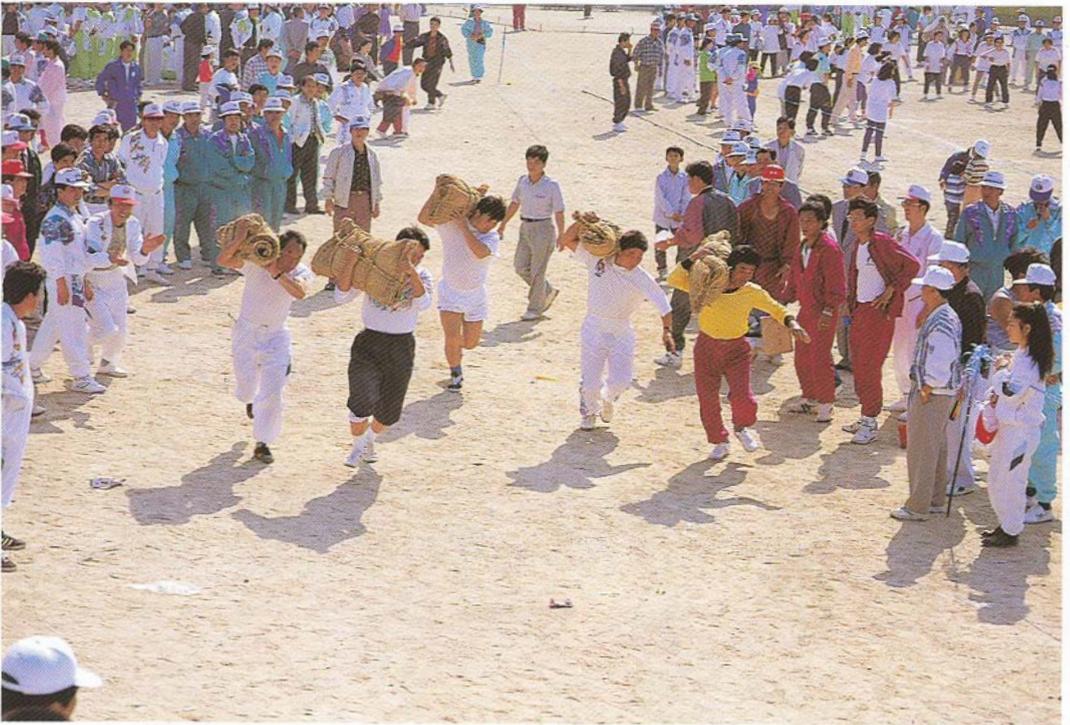
동대항 줄다리기 경주 “더 땡겨”



여걸 힘 겨루는 씨름



그네타기



쌀가마 나르기



설악산 설청로타리의 산신제 모습



제30회 산신제 홍보기구 비행



투호모습

백출은 몇말이서 늘 백출은 몇말인공 가와 두부 호는
 으밀 백출이 두 빛은 체 옥은 체 늘 밭은 북어는 장의 사체
 남정을 창아 북어 잠은 병 몇마 흰이 아회 들은 늘 취
 처 출서 노지 취 몇서 처 강형공 강형에 두삼 내 특성
 늘 이타 주출의 늘 드르니 들 들의 새 앙 초 취 앙 뒤
 집다 병 병은 비늘은 체 노나 농가 월령가 해풍 김광희



김 광 희

- '92 강원서예상 수상('92)
- 강원도 서예대전 우수상, 특선, 입선 수회 ('82~'94)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입선('94)
- 아세아 서예대전 특선('93)
- 울곡제 휘호대회 장원 2회('85, '87)
- 전국 서예실기대회 최우수상('83)
- 미술, 서예 지도표창 전국규모 17회 수상 ('79~'93)
- 예술의 전당 지방서예가 초대전 초대출품 ('89)
- 신사임당 휘호대회 심사위원('92, '93, '94) 역임
- 현, 강원도 서예가협회 부회장
- 현, 강원 연묵회 부회장
- 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
- 현, 김광희 서예 한자 학원장

주소 : 속초시 교동 럭키실악타운 1동 505호
 약직장. 32-1780, 635-2996 자택. 31-1944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차 례

東 草 文 化

1995/第11號

■ 작품사진/설악의 일출	사진/최낙민 · 1
■ 화보/설악문화제	사진/최낙민 · 5
■ 휘호/농가월령가	김광희 · 11
■ 문예중흥선언	· 12
■ 권두사/대중문화시대 열어가자	최용문 · 14
■ 축간사/전통성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변화발전	정재철 · 16
■ 축간사/향토문화의 독자성 유지를 위한 첨병	동문성 · 18
■ 축간사/속초문화 발간을 축하드리며	임호성 · 20
■ 권두시/신선봉 노을	최명길 · 22
■ 제30회 설악문화제 연구단과 결산보고	편집부 · 23
■ 특집/WTO출범에 따른 상공인의 자세와 대응방안	이규철 · 37
■ 특집/현대사회와 도덕성의 회복	이기을 · 40
■ 특집/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임수철 · 48
■ 논단/직업의식과 개인의식의 분화	백운화 · 55
■ 논단/시민현장탐은 속초시 상징조형물	편집부 · 58
■ 속초문화의 원류를 찾아서/속초시 수협외 활동상황	편집부 · 60
■ 속초문화의 원류를 찾아서/속초시 농협의 추진사업	편집부 · 67
■ 속초문화의 원류를 찾아서/속초시 축협의 추진사업	편집부 · 71
■ 특별기고/우리고장의 한시 考	이원식 · 74
■ 특별기고/일어를 국어로 배워야 했던 시대의 아픔	오윤근 · 78
■ 회고록/나와 속초와의 인연	이호순 · 85
■ 회고록/살신성인의 미담	이태형 · 90
■ 국립공원시리즈/국립공원 설악산(11)	박익훈 · 94
■ 전통민속과 풍속/제15회 대보름 민속경연대회	· 98
■ 전통민속과 풍속/전통혼인의례	이종욱 · 99
■ 창작시/길	채재순 · 101
■ 창작시/비무장지대 산불	김창균 · 102
■ 창작시/빛속에서	최광호 · 103
■ 창작시/설	지영희 · 104
■ 창작시/벽	김승기 · 105
■ 창작시/갈대들의 노래	정희섭 · 106
■ 창작시/반 평의 자리	박용남 · 107
■ 창작시/바다	이상호 · 108
■ 창작시/아침을 건져 올리는 바다	권정남 · 109
■ 창작시/날지 못하는 새	최숙자 · 110
■ 창작시/바다에 나간다	이구재 · 111
■ 문화유적지순례/동학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김호응 · 112
■ 문화기관탐방/속초 문화원 사업실적	사무국 · 124
■ 문화기관탐방/95년도 속초 예총 주요업무소개	예총사무국 · 129
■ 문화기관탐방/민예총 속초지부 사업보고	민예총사무국 · 142
■ 문화기관탐방/속초도서관 주요 업무소개	도서관 · 146
■ 특별기고/지역문화 활성화	최천식 · 151
■ 특별기고/장자의 어부편 풀이	이건석 · 158
■ 문화가족기고/광복 50년 그때 그사건	김정우 · 162
■ 속초시 제6회 백일장 입선 작품/산문	유혜정의 9편 · 168
■ 속초시 제6회 백일장 입선작품/시	이진주의 4점 · 178
■ 표지화/원로작자	김광수 · 183

대중文化시대 열어가자



최 용 문
속초문화원장

대중문화 시대를 열어가길 주도세력은 東草市民들이다. 이들은 위대한 문화창조 원동력을 가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시대를 이끌어 갈 주도세력도 시민이요, 미래를 개척해갈 주체도 역시 시민들이므로 이들이야 말로 태풍보다 더 강력한 문화창조의 위력을 지녔으므로 문화 향수의 주인공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시대를 경영하는데 핵심적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이 한때는 오도된 문화시책으로 예측되어 뚜렷한 주관은 자취를 감추고 위장된 문화관으로 타락되던 시절도 있었다. 이들은 밟히고서 억눌려도 대중문화의 구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양심적인 작가들이 철창속에 갇혀 신음하여도 참문화 창조의 이념과 신념을 버린적이 없었다. 참문화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가식이 없고 천륜에 근거를 둔 윤리 도덕관으로 무장되어 있으므로 무적의 의미를 내포한 문화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참문화는 바로 대중문화이므로 이 문화를 이끌어간 계층이 농·어민들을 위시한 영세민들이고 사회적으로 제일 심한 차별대우와 버림을 받아왔어도 순리적으로 전진하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에 정면 대치하는 우를 범한적이 없는 착한 집단들이다. 원천적으로 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이들을 지난 세월 위정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본 항로를 이탈하여 강압정치에 순응하도록 강요해 왔었다. 그러나 의

형적으로 강압시책에 순응하는듯 보였으나 자유 추구형의 문화운동 정신을 꺾지 못했고 원천적으로 싹트고 있는 대중문화운동의 열기는 오히려 더 가열되는 결과만 가져왔었다. 본원은 이와같은 문제점이 문민시대를 접어들면서 모두 해소되어 소신있는 대중문화운동이 싹이 틈에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본원이 93년에 문을 연 향토문화학교가 이와같은 철학적 이념을 구현하기위해 시작한 노력의 하나다. 문화학교 운영의 기본방침을 몇가지 설정,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① 시민들의 기호성을 충족시킨다. ②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습득한 강좌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의 선정 ③ 강좌내용이 까다롭지 않고 숙달이 수월해 권태증을 느끼지

못하는 과목이라야 한다. ④가사시간과 중복되지 않아 문화학교 등교에 부담이 없는 시간대의 설정 ⑤발표회, 작품전등을 열어 신장된 재능을 가족과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한다.

이와같이 자유분위기속에서 개강되고있는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열어갈 관문에 「무문대도」의 큰뜻을 펼쳐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시대를 열어갈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권두사에 「문화학교」의 뜻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존경하는 문화가족과 시민여러분! 대중문화의 구현은 세계화의 초석이 될것이 확실하므로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傳統性있는 文化를 바탕으로 變化發展



鄭 在 哲
국 회 의 원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은 순수한 우리문화에 흠집을 낼 염려가 있지만 긍지를 가지고 향토문화를 소중하게 가꾸어 나갑시다.”

우리는 한때 생각이 깊지못해 서구문화만이 시대를 앞서가는 최첨단 고급 문화인줄 착각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수백년동안 내려오던 전통문화의 뿌리가 흔들리고 윤리와 도덕관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슬기로운 지혜로 예의 범절을 존중하고 의리에 강했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된 우리문화는 자주성이 스며있었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사랑이 가득하여 이웃을 아끼며 온정을 베푸는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분을 존경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소박하게 생활하는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와같은 생활 철학은 미풍양속을 근간으로하는 전통문화의 범주속에서 사는것을 보람으로 알고 영광으로 느껴왔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문화만이 제일이라는 생각은 개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을 범하기 쉬우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한말 고집스러운 통치가처럼 무조건 배척할것이 아니라 서구문화의 장점을 우리문화에 조화있게 접목시켜 5천년 이어온 전통문화를 세계화로 기록하는데 기틀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는 어릴때 물놀이 하면서 성장하던 고향을 한시라도 잊은적이 없으며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중앙정치무대(국회)에서 활동하는것도 고향에 사랑과 믿음의 뿌리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루워 진것이라고 믿고있으며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는 항상 새용기를 주고있습니다. 향토문화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이를 발전시킬려고 애쓰고 동시에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어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속에 진입해 21세기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고향인 속초지역은 2천년대를 맞아 그동안 온갖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여온 동서고속전철, 영동국제공항의 역사적 건설로 설악산-화진포-금강산을 연기

(聯騎)하는 세계적인 국제관광지가 되고 국제 항구도시로 발전되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 올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세계화가 다가서는 변화와 발전은 우리고장의 전통적인 향토문화가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될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풍요로운 새시대를 향해 힘찬 전진을 같이 할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고장 문화의 등불인 속초문화 제11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토문화의 독자성 유지를 위한 침병



동 문 성
속초시장

우리 지역은 국민 여가 지대(餘暇地帶)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휴양을 즐기며 여가를 보내는 관광객들로 늘 붐빕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래 퇴폐문화의 침입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휴양객들은 우리의 샴터를 단순한 놀이터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은 일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거침없이 해댁니다. 이런 모습을 수시로 접하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결국 가치관의 전도(顛倒)와 문화적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적인 침탈은 우리 삶의 환경을 크게 위협합니다. 이는 관광도시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현상이거나, 우리 역시 치밀한 문화적 방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외래 퇴폐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도회지 문화의 종속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중앙 문화와의 우호적 접촉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하며, 외래 관광객들에게는 독특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토 문화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이 강화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문화 전쟁의 최일선에서 향토문화를 사수하여, 주민의 문화적 가치관을 옹호하고 삶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속초문화원은 바로 이런 문

화کم병의 역할에 충실해 왔으며, 이 '東草文化誌'가 바로 그런 전초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토의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지켜, 속초문화의 독자성을 유

지하고, 그 가치를 확대시키려는 東草文化院의 노력을 다시한번 높게 평가하면서, 축간사에 가름합니다.

속초문화 발간을 축하드리며



임 호 성
속초시의회의장

우선 “속초문화 11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속초문화”지가 발간된지 10여년의 세월속에서 놀라운 정도로 성장한 속초문화집이 향토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의 욕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에서 이제는 질적으로 보dana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본래의 욕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대될 것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들이 적극 시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속초문화 11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근년에 우리시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음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의 자람이요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활발한 연극활동, 시낭송회, 음악연주회, 사진전시회, 세미나, 특히 금년부터 우리시의 전통축제인 설악제를 설악문화제로 개칭하여 개최한 것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수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방문화예술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복지와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면서 향토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고 볼때 문화예술인들의 기여는 지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므로 인해 지역문화의 창달과 육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이는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민의 독특한 문화예술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습니까.

속초문화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향토문화의 파수꾼으로서 그간의 노력이 머지 않아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지는 바로 향토문화예술의 자긍심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 왔으며 우리 속초시의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함에 있어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속초문화지가 우리고장의 문화예술을 전통계승시켜 나가는데 모든 시민이 다같이 참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속초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최용문 문화원장님과 집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속초문화지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우리 고장을 지켜나가는 향토문화지로서 향토문화예술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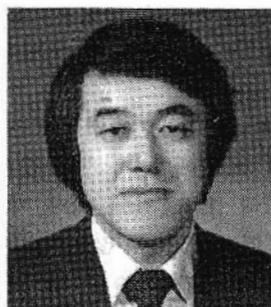
신선봉 노을

까치 등우리 뒤으로
신선봉 노을이 살고 있다
그윽히
첫날밤 하늘 신방을 꾸미며

그와 나 거리 저 편에
설악산 봉우리들 봉긋 피어오르고
어머니 저승 드시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만져 보았던
그분 젖봉우리듯이

그 그림자 아래
내 오줌 싸다 낄낄댄적 얼마나 되었는지...
동해 하늘이
이렇게 맑은 날 오후

나는 그만 보아버렸다
노을 문짝 반쯤 비켜서
촉은히
이쪽으로 기웃거리는 초승달



최 명 길

■ 약 력

- 1940년 강릉 출생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졸업
- 1975년 <현대문학>으로 문단에
나옴
- 저서: 시집 「화접사」 「풀피리 하나
만으로」 「반만 올리는 피리」 명상
시집 「바람 속의 작은 집」 등

제30회 雪嶽文化祭와 研究團과 決算報告

속초시민들이 펼치는 향토문화축제인 제30회 설악문화제는 30회를 접어들면서 제자리를 잡아 향기와 빛을 멋지게 발산하여 시민 축제로 승화되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金麗水 설악문화제 위원장은 진행과 심판상의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등 하자가 많았다고 자책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어 이제야 제 궤도에 진입하였으므로 앞날은 밝다고 보는 계층이 많다. 31회 대회부터 더 알차게 개최하여 고 부가가치가 보장된 상업성이 확립된 향토축제로 승화시켜 소득과 직결 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축제 개최준비, 진행등에 앞장서게 되어 자연스럽게 민간주도형의 예술축제로 평가받게되어 세계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 확실해지는데 같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단을 발족시켰고 제30회 축제를 결산하는 총회를 가진바있었다.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악문화제 연구단 구성경과보고

1. 1995년 8월 30일 제30회 설악문화제위원회 총회(委員長-金麗水)에서 속초문화원내 상설기구로서 연구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함.

2. 1995년 10월 2일 文化院 제5차 理事會의 결의를 받아 본원에 상설기구로 정식 발족하고 10월7일 오전11시 현판식을 가짐

3. 선임된 연구위원

- 단 장=崔龍文
- 부 단 장=崔茂一, 李仁鐵
- 연구위원=張正龍, 이병연, 曠상옥, 한영환, 李建錫, 張昌榮, 金雲天, 趙東龍
- 간 사=金鎬應(문화원사무국장)

제30회 설악문화제 고찰

1. 행사내용

1) 제례행사-현행 설악대제는, 그 명칭에 걸맞지 않게 단순 告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행사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바, 이의 원형 복원이 미흡하고 또한 노인회 주관의 대체 행사와 별도로 설악청년회 주관의 '산신제'를 지내고 있어, 제례의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 민속행사-전통민속 행사 중 주로 체육행사를 경연형태로 진행하고 있어,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양에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임.

다) 산악행사-산악 등반대회 단 한 종목

만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점차 호응도가 떨어져 산악인들로부터 불만제기.

라) 시민행사-실향민들을 위한 행사나, 어민들을 위한 행사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행사 절대 부족, 주부 노인 청소년 등 각 계층의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요망.

마) 체육행사-동 대항 체육경기는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해, 축제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바, 이의 과감한 삭제나 동호인별 체육경기로 전환 유도. 특히, 주 경기장인 공설운동장에서 공개행사 직후 체육행사만이 진행되어 마치 설악제의 주 종목이 체육행사인 양 오도될 우려가 있는 바, 이의 개선이 요망.

바) 문화행사-옥외 문화행사의 개설로, 주민 참여도 확대 유도 및 야간 행사 확대 필요.

사) 공개행사-가장행렬의 수준이 미흡한 바 이를 대폭 향상시키고, 아울러 거리 축제화하는 방안 강구 절실. 또한 행사의 다양화로 볼거리 제공 추진 필요

2. 행사 장소에 대한 검토

현행 공성운동장을 주 행사장으로 쓸 경우, 연회자와 관람자가 격리되어 일체감 조성이라는 향토축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소가 협소하여 난장 등의 부대 시설 설치가 어려운 바, 행사 장소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강릉이나 양양과 같이 강변터가 행사장소로 이상적이거나, 지형적으로 이의 확보가 어려운 바, 단기적으로는 동명항 매립지나 교동택지개발 지구 등을 행사장소로 활용하로,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도로망을 확보한 후 영랑호 범바위 일대의 공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설악문화제 문제점

가. 행사 主종목 不在 : 설악문화제를 대표할 만한 主행사가 육성되지 않아, 백화점식 행사 나열로 향토축제 意義 반감. 일부 민속학자들은 제례행사 또는 민속행사를 복원하여 主행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역적 현실상 이의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리라 여겨지는 바, 산악행사 또는 실향민관련 시민행사를 주 主종목으로 정착시킨다면 지역적 특성이 부각되는 등 향토축제로서의 의의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여겨짐.

나. 축제적 성격부족 : 향토축제의 일반 목표인 '주민 일체감 조성' 및 '향토에 관한 자긍심 고취'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미흡. 동별 경연대회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많이 삽입되어 있는 바, 취향이 같은 동호인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다. 주도 세력 不在 : 문화적 식견이 높은 '일단의 主導세력'이 노출되어, 행사 主종목을 설정 추진되어야 하나, 현행 설악제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추진 위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폐단이 있었음.

라. 향토 특성 노출 不在 : 향토축제라 함은, 그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부각되어야 하나, 현 설악제는 이렇다할 향토적 특성이 전혀 노출되지 못하고 있음. 설악산이라는 산악관광자원을 비롯, 해양 관광자원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향민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주민 구성상의 특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해 장차 통일한국 시대를 지향한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관광 상품으로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마. 이론적 근거 미흡 : 향토축제에 관한 민속학자 또는 문화적 근거제시가 미흡하고, 각

프로그램 추진 목표가 불분명함.

바. 행사 장소의 분산 : 현행 행사장소가 공설운동장, 수북기념탑, 별도 난장 등으로 분산되어, 행사의 효과가 반감됨.

4. 설악문화제 개선 방안

가. 향토축제로서의 意義 확보 :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정신적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는 향토축제 본연의 의의를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 제시.

나. 지역특성 부각 : 산악행사와 해양문화 및 자연부락문화가 효율적으로 배합된 우리 지역의 민속문화적 특성 표출. 실향민으로 재구성된 수북지역의 성격 표출. 이를 행사 주종목으로 설정.

다. 자연 자원 활용 : 설악산의 지명도를 활용하고, 해양 온천등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대책 마련.

라. 프로그램의 이론적 검증 강화 : 설악문화제 전종목에 걸쳐, 그 실시 타당성과 지향목적, 원형 복원 여부 및 향토축제의 기본 방향과의 일치 여부를 이론적으로 검증 후 실시.

마. 프로그램의 전국화 또는 국제화 시도 : 프로그램의 성격과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

5. 설악문화제 행사 개선 프로그램

가. 제례행사 : 설악산신제와 해양 용왕제, 부락 성황제를 합친 설악대제를 원형대로 완벽하게 복원(민속학적 고증). 최근 개발되고 있는 온천수를 활용하기 위한 용신제 추진. 이로써 제전의 神聖性 확보 및 大同和合의 구심점 확보 가능.

나. 시민행사 : 실향민 관련 행사 강화로 수북지구로서의 특성 부각. '실향민의 밤'을 실시, 실향민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실향민 1,2,3 세대로 구성된 '통일염원 사절단'을 구성하여 갖가지 이벤트 행사 개최. '북한 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실향민들이 각자의 출신지 고유 음식을 제시토록 유도하여, 실향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향토 특성 표출 시도. 이로써 장차 통일 한국시대의 중심도시로의 기능 확보.

다. 민속행사 : 실향민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한때는 북한통치를 받았다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이북 5도 민속예술경연대회'등을 개최하여, 장차 민족동질성 회복에 중추적 역할 담당 유도. 북한 지역에 관한 민속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동해안 별신굿' 12마당(3일 소요)을 완벽하게 재현하여 주요 무형문화제로 육성한다면 이 또한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리라 여겨짐. 민속경기의 경우, 개인적으로 전환하여 즉석 참가 가능토록 전환.

라. 산악행사 : 단순 등반대회를 止揚하고,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산악행사 발굴.

'설악산 문화유적 답사', '환경보호를 위한 이벤트 행사', '숲속의 노래방', '설악산 소재 사진촬영대회', '가족단위 설악산 방문대회', '산악왕 선발대회', '산악 마라톤대회', '산악인을 위한 전야제', '산악인의 밤'등 산악행사 대폭 강화.

마. 문화행사 : 지역예술인들의 기획행사 집중 개최. '속초를 소재로한 미술작품 전시회', '설악산 소재 전국 사진촬영대회', '바다를 소재로한 詩낭송 행사', '권금성에서의 야외 무

용’, ‘향토색 짙은 연극 공연’, ‘설악 미술제’, ‘설악음악제’, ‘재즈퍼스티벌’등 적극 유치.

바. 체육행사 : 인위적인 洞대항 행사를 止揚하고 이벤트화된 체육행사만 개최. 조기축구회 등 자생단체 위주로 경기 집행.

사. 경축행사 및 공개행사 : 축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 개최 전야제 행사 강화로 분위기 조성 시도. 야시장, 서커스 등 먹거리 볼거리의 충분한 제공 시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념품 개발 판매 등 시도.

설악문화제 연구단의 건의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제30회(1995년) 설악문화제 개최를 즈음하여 발족한 설악문화제 연구단은 향토 축제 시행 30년간의 명암을 대학교수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위원들이 들추어 보았다.

30회까지 설악문화제가 개최되면서 뚜렷한 명분, 근본정신, 개최 이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제1회(1966년) 최초 개최할 때 전통민속을 가미한 예술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악산 절경에만 의존, 관광객을 유치하는 상업적 차원의 설악제를 구상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상인들이 기대한 관광소득은 보잘것 없었다.

향토축제 개최 이념이 없었고 설악산 절경을 과신한 나머지 알피니스트를 위주한 산악관광객 유치로 승부를 걸었으나 어느정도의 성과는 있었으나, 雪嶽文化祭는 30년간 개최해도 공인된 향토 축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전통성을 시민들과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② 전통민속 문화 행사가 소외되고

③ 문화, 예술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④ 축제 개최 의의가 상업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⑤ 시민참여를 고취하기 위하여 체육행사를

삽입시켜 억지로 행사 규모를 확대시킨 잘못을 범했다.

⑥ 전통민속의 뿌리는 무속인데 현대식 종교관으로 이를 뿌리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옛 조상들원 무속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대자연과 대치하고 삶을 이어가면서 고유문화를 향유, 발전시켜 왔었다.

그 맥을 잇기 위해 무속 축제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⑦ 향토 축제는 전통민속의 범주내에서 추진되어야 제맛을 음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상인 단체가 주축되어 잡화를 위주한 난장(야시장), 향토식품과 음식점 운영이 조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흠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알맹이 없이 표류만 거듭하던 설악문화제를 국내외에서 향토축제로 높이 평가 받기 위해서는 개최 당시의 잘살아 보자는 제3공화국이 제시한 방정식에 억지로 대입시키던 방식을 벗어나 구전에만 전래되던 설악 대제의 이념을 문헌에서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작업은 강릉대 교수 장정룡 박사와 동우전문대 이병연교수가 주축이 되어 동국여지승람, 삼국유사 등에서 수록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국의 이름난 문화제는 개최 의의와 뿌리가 있는 점을 감안, 구전으로 전래되던 설악 대제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기원하던 제전이므로 이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소망을 성취하는 제전으로 승화시켜 설악문화제의 개최이념으로 삼는 것이 연구단의 바람이다.

설악문화제는 민족의 소망인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기도의 대도장으로써 각광받게 되면 산악에서 이루어지는 찬란한 통일염원 문화 이벤트를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전통민속 예술의 바탕위에 상업성의 관광소득 문화도 활짝 피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 연구단이 재조명해 보는 설악문화제

○ 설악문화제의 연혁과 문제점

개최연도별	개 최 내 용	문 제 점	비 고
제1회 설악제 (1966년)	설악산 개발에 최초로 참여 했던 설악지구의 상인들이 설 악산 홍보를 위해 예술인 및 산악인들로 하여금 설악제 개 최를 유도. - 행사내용 ①전국사진 공모전 ②사진촬영대회 ③미협회원전 ④취주악경연대회 ⑤무용의밤 ⑥관광영화의밤 ⑦백일장 ⑧등산대회	당시 카메라도 크게 보급되 지 않아 일반시민소지가 제한 되어 있어 일반참여가 어려웠 고 등산 인구도 적어 일반 시 민들과는 별로 연관이 없었다. 이로써 시민들은 행사 뒷전 에 밀려나 있어 시민참여율이 저조했었다.	
제2회 설악제 (1967년)	풍어제, 사자놀이, 체육대회 등 행사 내용보강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강제성을 띤 체육행사 개최	
제14회 설악제 (1979년)	일반행사 일시 중단(산악행 사만 실시)	보조금과 기부금 행위 금지 로 행사 제한	
제16회 설악제 (1981년)	종합축제로 확대	유신 체제 홍보를 위하여	
제18회 설악제 (1983년)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	유신체제 합법화를 위한 유 화시책으로 확대 개최	
제24회 설악제 (1989년)	민간인 위원장이 행사 주관	가장 행렬대 등장 3년후 부 터 소재 빈곤으로 어려움	
제30회 설악문화제 (1995년)	설악문화제로 명칭 변경 규 모와 내용을 충실히 하기위해 연구단 발족(단장. 문화원장)	근본이념 없이 개최되던 축 제를 중지부를 찍고 재도약을 위한 계획을 검토중임.	

■ 연구단이 재조명해 보는 설악문화제

○ 설악문화제의 연혁과 문제점

개최연도별	개 최 내 용	문 제 점	비 고
제1회 설악제 (1966년)	설악산 개발에 최초로 참여 했던 설악지구의 상인들이 설 악산 홍보를 위해 예술인 및 산악인들로 하여금 설악제 개 최를 유도. - 행사내용 ①전국사진 공모전 ②사진촬영대회 ③미협회원전 ④취주악경연대회 ⑤무용의밤 ⑥관광영화의밤 ⑦백일장 ⑧등산대회	당시 카메라도 크게 보급되 지 않아 일반시민소지가 제한 되어 있어 일반참여가 어려웠 고 등산 인구도 적어 일반 시 민들과는 별로 연관이 없었다. 이로써 시민들은 행사 뒷전 에 밀려나 있어 시민참여율이 저조했었다.	
제2회 설악제 (1967년)	풍어제, 사자놀이, 체육대회 등 행사 내용보강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강제성을 띤 체육행사 개최	
제14회 설악제 (1979년)	일반행사 일시 중단(산악행 사만 실시)	보조금과 기부금 행위 금지 로 행사 제한	
제16회 설악제 (1981년)	종합축제로 확대	유신 체제 홍보를 위하여	
제18회 설악제 (1983년)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	유신체제 합법화를 위한 유 화시책으로 확대 개최	
제24회 설악제 (1989년)	민간인 위원장이 행사 주관	가장 행렬대 등장 3년후 부 터 소재 빈곤으로 어려움	
제30회 설악문화제 (1995년)	설악문화제로 명칭 변경 규 모와 내용을 충실히 하기위해 연구단 발족(단장. 문화원장)	근본이념 없이 개최되던 축 제를 중지부를 찍고 재도약을 위한 계획을 검토중임.	

第30回 雪嶽文化祭 決算報告

1. 行事 概要

- 行事期間 : '95. 10. 10(화)~10. 11(수)
※前夜祭 : '95. 10. 9(일)
- 行事場所 : 公設運動場, 文化會館 및 補助競技場
- 主 催 : 雪嶽文化祭 委員會
- 後 援 : 各及 機關, 社會團體, 企業體, 學校 等

2. 豫算 執行 事項

■ 제30회 雪嶽文化祭 決算

- 가. 確保額 _____ 93,380,000원
 - 市費 支援額 _____ 47,000,000원
 - 行事協贊金 _____ 46,380,000원
 - ※ 제30회 雪嶽文化祭 協贊금 기탁자 名單 - 別添
- 나. 執行額 _____ 90,004,130원
 - 本部行事 運營費 _____ 50,464,130원
 - 競技團體 支援金 _____ 39,540,000원
- 다. 殘 額 _____ 3,375,870원

3. 行事種目

■ 總 37個 種目

- 祭禮行事(2개종목) : 雪嶽大祭(山神祭, 雪嶽大祭)
- 前夜祭行事(3개종목) : 提燈行列, 불꽃놀이, 海上불꽃놀이
- 公開行事(6개종목) : 市街行進, 入場式, 開會式, 마스게임, 한마당잔치, 閉會式
- 山岳行事(2개종목) : 登山大會, 산악인 큰 잔치
- 文化行事(9개종목) : 시립합창단발표

회, 사물놀이, 사진전, 연극공연, 꽃꽂이전, 갯마당공연, K.B.S전국노래자랑, 풍어굿, 서예전

- 民俗體育行事(8개종목) : 농악경연대회, 씨름, 줄다리기, 그네, 투호, 궁도, 쌀가마나르기, 민속축구
- 體育行事(4개종목) : 시범축구, 배구, 족구, 게이트볼
- 기타行事(3개종목) : 바둑대회, 전국바다릴남시대회 특산물요리솜씨자랑

4. 行事種目別 成績

가. 綜合賞

- 綜合優勝 _____ 교 동
- 綜合準優勝 _____ 조양동
- 綜合 3위 _____ 동명동
대포동

나. 農악경연대회

- 1위 _____ 교 동
- 2위 _____ 노학동
- 3위 _____ 동명동
- 獎勵賞 _____ 조양동, 금호동
- 努力賞 _____ 청호동, 도문동, 영랑동

다. 應援賞

- 1위 _____ 교 동
- 2위 _____ 금호동
- 3위 _____ 청호동
- 獎勵賞 _____ 장사동, 동명동, 청학동
- 努力賞 _____ 영랑동, 조양동, 노학동, 중앙동

라. 假裝行列

- 1위 _____ 동명동
- 2위 _____ 청호동
- 3위 _____ 노학동
- 獎勵賞 _____ 도문동
- 努力賞 _____ 장사동

마. 民俗競技

- 줄다리기 : 1위(대포동), 2위(장사동), 3위(도문동, 교동)
- 그네(단체) : 1위(조양동), 2위(도문동), 3위(영랑동)
- 씨름(단체) :
 - 男 : 1위(대포동), 2위(청호동), 3위(영랑동, 교동)
 - 女 : 1위(중앙동), 2위(청호동), 3위(대포동)
- 투호 : 1위(교동), 2위(설악동), 3위(조양동)
- 쌀가마나르기 : 영랑동, 노학동, 교동

공동1위

- 민속축구 : 1회전후 경기 진행 못함.

바. 體育行事

- 시범축구 : 우승(설악중학교), 준우승(속초중학교)
- 배구 : 1위(대포동), 2위(금호동), 3위(교동)
- 족구 : 1위(조양동), 2위(동명동), 3위(청학동)
- 게이트볼 : 1위(금호동), 2위(교동), 3위(조양동)

5. 行事內容

구분	행사명	일시	주관	장소	행사내용
계	37개 종목				
제례행사 (2)	산신제	10. 9 14:00	설청로타리클럽	설악동소공원	산악인 무사고기원(강신제)
	설악대제	10. 9 17:30	속초시노인회	수복기념탑	산신, 용왕신, 토지신, 합동봉안
전야제 행사 (3)	제등행렬	10. 9 18:40	교육청	속초국교-수복탑	촛불행진, 악대, 고적대, 여중·고생 500명
	불꽃놀이	10. 9 19:10	설악프라자타운	청호동방파제 설악동소공원	연화 300발
	해상불꽃놀이	10. 9 19:10	속초수협	동명항	오징어 선단 20척
공개 행사 (6)	시가행진	10. 10 09:00	대회본부	속초국교-시청- 공설운동장	대회본부요원, 악대동농악대, 상고 및 13개동 가장행렬
	입장식	10. 10 10:00	대회본부	공설운동장	동 가장행렬단 선수입원, 응원단
	개회식	10. 10 10:30	대회본부	공설운동장	제7회 속초시민문화상 시상, 우승기반납
	마스게임	10. 10 11:05	교육청	공설운동장	속초여자중학교 학생 800명

제30회 雪嶽文化祭와 研究團과 決算報告

구분	행사명	일시	주관	장소	행사내용
공개행사 (6)	한마당잔치	10. 11 16:00	대회본부	공설운동장	각동 농악대 전시민
	폐회식	10. 11 16:40	대회본부	공설운동장	종합상, 응원상, 농악경연 상등 시상
산악행사 (2)	산악인의큰잔치	9. 30 16:00	설악산악연맹	소공원	산악인 추모행사, 산악인 500명 참가
	등산행사	10. 1 -10. 2	설악산악연맹	설악산	환경보호공모사진전, 등산 행사(1개코스)
문화행사 (9)	사물놀이	10. 9 18:00	문화원	수북탑	갯마당사물놀이
	사진전	10.2-7 8-11	민예총 예총	문화회관 전시실	회원 작품전 사진협회 창립전
	꽃꽃이전	10.9 -10.10	금연꽃예술회	아남프라자	꽃꽃이 작품전
	연극공연	10.9 -10.10	속초예총	문화회관	작품명: 이대감 망할대감
	K.B.S 전국 노래자랑	10. 11 13:00	대회본부 (KBS)	수북탑	(예심): 13개동200명참가 (본선): 예선통과30명참가
		10. 9 14:00		KBS공개홀	
	서예 및 꽃꽃이작품전	10.12 -10.14	문화원 (향토문화학교)	문화회관	서예전 꽃꽃이작품전
	시립합창단 발표회	10. 7 19:00	속초시립합창단	문화회관	임수철 지휘 농부가외 14곡
	풍어굿	10.9 -10.11	속초수협	공설운동장	용왕굿외 12거리 빈순애외 6명
체육행사 (4)	풍물패 갯마당공연	10. 12 19:00	문화원	문화회관대강 당	영신굿, 판굿
	축구(시범)	10. 10 11:40	교육청	공설운동장	시범축구경기 (속중 대 설중)
	배구	10.10 -10.11	배구협회	공설운동장	동대항전
	족구	10.10 -10.11	대청라이온스클럽	공설운동장	동대항전
	게이트볼	10.10 -10.11	금설라이온스클럽	공설운동장	동대항전

구분	행사명	일시	주관	장소	행사내용
민속체육행사 (8)	농악경연대회	10.10 -10.11	속초농협	공설운동장	동대항전
	씨름	10.10 -10.11	씨름협회	공설운동장	남·여단체전, 개인전 동대항전, 동별 30명
	줄다리기	10.10 -10.11	평통협의회	공설운동장	동대항전 및 개인전
	그네	10.10 -10.11	여성단체협의회	공설운동장	동대항전
	투호	10.10 -10.11	속초축협	공설운동장	개인전, 유단자 개인전, 여 무사 개인전
	궁도	10.10 -10.11	궁도협회	설악정	동대항전(400m계주) 동대항전
	쌀가마나르기	10.10 -10.11	새마을금고 속초시협회	공설운동장	
	민속축구	10.10 -10.11	청년회의소	공설운동장	
기타행사 (3)	전국바다릴남시대회	10. 15 09:00	속초남시회	하일라비치해안	1인 2대미만 릴원투
	바둑대회	10. 8	문화원	문화회관문화사랑방	학생부, 어린이부, 일반부 : 기호인 대상
	특산물요리 솜씨자랑	10. 11	음식업협회 속초시지부	공설운동장	특산물요리 시식

6.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원)

항목	집행액	내역
설악문화제 행사비(계)	90,004,130	
본부행사 운영비(소계)	50,464,130	
시상비	13,494,000	
종합상	4,000,000	○우승 2,000,000 ○준우승 1,000,000 ○3위(2개동) 1,000,000
응원상	3,200,000	○1위 1,000,000 ○2위 500,000 ○3위 300,000 ○장려상(3개동) 600,000 ○노력상(4개동) 800,000

제30회 雪嶽文化祭와 研究團과 決算報告

항 목		집 행 액	내 역
	농 악 경 연 상	2,800,000	○1위 1,000,000 ○2위 500,000 ○3위 300,000 ○장려상(2개동) 400,000 ○노력상(3개동) 600,000
	가 장 행 렬 상	2,200,000	○1위 1,000,000 ○2위 500,000 ○3위 300,000 ○장려상 200,000 ○노력상 200,000
	우 승 컵 (기)	1,294,000	○종합1,2,3위 426,000 ○시범우승기 250,000 ○시범우승컵(2) 232,000 ○추가분 2위 142,000 3위(2개동) 244,000
시 설 홍 보 비	10,560,000	○본부석아취 1,000,000 ○피케트(14) 360,000 ○대형에드벌룬 1,000,000 ○풍선 800,000 ○선전탑 2,000,000 ○에드벌룬 800,000 ○문화제가로기 3,000,000 ○문화제계양기 100,000 ○프랭카드(15) 1,500,000	
재 료 비, 수 용 비	4,678,000	○홍화(리본)제작비 300,000 ○모자구입비 2,100,000 ○뱃지구입비 630,000 ○문화제기제작비 300,000 ○기록보존사진대금 208,000 ○악대등차량임차료 840,000 ○제등행렬재료비 300,000	
행 사 장 관 리 비	400,000	○수반구입 100,000 ○행사장경비 200,000 ○앰프수리비 100,000	
일 반 경 비	1,815,930	○인쇄비 627,500 ○봉투(시상) 5,000 ○기수단장갑 25,000 ○사무용품구입비 245,900 ○충포발사수수료 10,400	

제30회 雪嶽文化祭와 研究團과 決算報告

항 목	집 행 액	내 역
일 반 경 비		○우편발송비 102,130 ○국교 악기수리비 800,000
행사진행비 및 사례비	8,150,000	
	2,800,000	○고적대 800,000 ○상고, 속고악대 400,000 ○제등행렬 800,000 ○경찰선도 100,000 ○22사 항공대 200,000 ○속여중 마스크게임 500,000
	5,350,000	○불꽃놀이기사 100,000 ○교동농악시연 300,000 ○사회자사례비 200,000 ○경찰경비 200,000 ○사물놀이 200,000 ○기타사례비 500,000 ○마스크게임강사사례비 300,000 ○농악겨연심사사례비 250,000 ○홍보사례비 1,800,000 ○소식지 1,000,000 ○업무추진비 500,000
급 양 비	5,636,100	
		○연화발사종사자 100,000 ○행사진행요원식대 2,764,000 ○자문위원오만찬 1,888,900 ○행사준비단식대 883,200
결 산 경 비	4,400,000	
		○감사패제작 2,660,000 ○총회준비금 250,000 ○총회기념품 600,000 ○회장단및 총회식대 800,000 ○공로패제작 130,000
예 비 비	1,290,100	
		○운영 제잡비 240,100 ○홍보시설(본부석) 300,000 ○K.B.S노래자랑 전기시설 350,000 ○시상대원상복구 400,000

제30회 雪嶽文化祭와 研究團과 決算報告

항 목	집 행 액	내 역	
행사경기단체진행비(소계)	39,540,000	○산신제	1,000,000
경 기 단 체 진 행 비	33,040,000	○설악대제	1,900,000
설청로타리클럽	1,000,000	○불꽃놀이	1,540,000
속 초 노 인 회	1,900,000	○한마당잔치	300,000
(주)한화: 설악동	1,540,000	○등반행사	2,000,000
종합경기장관리소	300,000	○사진전	1,000,000
설악산악연맹	2,000,000	○사진전	1,000,000
예 총	1,000,000	○연극공연	3,000,000
민 예 총	1,000,000	○꽃꽂이전	500,000
예 총	3,000,000	○바둑대회	1,000,000
금연꽃예술회	500,000	○서예 및 꽃꽂이 작품전	1,500,000
문 화 원	1,000,000	○풍물패 갯마당공연	1,000,000
문 화 원	1,500,000	○시립합창단발표회	1,000,000
문 화 원	1,000,000	○제은행렬	500,000
문 화 원	1,000,000	○마스게임	1,000,000
교 육 청	500,000	○시범축구	2,000,000
교 육 청	1,000,000	○그네	800,000
교 육 청	2,000,000	○궁도	1,700,000
여성단체협의회	800,000	○바다릴낚시대회	3,000,000
궁 도 협 회	1,700,000	○풍물굿	3,000,000
속 초 낚 시 회	3,000,000		
빈 순 애	3,000,000		
씨 름 협 회	3,000,000	○씨름	3,000,000
문 화 공 보 실	1,300,000	○K.B.S.노래자랑	1,300,000
경 연 기 관 보 조 금	6,500,000		
13 개 동	6,500,000	○동 농악경연보조금	6,500,000

7. 보고규정

설악문화재단위원회 정관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총회에 보고

8. 제30회 설악문화제 평가

설악문화제 연구단 연구내용 참조(별지)

위원장단 성금내역

▲위원장=김여수(3,000,000원) ▲부위원장=최무일(2,000,000원) 이규철(2,000,000원) 임창기(2,000,000원) 조동룡(2,000,000원) 김명동(1,000,000원) ▲감사=고명환(1,000,000원) 박명자(300,000원)

계 : 13,300,000원

1백만원 이상 기부자명단

▲(주)설악관광=최택림(2,000,000원) ▲농협중앙회속초지부=최훈(1,500,000원) ▲속초자동차학원=김광수(1,000,000원) ▲속초시동명동=임주현(1,000,000원) ▲삼정장여관=이정균(1,000,000원) ▲(주)대명건설=최평규(1,000,000원) ▲(주)대명건설=최평규(1,000,000원) ▲할머니순두부=김종애(1,000,000원) ▲대명기업=김정문(1,000,000원) ▲(주)한용양행(아남프라자)=최원규(1,000,000원) ▲신홍사=송태현(3,000,000원) ▲삼성건설청초호유원지현장=김진성(1,000,000원) ▲(주)삼호건설(춘천시)=이운규(1,000,000원) ▲척산온천휴양촌=임정희(1,000,000원) ▲(주)부영(서울)=이중근(2,000,000원) ▲(합)현대쇼핑그린마트=권봉희(1,000,000원) ▲김택정변호사사무실=김택정(1,000,000원) ▲(주)한일레저개발=윤중수(2,000,000원)

계 : 22,500,000원

50만원 이상 기부자명단

▲(주)평강운수=강병남(500,000원) ▲학산교

통=정재환(500,000원) ▲노적봉=김유자(500,000원) ▲속초시 영랑동 231-1=박문웅(500,000원) ▲설악정형외과=이동화(500,000원) ▲내고향순두부=김봉자(500,000원) ▲(주)금강운수=박상호(500,000원) ▲(주)동해상사=김만유(500,000원) ▲(합)동해택시=이영선(500,000원) ▲(주)동도택시=허정도(500,000원)

계 : 5,000,000원

50만원 미만 기부자명단

▲동진스카이라운지=민병숙(300,000원) ▲명동건축사사무소=박종삼(300,000원) ▲(주)강원여객=최돈분(300,000원) ▲동양시멘트(주)속초레미콘=양기홍(300,000원) ▲속초라이온스클럽=윤홍(250,000원) ▲동아서점=김종록(200,000원) ▲강원도교육위원회위원장=고연재(100,000원) ▲월남참전전우회=김경주(100,000원) ▲합동문화인쇄사=김봉해(100,000원) ▲현산문화제위원장=김인영(100,000원) ▲장사동설악문화제위원장=김일동(100,000원) ▲영랑약국=김재섭(100,000원) ▲동계약국=김충호(100,000원) ▲수북여관=남상선(100,000원) ▲동명동설악문화제위원장=이정현(100,000원) ▲조양동 1419-32=이종욱(100,000원) ▲속초세무서장=최조삼(100,000원) ▲강원도속초교육장=최염규(100,000원) 김연진(50,000원) 노광복(50,000원) ▲조양동 11통2반=박영식(50,000원) ▲영북농지개발조합장=함병철(50,000원) ▲속초소방서장=박길영(30,000원)

계 : 3,080,000원

업체별 협찬자 명단

▲광과전업사=윤창열(1,000,000원상당 ; 전기)
 ▲설악프라자본부장=김용일(6,000,000원상당 ; 화약)
 ▲육군제22사단장=김일갑(군악대 및 비행단)
 ▲육군 제56연대장=도재일(낙시(해안))
 ▲월남참전전우회=김경주(교통)
 ▲모범운전자회=배순기(교통)
 ▲(주)진로=유재국(2,000,000원상당 ; 팜프렛)
 ▲(주)경월=이희수(2,000,000원상당 ; 선전탑)
 ▲K.B.S속초방송국장=유동수(노래자랑)
 ▲문화일보=이인원(1,000,000원상당 ; 에드빌론)
 ▲영북신문=김형락(500,000원상당 ; 플랭카드)
 ▲신일광고=정연길(300,000원상당 ; 현수막)

설악문화제위원명부

▲고문(10)=정재철 한병기 최정식 이기섭 김종록 윤중국 장현영 임호성 8675부대장 5861부대장
 ▲자문위원(5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장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장 속초교육장 속초경찰서장 동우전문대학장 속초해양경찰서장 속초세무서장 속초소방서장 속초우체국장 동해지방해운항만청속초출장소장 설악산관리사무소장 속초전신전화국장 속초의료원장 한전속초지점장 속초고등학교장 속초여자고등학교장 속초상업고등학교장 신흥사주지 설악프라자본부장 한일레져개발사장 K.B.S속초방송국장 M.B.C속초지사장 강원일보속초지사장 도민일보속초지사장 속초수산업협동조합장 속초축산업협동조합장 담배인삼공사속초지점장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영북지구농지개량조합장 이기찬 박익훈 이호순 이기을 정종훈 백영일 유왕재 김길정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김정문
 ▲명예위원장=동문성(속초시장)
 ▲위원장=김여수
 ▲부위원장(10)=이전석 최무일 이규철 임창기 조동룡 김명동 박상옥(부시장) 한영환(부의장) 최용문(문화원장) 이유수(학무과장)
 ▲감사(2)=고명환 박명자
 ▲운영위원(30)=김재섭 이정현 최홍영 김만두 변경일 이원익 조용남 이철재 김용화 서진길 이기성 박종효 김일동 김인석 임덕수 최이권 노광복 사상철 엄상빈 김명자 박성룡 윤종구 이종욱 차진환 이인철 김연진 김봉해 김희중 김광남 김철한
 ▲집행위원(30)=김원기 허응복 진정구 김희평 이무 한기학 김호응 최낙민 김금연 장규호 지응준 최봉하 전태극 천성필 윤창열 최든일 주용봉 안대민 최규식 임주현 신철 지인환 최규학 박보근 이광춘 권홍달 채희용 권득수 조경식 빈순애
 ▲위원(80)=설악관광(주)대표 설악파크호텔대표 뉴설악호텔대표 설악산관광호텔대표 농협중앙회속초지부장 강원은행지점장 국민은행지점장 상업은행지점장 한일은행지점장 주택은행지점장 조흥은행지점장 향토기업대표 이관희 전상기 김용현 조승남 장동희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이승주 배태랑 최양일 이창현 정재환 김경주 남상선 김운식 김만유 김윤한 최규선 박상호 김철섭 김우찬 윤중호 장창록 황수복 박종삼 서형원 서재홍 이영선 엄동섭 김명수 윤홍 김택송 박두성 김현달 이정국 김규열 정태갑 김형락 박경구 고학재 이춘복 박순오 이동화 한영옥 백성호 정석순 박복길 김춘웅 박동진 하성해 전상희 김광수 최종열 양오규 안경민 박성화 오세하 이석기 이원식 김택성 문병현 황원석 박영식 양기홍 서동석 박명중

WTO出帆에 따른 商工人의 姿勢와 對應 方案



李 揆 喆

- 1942. 12. 9 출생
- 관동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 및 가사 조정 위원단
- 속초시 싸이클 협회 회장
- 재단법인 속초검찰선도 장학회 이사장
- 전국검찰소년선도위원연합회 자문위원(대검찰청)
-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1. 問題의 提起

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종결로 세계 경제는 새로운 貿易 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第二의 開國」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國際社會의 현실입니다.

나. 더욱이 소련이 瓦解되고 동구권 社會主義 정권의 몰락으로 脫冷戰 시대를 맞이했으나 經濟霸權主義에 의한 유럽 공동체(EC)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등 배타적 지역주의 경제블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 나라가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회피할 수 없는 國際化와 開放化라는 第二의 개국에서 다시 낙오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世界經濟의 활동 무대에서 孤兒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 지난 1947년 탄생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一般 協定(GATT)은 상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自由貿易 環境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그러한 노력이 상당한 結實을 맺어 준 것도 事實입니다.

라. 이에 따라 GATT체제의 補完과 維持를 위하여 새로운 多者間 貿易自由化 協商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결실로 WTO가 出帆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 WTO체제가 GATT체제와 比較해 갖는 중요한 특징

은 우선 GATT가 협정으로 한계가 있었던 점에 반하여 WTO는 國際貿易을 규율하는 機構로서 그 사법적 권능과 집행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보여줍니다.

- 바. 이렇듯 UR협상 타결로 WTO체제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國際貿易 秩序속에서 우리 나라는 우선 關稅引下와 市場開放을 실시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 사. 市場開放에 따라 國際競爭力을 갖춘 產業은 성장하게 될 것이 확실하지만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그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 할 급선무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2. 實態 및 問題點

- 가. WTO체제이후 세계 시장은 各國間 貿易·投資 障壁의 緩和로 輸出과 海外進出의 기회가 한층 넓어지는 동시에 국내시장도 開放됨으로써 국경이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 豫想됩니다.
- 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WTO가 앞으로 環境(GR), 노동(BK), 競爭政策(CK), 기술(TR)이라는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주의가 탄생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 다. 지난날 東西冷戰의 이데올로기가 대립되었던 時代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政治的 또는 軍事的 利害關係로 困하여 상호간에 경제적인 讓步와 혜택을 주기도 하였고 받기도 하였으며, 또한 企業도 정부의 產業 育成 정책이라는 보호막으로 인하여 경쟁자인 외국 기업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활동할 수 있었

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보호막을 거둬 치워야 하기 때문에 모든 企業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國際競爭力을 강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라. 따라서 앞으로는 政府에 의한 補助金의 支援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국가 특유의 경쟁 지원 수단이 제약을 받게 되고 民間企業의 制限的 去來慣行조차 어려워질 것이 豫想됩니다.
- 마. 또한 政府의 제반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의 개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稅制·金融·行政支援 역시 감소됨을 의미하며 공정 거래에 대한 독려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 豫想됩니다.
- 바. 이처럼 새롭게 형성될 國際貿易環境속에서는 經濟 第一主義가 자기 나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이 한시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 사. 냉엄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대국도, 영원한 우방국가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WTO체제하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우방국가나 또한 적대국가가 있을 수 없는 새로운 무역 질서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낙오자의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 특히, 우리 經濟는 政治的 民主化이후 지난날 억눌려 왔던 各階層의 욕구가 일시에 噴出되고 있는 한편 賃金引上 억제나 물가상승등 인위적 조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임금·쌀값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招來하였고 결국 國際競爭力의 급속한 저하를 불러와, 이 치열한 無限競爭의 새로운 世界 經濟秩序에 대응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 우리는 現在 個人主義와 集團利己主義가 날이 갈수록 만연되고 있어 모두가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어 國家自體의 生存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 차.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극소수 계층에 국한되는 일이지는 하지만 過消費와 浪費가 자행되고 있어 國民一般이 自身の 소득 수준을 참작하지 않고 이를 맹목적으로 뒤따르는 展示效果(demonstration effect)가 널리 확산되고 있어 구미 선진국이나 日本에서 발견되는 合理的 消費生活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商工人의 姿勢 및 對應 方案

- 가. 한 나라의 국민경제는 기업가의 經營能力에 따라 번영을 方向지을 수 있는 것이며, 기업가의 건전한 사고방식과 끈질긴 노력이 경쟁력 향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나. WTO체제의 출범은 국가 단위의 시장이 사라지고 세계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세계화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관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세계경제 조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 다. 유명한 경제학자 「Adam Smith」의 말대로 “浪費하는 자는 사회의 적이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자는 公共의 은인이다”라는 생각이 국민 전체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며 건전한 소비생활이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이 스며들도록 일대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라.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간 부문 스스로 자율적인 民間主義의 經濟意識改革을 실천해 올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經濟制度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資本主義 社會의 가장 중요한 지도층인 企業家は 大義를 중시하는 면모를 가져야 하며 검소한 생활로 솔선 수범하고, 근로자와 함께 고생하고, 회사의 경영을 民主的으로 함으로써 근로자와 국민들로부터 信賴와 尊敬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우선 근로사들이 勞動意慾을 조속히 소생시키는 일과, 생산성 향상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소지를 줄여 국제 경쟁력을 維持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 개방화에 따라 國際市場을 외국 기업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顧客滿足 경영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불만 요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해 기업 측이 최선을 다하여 良質의 製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顧客滿足經營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 이상과 같은 새로운 「라운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지금까지의 국제 교육은 질이 좋고 값이 싼 상품의 공급으로 경쟁을 하여왔으나 WTO체제 하에서는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의 수단과 방법까지도 경쟁의 要諦가 되는 무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이러한 「라운드」가 진행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와 道德性의 회복

李 氣 乙

- 경영학박사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동우전문대학 명예교수

■ 차 례

1. 孝
2. 禮
3. 信
4. 義

이 땅에 資本主義가 뿌리를 내리고, 특히 1970년대 이후 西歐 지향적인 近代化過程을 통하여, 우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思考와 물질적 豐饒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문명의 역기능으로 인해, 점차 精神文化 특히 우리의 도덕이 해이해진 채, 이기적 個人主義, 非人間化, 가치관의 혼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葛藤을 겪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왜 이렇게 道德이 타락되고 不道德한 사회가 되었는가를 개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꾸어 말하면 父母에 대한 효심이 결여된 不孝子息과 버릇없는 無禮한 인간이 횡행하고 있다. 이것은 人間의 근본인 윤리적 危機를 경고하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서로 믿지 않음으로 흉악한 犯罪가 날뛰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지 못하는 不義와 부정부패가 음으로 양으로 창궐하니, 社會道德이 땅에 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人間의 참다운 가치는 무엇이며, 문란해진 道德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反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도덕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행하는 道理를 말한다.

孟子는 “도덕이 없는 사회는 이미 人間社會가 아니라 짐승의 사회”라고 하였다. 그것은 모두가 서로의 利益 추구에 혈안이 되어, 곧 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끊이지 않는 弱肉強食의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本能的 욕구만이 뒤엉킨 不道德한 사회에서는, 결코 인간이 지닌 고귀한 價値나 이상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難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健康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道德性을 회복하는 일이 時急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한 늙은 學者가 20세기의 격변하는 사회를 살고 마무리함에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이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儒敎思想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유교는 중국에서 창시된 中國 고유의 사상체계이며, 孔子(BC. 551~479)로부터 시작하여 맹자(BC.390~305)에 이르러 그 기틀이 잡혔다.

이들의 전통윤리는 德目主義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됨을 중시하여 사람이 지녀야 할 品性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이들을 지키는 것이 道德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現代人으로서의 올바른 人格을 갖추기 위해서도, 또한 민족의 自尊心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의 道德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

도덕은 社會制度와 더불어 약간씩 변화하는 것이지만, 道德性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孝·禮·信·義의 덕목이 현대의 產業社會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規範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1. 孝

孔子는 가정의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생각하였으며, 짐승과 다른 人間의 면모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보고, 家族을 중요시하였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父母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여기에 孝라는 사상이 성립된다. 즉 子女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美德의 원천인 것이다.

조선사회에 있어서는 집이 혈연관계가 있는 家族만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 집이 각각 독립하여 社會組織의 기본단위가 되었다. 즉 집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家族主義이다.

여기서 가족(family)이라는 것은 경제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夫婦·부자와 그들을 둘러싼

가까운 血緣을 중심으로 한 집단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가족집단의 장인 家長은 호적제도나 그 밖의 公的 관계에 있어서는 戶主라고 불리우며, 家族共同體의 지휘 통솔자이다. 그리하여 가족집단의 질서는 家父長制的인 권위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가족은 家長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家產을 처분하거나, 또는 그의 동의 없이 家產의 부담이 될 契約을 맺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家長은 가족내에서 世代와 연령이 가장 높은 男子가 되는 것이 상례여서, 적은 단위의 家族에 있어서는 父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大家族인 경우에는 祖父나 큰아버지·三寸 또는 형이 되는 수도 있다. 그것은 세대나 연령이 최고인 男子가 경험·지식·수완에 있어서 가장 기대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家長이 가족집단 내에서 웃어른이고 최고연령자인 동시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수완이 있다는 것은, 家長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다.

家族 내에 있어서의 家長과 다른 가족과의 관계는, 父子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儒敎의 윤리인 孝가 근간이 된다. 즉 孝思想은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 준 父母와 그 조상을 숭배하고 존중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상하와 長幼의 질서가 존중된다. 그리고 祖上 뿐만 아니라 子孫들도 중요시하는 심정이 같이 움직인다. 따라서 효도는 사회의 기본적인 德目으로, 모범적인 孝子は 국가적인 포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家父長制的인 권위와 家長의 지배권은 성문화되지 않은 정통적인 規範에 의해서 행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제상으로도 규제가 마련되어 不孝는 국가에 대한 反逆과 더불어 최대의 죄악으로 여겨졌다. 특히 兩班의 가족 내에 있어서는 家訓같은 것을 마련하여 家族 공동의 실천적인 규범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다.

이리하여 가부장제적인 家族을 중심으로 하는 道德이 형성되어 왔다. 즉 가족 구성원

간의 人倫關係를 규정하는 도덕이 道德의 전제이고, 이 도덕은 孝라는 것에 의하여 頂點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도덕에서 집(家)을 중요시하고 있는 원인은 國家의 흥망에 관계없이 家가 존속되었다는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家族이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를 구성한다. 더욱이 같은 祖上을 모시고 있다, 같은 族譜속의 일원이라는 同姓同本은, 생각이나 행동방식이 個人을 기초로 하는 西洋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家族이 단위이다. 가족이 개인의 생활을 지배하고, 社會 속에서의 그 위치를 결정해 주었다. 그는 家族을 의지해서 살고 그의 도움을 받는 대신, 가족에게 忠誠을 다하고 가족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體制 밑에서 살아왔다. 家族은 심리적인 하나의 共同體라는 인식 이상으로 권위를 가지고 子孫의 교육에서부터 모든 후생·생활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의 중심은 父母이며, 부모를 잘 섬기는 倫理가 효이다. 사람은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 世上에 태어난다. 태어나서 自覺을 지니게 되는 무렵이면 自己에게 이미 아버지·어머니가 계시고, 위로 祖父母·증조부모 등 많은 祖上이 계시며, 옆으로는 兄弟·자매·고모·이모·四寸 등 수많은 親戚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存在하게끔 해 주신 부모에게 감사의 情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를 起點으로 해서 장래 이어져 갈 아들·딸·孫子·손녀에 대해 자기 自身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遺芳萬世란 말이 있듯이, 꽃다운 이름을 後世에 길이 남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歷史의 존재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역사적인 存在의 삶을 받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역사적인 使命感을 기리게 된다.

孝思想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존재라는 인

간의 特殊性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났다. 따라서 사람이 人間으로서의 天倫을 지키기 위하여, 父母는 자녀에게 인자하고, 子女는 부모를 존경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이란 젊어서 어버이에게 孝道하지만, 늙어서는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게 된다.

孔子는 “효는 덕의 근본이며, 모든 가르침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孝는 모든 행실의 근원으로 우리의 조상들은 孝誠 여하로 인간의 됄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孝道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 儒敎에서는 효도의 내용으로 奉養·경애·事親·양지·保身을 들고 있다.¹⁾ 禮記에 의하면 “孝子は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耳目을 즐겁게 하고, 그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고, 좋은 음식으로 奉養하는 것이다. 孝子の 몸이 끝날 때까지 이를 행한다. 몸이 끝날 때까지라는 것은 父母의 몸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그의 몸이 끝날 때까지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父母의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드려 衣食住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봉양하는 것이 孝道하는 길의 하나이다.

둘째는 敬愛인데, 예기에서 “父母를 공경하여야 한다. 犬馬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라고 말하였다. 또 論語에서도 “요즈음 奉養함을 일러 효도라 하나, 犬馬도 사람에게서 길러지나니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으면 개나 말과 무슨 다름에 있겠느냐”하여, 孔子는 효도로써 봉양을 역설하면서도 恭敬을 강조하였다. 그 까닭은 어버이를 봉양하는 일은 禽獸도 하는 일이므로, 사람으로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精神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孟子가 “지극한 것은 어버이를 恭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했듯이, 유교도덕에서는 孝行의

1) 金得滉, 韓國古代道德의 研究, 1978, p.98

길은 물질적인 奉養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끝없는 尊敬과 봉양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事親은 부모의 좌우에서 잘 섬기고 順從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효도하는 하나의 길이다. 사친의 도에 있어서 父子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으로, 부모의 賢愚善惡을 가리지 않는다. 옛날 중국의 唐나라에서 타인을 毆打 상해하였을 때 1년의 徒刑(노역)에 처하는 것을, 父祖에 대하여 구타 傷害를 가하였을 때에는 斬刑(참살)에 처하고, 伯叔에 대하여 구타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絞首刑에 처했음을 보아도, 父子關係는 절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事親의 도덕은 원래 우리 古代社會에서도 힘써 행하던 것이 儒敎道德의 영향을 받으면서, 事親의 도덕은 더욱 굳어져 갔다.

넷째는 養志이며, 부모의 마음을 平安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論語에서 “부모는 오직 子女의 병을 근심하느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子女의 몸이 약하여 父母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分身인 아들·딸이 건강하면 父母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도 孝道의 하나이다. 子女가 기쁨의 얼굴로 부모를 대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을 和平케 하는 것이니, 효도의 하나이다. 이렇게 孔子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을 孝道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子女의 신체가 약하다든지 그 身上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에 不孝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마음을 平安케 하는 것이 孝道의 하나라고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는 保身인데, 孝經에서는 보신을 효도의 시초로 하고 있다. 즉 우리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부모에게서 받은 貴重한 몸을 잘 보전해서 傷處를 입히거나 흉터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孝道의 기본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身體髮膚를 소중히 가지어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孝行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孝道는 부모를 음식으로 잘 奉養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모를 잘 敬愛하고, 부모의 마음을 安樂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비록 좋은 옷, 맛난 음식으로 호강을 누리게 해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父母의 뜻을 잘 받들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인 것이다.

부모에 대한 孝誠이 제3자의 부모에게 영향되고, 더 나아가 모든 父母 및 어른으로 확대되면, 곧 이것이 敬長思想이 된다. 이는 人間의 존엄성을 근본으로 하는 人間愛와 상통되므로, 효는 현대에도 계승되어야 할 도덕적 精神으로 보아야 한다.

2. 禮

예는 禮儀를 뜻하며,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깎듯하게 行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衝突없이 삶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禮節을 지키면서 원만한 人間關係를 맺어야 한다. 옛날에는 한국을 동쪽에 있는 禮儀之國이라고 하였다.

孔子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으로서 孝와 더불어 예를 강조하였다. 日常生活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表情을 부드럽게 하며, 말씨를 곱게 하는 데서 禮儀는 시작된다. 그리하여 보고 듣고 말하는 바가 모두 禮에 어긋남이 없을 때에 비로서 예의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의에는 禮節과 예식이 내포된다. 이 중 1대1로 흔히 일어나는 것을 예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일상 어떠한 行動樣式이 기대되는가를 표시한다. 따라서 예절의 근저에는 남을 尊敬하고 자기를 낮추는 謙遜이 있어야 한다. 특히 大衆의 앞에 서는 입장에 있는 자는 철두철미하게 겸손한 姿勢를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 한치의 驕慢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五倫은 인간이 지켜야 할 다섯가지의 倫理인데, 父子·부부·형제·長幼·군신의 관계를 망라한 것이다. 즉 아버지는 사랑 아들은 존경으로, 男便은 착한 마음 부인은 경칭하는 심정으로, 兄은 점잖게 동생은 경애하는 마음으로, 나이든 어른은 생각깊이 어린 사람은 敬意로, 治者는 자비 臣民은 충성으로 서로 禮節을 지켜야 한다. 五倫 중의 셋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예절이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교는 家族主義를 강조하는 것이다.

人倫이나 사회질서 그리고 국가의 紀綱이 바로 서는 것도 禮節이 제대로 행해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父母와 자식 사이에서나, 선생과 學生 사이에서 기본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禮節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無禮한 행동 때문이다.

예의 중에서 좀 이색적으로 연출되는 의식을 禮式이라고 하며, 인간사회의 理想을 눈에 보이게 강력히 표현하는 것이다. 종래 儒敎社會에서 힘써 행하던 전통예식은 너무 번잡하고 非效率的이었다. 그러면 오늘날의 産業社會(이익사회)에 있어서 예식은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국인의 생활의 식으로서의 冠·婚·喪·祭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²⁾

먼저 관례에 해당하는 成人式이 현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절차는 유교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住民登錄證을 교부받게 되는 날을 중심으로 하거나, 또는 20세가 되는 남녀의 生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때에 冠禮者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집에 초빙하고 茶菓會와 같은 정도의 가벼운 儀式을 베풀어서 성인이 됨을 축하하고,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같은 意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結婚式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좀 더 차분한 節次가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예

컨대 공개적인 禮式場에서 가까운 친척과 친구를 모시고 간소하나마 엄숙한 결혼식을 올리고, 食事を 같이하는 정도가 좋을 것이다.

다음에는 상례에 해당하는 葬禮式이 문제된다. 종교적인 主見이 없는 집안에서는 지금도 대부분 유교적 방식의 葬禮節次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교적 방식은 오늘날의 社會構造에 맞지 않는 번거로운 절차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장례식 자체를 간소화하면서도 엄숙한 禮의 질서에 따라 주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敎會 또는 사원과 적절히 연결하여 進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祭禮의 문제 또한 산업사회에서 뿔뿔히 흩어진 家族狀況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봄의 淸明日에 가족이 山所에서 같이 祭禮를 올리고, 또 가을의 秋夕에 산소에서 제례를 가족끼리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우기 忌祭는 집에서 가족의 형편에 따라 올리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이므로, 그 內容을 살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유교사회에서의 禮는 원래 엄격하였다. 한치의 어긋남이 있어서도 안되었다. 그렇게 엄격했기 때문에 오늘날 禮儀가 실존된 사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익사회에서는 嚴格性속에 조화가 깃들지 않으면 梗塞되어 본래의 의도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예의에서 調和를 귀중하게 여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秩序 있고 절도 있고 규격 바르게 이어져 가는 禮에서, 조화란 윤희유와 같은 구실을 한다.

3. 信

고구려는 小獸林王 2년(372년)에 울령을 반포하고, 고등교육기관인 太學을 설치하여 忠·孝·信·義·勇 등의 덕목을 가르쳤다.

이 중 信은 믿어 의심하지 않는 行爲를 뜻한다. 孔子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수레에

2) 黃俊淵, 한국사상의 이해, 1995, p.275

명에걸이나 바위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³⁾ 수레에 명에걸이가 없으면 앞으로 굴러갈 수 없듯이, 사람에게 信用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이 믿어 주지 않는다면, 그 행동 그의 말을 거짓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사람과 사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친구 사이에서 信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설 수 없게 된다. 신용은 千萬金의 돈보다 더 보배스러우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無形의 재산이다. 그래서 신용이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親友가 구름처럼 모여든다고 한다.

더욱이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指導者에게는 믿음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이리하여 믿음은 옛날뿐만 아니라, 現代의 공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야 성실한 行動이 뒤따르게 된다. 즉 言行一致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에는 반드시 믿음성이 있어야 하고, 行動은 반드시 果斷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윤리는 동료·친우 및 人間社會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서로 믿음이 있는 사회가 곧 흉악한 犯罪가 없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正直과 성실이다. 첫째로 정직은 거짓이 없음을 뜻하며, 부모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父母나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정직을 德으로 강조했다는 예가 드물다. 정직은 信賴를 기조로 하는 人間關係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졌었다.

우리는 마치 不正直의 표본처럼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信用을 잃고 있는 일이 있다. 事業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利害關係를 위해서도 전직이 필요한 것인데, 그들이 正直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中國人의 전직은 주로 商去來에서 온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본인의 信賴性은 대내적인 것이다.

둘째로 믿음은 남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誠實할 때에 생겨날 수 있다. 유교의 五倫에서도 벗끼리는 서로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벗과의 友情은 이러한 성실한 행동에서 싹튼다고 하였다. 벗과의 관계뿐 아니라, 父母와 자식, 어른과 아이, 남편과 아내 등 어떤 人間關係에서도 믿음과 情이 없다면 아무것도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才幹 좋고 근면하면서도 여러 면에 있어서 뒤지고 있는 이유는, 構成員들의 생활과 생각이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공통된 공감대가 없고 道德적인 밑받침이 약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共感帶를 구축하는 人間啓發이 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렵다.

가진 자와 안가진 자, 즉 勞使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共感帶를 구축하기 위해

3) 崔根德, 儒學講義, 1995, p.178

서는, 정직과 信賴性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여기서 한가지 留意할 것은, 아무리 믿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義롭지 못한 일에 관해서는 믿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惡事를 행할 약속을 했다면 이것은 벌써 義롭지 못한 일이므로, 믿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믿음 도덕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특히 社會組織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父子·부부·형제간의 도덕적 관계가 한 집안의 것임에 대하여, 믿음은 사회적 국가적 世界的인 것이다. 더욱이 孝나 예도 이 믿음의 힘에 의하여 비로서 光彩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4. 義

의는 옳은 길, 즉 正義를 뜻하며, 不義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강인하고도 깨끗한 마음이다.

우리 겨레는 옛부터 벼를 사괘에 있어서 의를 중요시하였다. 즉 봉우유신과 朋友之義를 중요시하였는데, 義를 저버린 사람은 道德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은 사회의 귀감으로 칭송하였고, 반면에 義롭지 못한 사람은 사회의 질서를 해친다고 하여 경계하였다.

義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信念을 지켜나가는 志操이고 절개이다. 따라서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勇氣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正義를 지키는 일이 그저 옳다고 하는 생각만으로는 실천이 없으며, 따라서 信念과 더불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부정부패나

不義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나서서 行動도 하지 않는다. 生活을 위해, 지위를 위해 모든 굴욕을 죽은듯이 참는다. 이들은 勇氣없는 짓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이 정의는 대우의 平等을 뜻한다.⁴⁾ 아버지가 자식중 어떤 자식을 편애하거나 法官이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는 무거운 벌을, 그리고 다른 자에게는 가벼운 벌을 주면 그것은 正義롭지 못하다. 반대로 동일하지 않는 범행에 대하여 不平等한 대우는 不義로 보지 않는다.

正義의 개념은 가정이나 法廷에서 뿐만 아니라, 人間關係 전반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인간을 奴隸로 다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不義이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의 農業社會에서 노예노동이 없었다면 기근상태를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다수의 人民이 노예노동에 종사하고, 少數가 한가한 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은 분명히 不義이다. 그러나 그런 奴隸의 희생으로 고대사회에 文化가 꽃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노예제는 歷史적으로 보면, 잘못된 제도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제도는 사람을 差別待遇한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

人間社會에서는 이해관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正義의 원리가 이용된다. 그렇다고 정의를 너무 平等성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정의의 개념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즉 부지런히 일한 사람과 게으름을 피운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균일한 賃金を 지불하는 것은 正義가 아니다. 평등에도 그럴만한 理由가 있어야 하

4) 姜在倫, 思考와 行動, 1993, p.279

고, 不平等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利益의 추구를 바탕으로 한 契約이 중요시되고 있다. 계약이란 하나의 약속이다. 古今東西를 막론하고 “約束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상의 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 중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적지않다. 약속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道德은 문란해지고 義理없는 사회는 결국 혼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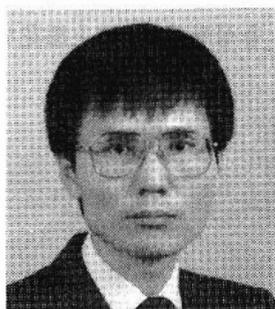
약속을 지키는 基底에는 결국 온당한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社會正義의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 사회정의의 속성으로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정당하게 따질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모든 機會의 균등한 개방, 功績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富의 배분, 경제질서를 포함한 모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응분의 규탄과 제재, 基本人權의 존중 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市民倫理의 확립에 있어서 社會正義의 실현만큼 필수불가결한 것은 없다.

孔子께서는 義를 모든 일의 바탕·뿌리·줄기 그리고 標準이 된다고 하였다. 즉 禮는 의를 실천하는 절차이고, 말은 義를 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信은 의를 성취시키는 덕목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現代의 젊은이들도, 위에서 지적한 孝·禮·信·義의 도덕을 지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착하고 바른 삶을 스스로 實踐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래야 道德은 그 사회를 유지하고 安定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의 기반 위에서 科學과 산업이 발전하여 經濟가 융성한다면 錦上添花일 것이다.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林秀喆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작곡과 졸업
- 제1회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신인 음악평론 공모 입상
- 제5회 속초시민문화상 수상(학술부문)
- 국악 유공자 표창(문화부 장관상)
- 속초시립합창단 지휘자
- 한국작곡가회 회원,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회원
- 속초고등학교 음악교사

I. 살이 안찌는 이유

169cm, 52kg...

공개하기가 좀 쑥스러운 필자의 현재 신체 사이즈다. 젊은 여성도 이 정도 사이즈면 가냘픈 체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불혹지년(不惑之年)을 코앞에 둔 중년 남자의 키와 몸무게가 이 정도이니 필자와 같은 체격을 가리켜 피골상접(皮骨相接)이라고 하는가 보다.

신체 사이즈가 이렇다 보니 기성복점에 가면 맞는 옷이 없다. 마른것도 문제지만 골격 자체도 표준형이 아니어서 예컨대, 키에 비해 하체는 길고 팔은 짧고, 손은 길고, 목은 가늘고... 와이셔츠까지도 맞춤복이 아니면 안된다.

주위 사람들은 필자가 체질적으로 살이 안찐다고들 한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필자가 원래부터 이렇게 마른 체격이 아니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겠지만, 필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은 상(賞)은 생후 23개월 되던 1959년 5월 5일에 받은 우량아 상이었다.

우량아 출신답게 필자는 20대 초반까지는 아주 신체충실지수가 좋았다.(고1때 신체 사이즈가 165cm에 60kg...)

필자가 현재와 같이 날씬한(?) 체격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대 중반부터였다. 내과적(內科的)으로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공무원 정기 신체검사

를 받아봐도 모든게 ‘정상’이란다)

그러나, 필자 나름대로 진단하기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새로운 음식문화 및 콘크리트 주거환경에 대한 부적응

주지하다시피, 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정말 말이 아니었다. 30대 후반 이전 세대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시절은 쌀밥 한 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였다.

필자는 부친의 병환으로 가세가 기울어져 더욱 혹독한 가난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필자가 갑부집 아들처럼 우렁아였던 이유는 신토불이 자연산 건강식품만 먹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다.(비록, 양적으로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지만)

1년에 서너번 먹어볼까 말까 했던 계란.... 그러나, 그 당시의 계란 한 개는 요즈음의 계란 100개와 맞먹는 고단위 영양의 계란이었다. 지렁이, 벌레, 그 밖의 각종 모이들을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란 토종닭이 낳은 자연산 계란이었기 때문이다.

각종 과일, 곡식, 육류, 어류 등 당시의 모든 것이 그랬다. 한결같이 자연산 토종 건강식품들이었다.

당시, 필자의 모친께서는 시골로 행상(行商)을 다니셨는데, 물건값 대신 이러한 먹을거리들을 받아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진짜 토종개고기를 받아오실 때도 있었다. 덕분에, 필자를 비롯하여 형제들은 먹는 것 하나만큼은 당시 수준으로는 그리 빠지지 않았다.

거기에 신선한 공기와 물, 푸른 동해의 대기와 설악산의 정기, 구수한 흙.... 어찌 살이 찌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 좋아하던 사과도 제대로 못 먹는다. 어릴적에 먹던 국광, 홍옥이 아니기 때문이다. 훨씬 고급 사과라고 하는

후지(부사)는 들척지근해서 영 비위에 안맞는다.

건빵도 옛맛이 아니다.

찜빵도 그렇다.

계란은 말할 것도 없고, 양식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김 또한 너무 맛이 없다.

그런데도 남들은 살만 잘 찌는 걸 보면 유독 필자만 새로운 음식문화와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주거환경도 필자를 괴롭히고 있다.

아무튼, 언제부터인가 필자는 뭘 먹어도 맛이 없으니 소화도 잘 안되곤 하는데, 그러니 살이 찌지 않겠는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주식(主食)마저도 변하게 되면 어찌나 하는 것이다. 쌀이나 김치대신 햄버거나 샐러드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나마 밥과 김치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도 혹시 예전처럼 살이 찌게 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병적으로 찌는 군살일 것이다.

II. 음악적 순결을 앗아간 방송매체

모(某)대학 모교수 왈, 요즈음 대학가에는 숫총각이 원시동물이라 하고, 숫처녀를 희귀동물이라고 하는 패설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즐거운 사라’라는 요상한 소설을 써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마(馬) 모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패설이 결코 낭설만은 아닌 듯 싶다.

그런데, 요즈음 초등학교에서는 동요를 부르는 남자 어린이는 원시동물이라 하고, 여자 어린이는 희귀동물이라 한다고 한다.

이 역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인걸

어쩌라.

음악적 의식이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분이 라면 통감하고 있듯이 필자가 서두에서 유감스럽게 늘어놓은 음식문화와 주거환경의 변화와는 감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의 음악 문화와 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변했다.

아주 오랜 옛날도 아니다. 필자 세대만 해도 참으로 많은 동요를 듣고 부르면서 자랐다. 더욱이, 토속적인 구전(口傳)동요도 빼놓을 수 없는 애창곡이었다. 필자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곡 수만 해도 50곡이 넘는다.

그런데, 이러한 구전동요를 비롯하여 교과서용 창작동요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라디오와 TV가 보급되면서 부터였는데, 특히 TV의 보급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우리 속초지역의 경우, TV가 들어온 것은 1971년도였다.

이때부터 어린이들에게 동요가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구 좁은 줄 모르고 번성하던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당시, KBS에 '꿈나무'라는 연속극이 인기리에 반영되었는데, 이 연속극 주제를 모르는 어린이는 완전히 촌뜨기 취급을 받았다.

72년도인지 73년도인지에는 '여로'라는 연속극이 또 대중들의 알팍한 심금을 울리는 바람에 이 연속극 주제가 또한 당시 어린이들의 음악적 동심에 먹물을 뿌렸다.

연말이면 전국노래자랑을 비롯하여 10대(大) 가수 청백전인지 뭔지 하는 프로가 방영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프로를 통해 당시의 인기 가수 남진의 노래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천박하고 불량스러워 보일수가 없었다. 그러나, 청중석의 젊은 여성팬들은 좋아서 온통 난리들이었다. 요즈음의 오빠 부대들에 비하면 참으로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음악프로 역시 당시 어린이들의 음악적 동심을 빼앗아갔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잠자리 꿈꿨'이나 '엄마가 섬 그늘에'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한 유치한 노래 대신 '저 푸른 초원위에'나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등의 어른들 노래를 불렀다. 가수들의 표정과 몸짓까지 흉내내면서...

하지만, 이런 대중가요는 그래도 요즈음의 대중가요에 비하면 토종적(土種的)인 데가 있었다. 가령, 나훈아의 노래는 민요적 꾸밈음이 많이 가미된, 한국 고전풍의 노래였다. ('물레방아 도는데', '후회' 등...)

나훈아의 맞수 남진의 노래도 그리 막돼먹은 노래는 아니었다.

어린이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음악적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것은 TV가 칼라화(化) 되고 부터였는데, 라디오는 청소년 대상의 팝음악 프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III.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황송하게도, 필자는 주위 분들에게 꽤 머리가 좋은 수재라는 평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아마, 필자만큼 머리의 순발력이 둔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필자는 4~5세가 되도록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렸던 늦된 아이였다.

그래서 모친께 매도 참 많이 맞았다. 모친께서는 필자가 아무래도 저능아가 아닌가 해서 무척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우량아 선발대회에서는 간단한 지능검사도 한다고 함. 다행히, 필자는 언어감각발달은 정상이어서 점수에 지장이 없었다고 함)

그런데, 조물주께서는 인간을 정말 공평하게 만든 것 같다. 머리의 순발력이 둔한 필자에게 대신 뛰어난 기억파지력(把持力)을 주셨으니 말이다.

조금도 과장을 안 보태서 필자의 기억파지력은 보통 사람의 2~3배가량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한번 기억한 것은 거의 잊

는 법이 없다. 이것이 주위분들에게 필자가 머리가 좋은 수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아무튼, 덕분에 필자는 글을 쓸 때 기억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필자의 줄저(拙著) “O·K 國樂”도 과거의 음악적 기억을 밑천으로 해서 쓴 책이다.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필자가 어린시절에 부르고 불리어졌던 구전동요도 바로 필자의 뛰어난 기억과 지력 덕분에 정리 채보(採譜)할 수 있었던 곡들이다.

곡 소개에 앞서 몇가지 단서를 붙인다.

첫째, 지면 관계상 우리 속초지역(양양도 포함)에서 불리어졌던 동요에 국한한다.

둘째, 연대적 범위는 1965년에서 1969년 무렵으로 한다.

셋째, 본지가 음악 전문지가 아니므로 악본 수록은 생략한다.

넷째, 역시 지면 관계상 토속적인 구전동요에 국한한다.

다섯째, 노랫말이 너무 저속한 것은 ×표로 표기한다.

(1) 1965년도 무렵의 노래들(양양지역)

필자가 부친의 직장관계로 경남 진해(鎭海)에서 만 8년간을 살다가 속초로 이사온 것은 9세때인 1965년 여름이었다. 그런데, 집안사정 때문에 속초로 오기 전에 먼저 양양 임천리에서 약 1개월을 살았다. 그 바람에 양양지역에서 불리어졌던 동요 몇 곡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먼저 소개한다.

〈낙산사의 ×놈들은〉

… 사회 풍자적인 노래

낙산사의 ×놈들은 살코기만 잘 쳐먹더라!
(후렴) 드라이스롬배, 왕롬배!

〈곰아 곰아〉

… 당시 필자의 별명이 곰이었다. 그래서 이 노래로 많은 놀림을 받았다.

곰아 곰아 양곰아'
양지쪽에 앉아서
××이나 박박 긁어라!

〈방구 방구 나온다〉

… 먹고 살기 어렵던 그 시절의 분위기가 은유적으로 잘 표현된 노래

방구 방구 나온다
접시 갖다 받쳐라
먹을 것은 없지만
냄새나 맡아라!

〈엄마 엄마 뒷집에〉

… 우량아 출신이었던 필자는 곰이라는 별명 외에 돼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 이 노래로 아이들에게 꽤나 많은 놀림을 받았다. 속초에 이사오니 속초에서도 이 노래가 불리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양것과는 가사와 가락이 약간 달랐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뒷집에 돼지 ×× 삶았다
좀 주더나?
좀 주드오
맛 있더나?
맛 있드오, 콜내(구린내) 썰내(지린내) 나드오.

(2) 1965년도 무렵의 노래들(속초지역)

필자가 속초에 이사와서 처음 살았던 동네는 현재 속초도서관 뒷편의 금호동이었다. 루핑 지붕의 방 네 개, 부엌 네 개짜리 집이었는데, 그 중의 방 하나가 바로 우리 식구들의 보금자리였다. 이런 식으로 주인집 식구를 포

함 모두 네 세대 27명의 식구가 벌떼처럼 함께 살았다.

지금도 이 집은 지붕만 기와로 바뀐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30년전의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이 집에서 1년을 살고서 이듬해인 1966년에 청학동으로 이사를 갔다.(역시 단칸 셋집)

〈술 떼우세 냄비 떼우세〉

… 물자가 귀하던 당시에는 술이나 냄비가 낡아서 구멍이 생기면 납땀을 해서 썼는데, 땀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땀장이라고 불렀다.

술 떼우세, 냄비 떼우세!
지나가는 나그네 ×× 떼우세!

〈우리 엄마가〉

… 가위 바위 보를 할때 꼭 이기기를 염원하면서 부르던 노래. 같은 셋방에 살았던 신덕순(본명보다는 ‘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음)의 애창곡.

우리 엄마가 장독 뒤에서
가르쳐 주는데 요거 안내면
때려 준대요.(혹은, 죽인대요)

〈옛장수 ××은〉

… 당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던 군것질거리인 옛이었다. 그래서 옛장수와 관련된 노래도 많았다.

이 노래는 옛장수 아저씨를 놀려주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

꽤나 심통긋았던 필자가 이 노래로 옛장수 아저씨를 놀려주다가 아주 호되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다.

옛장수 ×구멍은 찢득, 찢득!

(3) 1966년~1969년도 무렵의 노래들(속초 지역)

이 무렵 필자의 식구는 동명동, 금호동(연풍사 부근), 교동 등 세 개의 행정구역을 오가면서 모두 네 번 이사를 다녔다. 철딱서니라곤 하나도 없던 필자는 이사하는 게 마냥 신나고 즐겁기만 했다.

〈잠자리 꿈꿈〉

… 잠자리를 잡을 때 잠자리가 잡힐 때까지 날아가지 말고 앉은 자리에 그대로 있어 주기를 염원하면서 부르던 노래.

당시 영랑호는 잠자리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잠자리의 대표적인 서식지였다. 지금은 호수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물 위를 날아다니는 왕잠자리를 볼 수 없다.

잠자리 꿈꿈, 멀리 가면 죽는다!

〈알(아들) 낳라, 딸 낳라!〉

… 잠자리를 잡은 후 잠자리의 양날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서 부르던 노래

알 낳라, 딸 낳라!(계속 반복)

〈아침 먹고 땡〉

… 해골 그림을 그릴 때 박자에 맞추어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 필자의 옆작이었던 한명수의 애창곡이었음.

아침 먹고 땡,(왼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서 ‘땡’ 할때 동그라미 가운데를 관통하는 빗금을 그린다. 해골의 왼쪽 눈이 됨)

점심 먹고 땡!(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다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해골의 오른쪽 눈이 됨)

교회 갔더니(이미 그린 동그라미, 즉 해골

양눈 밑에 직사각형을 그리면서... 해골의
입이 됨)

땡, 땡, 땡!(‘땡’ 하나에 직선을 하나씩 직사
각형 안에 그려 넣는다. 모두 세 개... 해골
의 이(齒)가 됨)

이만한 보자기를 덮었더니(해골의 머리 모
양을 그리면서)

해골이 됐대요!(해골의 턱을 그리면서)

〈앞에 가는 도둑놈〉

... 친구가 걸음이 빨라 앞서갈 때 좀 천천
히 가라고 부르는 야유조의 노래

앞에 가는 도둑놈

뒤에 가는 순경

〈감자야〉

... 가위 바위 보 놀이 때 부르던 노래. 가
락에 맞추어 바위→가위→보→바위 순으로
내는데, 만약 순서를 틀리게 내면 벌칙을 받
게 된다.

감자야(‘보’를 낸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볼
때 호격(呼格)조사인 ‘야’가 처소격(處所格)
조사인 ‘에’가 되어야 옳을 것 같다. 문법에
서툰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라서 ‘에’가 ‘야’로
와전된 것 같다)

씩이 났다(‘가위’를 낸다)

있이 났다(‘보’를 낸다)

묵!(‘바위’를 낸다. 이런 식으로 틀린 사람
이 나올 때까지 계속 되풀이 한다)

〈순이 아버지〉

... 주로 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던 노
래인데, 지금도 가사의 정확한 의미가 잘 파
악이 안되는 노래.

순이 아버지

담배꽂초에

불치 붙어서
응아차차, 응아차차!
아들 낳대요.

〈팔자 좋은 아이들은〉

... 교통 개척민 아이들층에서 많이 불리어
졌던 노래.

팔자 좋은 아이들은

엄마 손 잡고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갈 곳도 많아요

〈예배당에 갔더니〉

... 풍자성이 강한 노래로 교과서용 동요
‘다알리아’의 가락을 변주시켜 만든 노래.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 까진 목사가

눈을 감으라 하더니

신발 한 짝 감춤탰

〈야로 야로 엇싸야로!〉

... 오징어와 관련된 노래. 후렴구가 일본어
풍으로 된 다소 저속한 노래. 부르는 아이에
따라 가사와 가락이 조금씩 다름.

야로야로 엇싸야로!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남발이(어군(魚群)을 따라 남쪽으로 가서
조업하는 것) 갔다 이제 온다

얼마 벌었니?

△△원 벌었다.

〈덤빌려면 덤벼〉

... 싸우기 직전에 상대방의 약을 울림과
동시에 기를 좀 꺾기 위해 부르던 노래.

덤빌려면 덤벼

뺨스 벗고 덤벼!

IV. 애들아, 노을자!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다.

네살박이 개구장이 조카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제 또래 애들을 발견하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대는 것이었다.

“애들아, 노을자!”

필자가 어렸을 때의 그 가락과 똑같은 가락이었다.

정말 신선한 음악적 충격이었다. 그 극성스러운 양악(洋樂)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몸속에는 국악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어린 조카의 그 외침(가락)은 ‘우리들에게 음악적 모유(母乳)를 달라!’는 절규로 들렸다.

그때 필자는 잃어버린 노래들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다. 더이상 필자의 아집스러운 기억속에만 외롭게 가두어 놓아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만간, 음악 학술지를 통해 잃어버린 그 시절의 노래들을 모두 복원시킬 작정이다.

본고가 거의 마무리 될 무렵, 조카 녀석이 또 한번의 음악적 충격을 던져 주었다.

TV를 보다가 품행이 좀 단정치 못한 여자가 나오자

“얼레꼴라리, 얼레꼴라리...”

하고 놀려대었는데, 그 가락이 그 시절 그 가락과 영락없는 메나리조(調) 가락이었다.

職業意識과 個人意識의 分化



白 雲 化
前 教 職 者

요즈음 우리 校洞 住宅街에는 建築붐이 한창이다. 나날이 變貌해 가는 동네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다. 都市美觀에도 一助가 되어 반가운 일이다.

한편 이 新築場을 지나노라면 아낙내들이 부지런히 飮食을 나르는 모습을 가끔 본다. 아마도 그것은 勞務者들이 注文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고 慣例上 집 주인이 工事場에서 手苦하는 人夫들을 特接하는 것 같다. 한여름엔 큰 苦役을 치르기도 한다. 애초 建物主와 請負業者間 一定契約으로 施工한다지만 그래도 所有者 立場에선 堅固한 建물이 되기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負擔스런 일이지만 美德으로 삼고 온갖 精誠을 다 한다. 條件에 따라서는 狀況變動이 있긴 하지만 내 집이 人情의 交感속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希望을 걸게 된다.

얼마전 우리집 옆에 四層建物이 세워졌다. 竣工된 지 얼마 안가 瑕疵補修로 법석을 떠는 것을 보고 이 고장 工事水準이 고작 이런 정도인가 하고 한심한 느낌이 들었다. 個人意識에 捕虜가 된 狀態에서는 誠實性을 期待하기란 넌센스인지도 모른다.

런던의 '聖 바울'이라는 큰 聖堂을 지을 때, 建築家 그리스토 퍼렌은 石工들에게 이런 質問을 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한 石工이 對答하기를 ‘그저 돌을 다듬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또 한 사람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토 퍼렌과 같이 훌륭한 이 바울 聖堂을 짓고 있다’고 對答했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質問을 했지만 對答은 각기 달랐다. 하기가 마음 먹기에 다라 自己職業을 高貴하고, 聖스럽고 所重하게 여겨서 專念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일을 한다면 卑賤해질 수도 있다.

現職에 있을 때의 일이다.

外廓整理를 위해 一部分(石築)은 都給을 주어 施工토록 했다. 管理者로서 그냥 있기가 미안해 作業現場에 나가 위로의 말과 함께 완벽한 施工을 당부했다. 그순간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술”이 나와야 잘 쌓여진다면 反應을 기다린다. 얼핏 생각에 하루의 正當한 賃金を 받으면서도 무엇이 부족해 또 다른 附帶條件을 챙기려 드는가 하고 생각되었지만 기꺼이 應해 주었다. 技術者가 술이 나와야 열심히 한다는 것은 職業意識과 個人意識간의 衝突이요, 混沌이다.

좀 다른 側面도 있지만 두 意識의 分化現象을 보았다. 오키나와 美海兵隊로부터 對民支授事業을 맡은 바 있다. 우리식 생각으로 受惠者이기에 感謝하는 마음에서 或 무슨 不便은 없을까 하고 亦是 作業現場에 나가 한참동안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도 우저 네 대가 두 대씩 한 조가 되어 삼날을 일직선에 놓고 흙을 밀으니, 삼시간에 큰 봉우리가 平地로 변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마치 監視者마냥 誤認되어 펍 난처했었다. 저녁 때가 다되어 일손을 멈추고 내려와 食事라도 할 것을 勸諭했으나 辭絶하고 계속 作業에만 열중했다. 約束時間이 다 되어도 소식이 없더니 시장기가 들었는지 그제서야 우리의 提議를 받아 들였다. 잠시 休息을 취하다 또 作業을 계속 하더니 어느새 徹收해 버렸다. 殘餘分은 우리 軍의 支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營內에서 盜難事故(기름 유출)가 發生하여 북새통에 蹉跌이 생겼던 모양이다. 비록 軍人身分이지만 낯설은 異國땅에 와서 對民支授한

답시고 民弊를 意識하면서 배고픔도 참고, 말없이 責任을 다하려는 네 兵士의 진지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 生活周邊에 흔히 볼 수 있는 未分化現狀이 常存하고 있다. 官公署에서 일을 보려면 親戚이나 親知가 있어야 수월하고, 接客業 從事員이 불손함으로 自尊心 채우려 들고, 가이드가 念佛보다 젓밥에 더 신경을 쓰며, 봉급생활자들이 술자리에 모이면 他部署의 業務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행위며, 운전기사가 과거 自己位相에 未練을 갖는 행위, 업무관계의 陰性 非理事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내가 아무개 親舊인데”, “내가 아무개 子女인데”,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터인데”, “나는 過去 무엇이었는데” 등 이러한 固定觀念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러한 것인데 좀 잘 해 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個人意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불 所得時代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意識의 未分化다.

文民政府가 들어서서 公교롭게도 크고 작은 事故가 頻發하다. 얼마전 世上을 떠들석하게 했던 상수대교의 崩壞나, 삼풍백화점 慘事의 痛恨도 設計에서 부터 施工, 監理, 監督, 모두가 그리스토 퍼렌과 같이, 바울聖堂을 짓는다는 한 石工의 말처럼 다른 생각 말고 自己分野에서 最善을 다하는 意志였다면 傑作이 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石工이야기처럼 自己가 하는 일에 보람은 커녕 먹기 위해 마지 못해 하는 일에 무슨 職業意識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한 建物이 堅固하려면 땅 밑에 깔려있는 基礎가 튼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國家나 社會가 健實하게 存立하고 發展되는 것은 覺者 自己分野에서 묵묵히 誠心誠意껏 제 몫을 다하는 일꾼들의 努力과 手고가 있기 때문이다.

教育現場에서 열심히 學生을 指導하는 선생님, 産業現場에서 最善을 다하는 勤勞者,

技術開發에 沒頭하는 研究員, 營農에 힘쓰는 農民, 國威宣揚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여러 관계자, 박봉에도 불만없이 職務에 充實하는 職場人들, 이러한 숨은 일꾼들의 精誠과 手苦가 健全한 社會의 基礎가 되었을 때, 밝은 來日을 約束받을 수 있다.

옛날 이탈리아에 비니익토라는 馬具장이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가죽으로 연장과 고삐를 만들어 糊口之策으로 삼았다. 어느날 일손을 멈추고 偶然히 窓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앞발을 들고 공중머리하면서 몸부림쳤다. 그 사람은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여 말고삐를 거머쥐고 안장에 바짝 기대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얼마후 말은 제정신으로 돌아가 위험을 면할 수 있었다. 이것을 본 비니익토는 自己生業이 얼마나 尊貴한가를 깨달았다. 만일 그 손님이 쥐고 있던 고삐나 안장끈이 끊

어졌다면 그 손님은 죽었거나 크게 傷處를 입었을 것이다. 거기에서 비니익토는 自己職業에 대해 價値와 重要性을 認識하고 그 후로는 단순한 生計手段이라는 생각을 떠나 堅實한 馬具制作에 心血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그는 일의 보람과 幸福을 느꼈다.

우리 社會도 비니익토와 같은 숨은 일꾼이 수없이 必要하다. 職業의 純粹性을 外面한 채 한날 生業으로만 여겨 無心하게 어물어물 대충해 버리는 痼疾의 思考를 拂拭해야만 한다. 그리스도 퍼렌과 같이, 바울聖堂을 짓는다는 한 石工처럼, 職業에 對한 使命感과 天識意識을 갖고 일에 열중할 때 雜念에서 벗어날 수 있다. 自己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처럼 幸福한 사람은 없다.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享락하고 消費하고 奢侈하며 節制없이 막가버리는 人生은 아니다.

보람있는 일, 創造하고 뜻있는 事業을 하는데 삶의 보람과 意味를 갖자.

시민헌장탑은 속초시 상징 조형물



◆속초시의 상징 『시민 헌장 탑』

험난한 파도와 싸워 얻은 소득과 설악산을 잘가꾸어 얻어지는 관광소득이 속초시 발전의 원동력이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땅에 세계적인 대관광지를 건설,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시민들은 차원높은 향토문화를 개발

하여 시민의식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에 밤낮없이 계속되고있는 열기가 점점 아름다워 지는 열매를 하나씩 맺어 흐뭇한 감을 갖는다. 이와같은 시민들의 열의와 번영을 위한 목표를 조기에 성취하기 위해 '93. 10. 2 속초시민 헌장탑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金燮弘·알프스안경원대표)가 1억4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속초시 영랑동 570-5 문화회관 앞 광장에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파도와 어선, 산, 호수를 상징한 헌장탑은 높이 11.8m, 기단 가로 10m, 세로 9m, 탑재질은 화강석과 청동으로 구성되어있고 제막식은 각계의 격려와 축복속에 '94.6.13 거행했다. 이탑 건립시 시민성금 4천6백여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했었다. 이탑은 속초시의 명물로 각광받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건립정신을 기리면서 기념촬영장소로 유명하다. 시민헌장 비문은 다음과 같다. <별첨>

* 시민헌장 *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 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족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위업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체육 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 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성 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1990년 10월 11일

속 초 시 민 일 동

지방화 시대를 맞는 수협 활동사업

속초지역의 수산업 발전의 모체가 되어온 수산업협동조합은 일제하의 1920년도에 지금의 대포동인 도천면 어업조합으로 탄생되었으며 5.16군사 혁명 이후 협동조합법의 법적 체계를 갖추고 1962. 4. 1일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출발하여 어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휘항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유일한 어민의 권익보호와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어민은 근본이 가난을 대대로 이어받아온 낙후된 서민층의 생활과 빈약한 자본의 터전 위에 땀과 노력만이 투자된 어려운 환경속에서 험한 바다와 싸워온 산업역군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이 도약의 길에 올라서면서 정부정책이 공업화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수산업은 차선정책으로 물러나 있어야 되는 고달픈과 이로 인한 정책의 빈곤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은 고갈상태를 이루고 수산자원은 어디까지나 주인 없는 무주물이므로 어업자들은 바다속에 고기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 선취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결

국 저자원, 저성장, 저생산이라는 악순환 거듭해온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도성장의 혜택을 받은 산업부분으로 인력이 흡수되고 우리수산업은 값비싼 노동력과 절대노동력 부족속에서 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생산력 감소 및 비교 열위의 산업으로 직면하게된 가운데 W.T.O등 개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물밀듯이 들어온 해외 수산물은 빈약한 우리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부업자의 도산등 어려운 국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열악한 여건을 안고 우리는 민주화의 열망속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지방의 산업은 이 지방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만이 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관광특구로서 지정을 받아 발전의 요소는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9.4km에 연하는 연안해안은 청정해역으로 깨끗한 수질이 산과 바다에 연결되어 있어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이와 연계

된 사업의 전개는 바로 수산업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430억의 생산을 올려 이 고장 순수산업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수협에서는 이 고장의 특성과 연관시키면서 어민소득 향상을 위한 대어민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고장의 비교 우위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1995년도 우리수협의 총 사업 규모를 565억원을 편성 수산업 생산 지원사업을 전개중이며 그 사업별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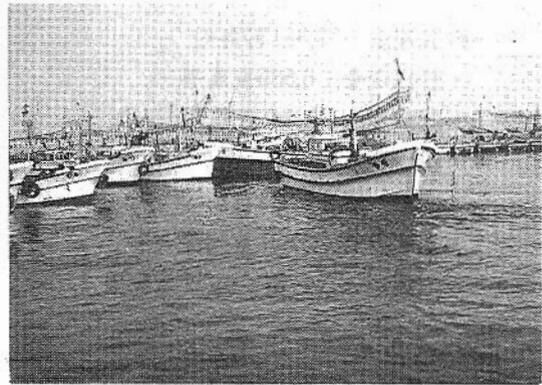
◆속초수협조합장 金永俊



◆속초수협전무 박찬호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있는 수협수산물직매장



◆속초내항



◆동명항을 할어전포항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유치 및 어민소득증대기여

1. 信用事業(銀行事業)

가. 추진방침

- 豫受金の 持續的 增加
- 營漁資金 適期 供給
- 市民 經濟活動 支援

나. 豫受金 : 23,854百萬元('95. . . 現在)

- 本 所 : 11,774百萬元(信託 16億 포함) : 琴湖洞 所在
- 東明支所 : 4,424百萬元 : 東明洞 所在
- 大浦法人漁村契 : 7,656百萬元 : 大浦洞 所在

다. 貸出金 : 26,020百萬元

- 政策資金 : 13,381百萬元
 - 營漁資金 : 6,535百萬元
 - 施設資金 : 6,846百萬元
- 一般資金 : 12,639百萬元
 - 本 所 : 2,864百萬元
 - 東明支所 : 3,658百萬元
 - 大浦法人漁村契 : 6,117百萬元

2. 共濟事業(保險業務)

가. 推進方針

- 共濟(保險)事業 底邊 加入 擴大 推進
- 共濟事業 專門 委員化
- 災害補償의 顧客 滿足 最優先 體制 構築
- 全漁船 및 船員 共濟 加入 啓導

나. 共濟商品의 種類 및 現況('95. 10. 31 現在)

(單位 : 百萬元)

區 分	共 濟 種 類	件 數	共 濟 料	契 約 高
計		1,290	1,529	77,996
生 命 共 濟	貯蓄性, 保障性, 老後年金, 家族사랑 癌共濟	648	787	6,494
損 害 共 濟	漁船, 船員, 一般火災共濟	642	742	71,472

다. '95年度 災害事故 共濟金 現況

— 漁船共濟：28件	260百萬원
— 船員共濟：44件	138百萬원
• 死亡：4件	85百萬원
• 負傷：40件	53百萬원
— 生命共濟：6件	144百萬원
計：78件	542百萬원

라. 共濟契約者 子女의 獎學金 支給

— 中學生：15名	1,500仟원
• 東草中學校：3名	
• 雪嶽中學校：6名	
• 東草女子中學校：1名	
• 雪嶽女子中學校：5名	
— 高等學生：15名	3,000仟원
• 東草高等學校：7名	
• 東草女子高等學校：3名	
• 東草商業高等學校：4名	
• 東光農工高等學校：1名	
• 計：30名	4,500仟원

마. 水協 共濟 加入者에 對한 特惠

- 共濟加入者에 對한 無料健康診斷 本人의 申請에 依據 實施
 - 實施時期：每年 下半期
 - 場 所：우리水協 委販場
 - 醫療機關：韓國醫學研究所 江原支社
- 船員共濟 加入時 共濟料 國庫 補助

(隻當 8名 乘船基準)

區 分	納入共濟料	國庫補助額	實際負擔額	備 考
100톤以上	3,412,800	102,384	3,310,416	3%
50~100톤未滿	3,412,800	238,896	3,173,904	7%
30~ 50톤未滿	3,412,800	853,200	2,559,600	25%
30톤以下	3,412,800	2,388,960	1,023,840	70%

3. 購買事業

가. 推進方針

- 漁業用 油類適期 供給
- 鮮需物資 및 水産 機資材 適期供給
- 水産物 直賣場 低邊擴大 및 運營 活性化

나. 細部推進事項('95.10.31 現在)

- 油類供給 : 輕油 : 74,235 D/M	_____	2,736百萬元
- 生産機資材 供給		
• 動力改良 : 7隻	_____	283百萬元
• 裝備改良 : 18隻	_____	260百萬元
• 設備改良 : 29隻	_____	1,112百萬元
• 機械供給 : 42隻	_____	133百萬元
• 計 : 101隻	_____	2,364百萬元
- 水産物 直賣場 運營('95. 10. 31 現在)		
• 東明直賣場 :	_____	780百萬元
• 中央直賣場 :	_____	280百萬元
• 計 :	_____	1,060百萬元

4. 利用加工事業

가. 推進方針

- 漁獲物의 冷凍處理 및 冷蔵保管
- 水産物 鮮度維持에 直接 使用하고 있는 얼음 製造加工

나. 細部推進現況('95.10.31 現在)

- 制氷 : 41,645角	_____	208百萬元
- 冷蔵 : 25百萬箱子	_____	151百萬元
- 冷凍 : 9仟箱子	_____	2百萬元
- 計 :	_____	361百萬元

5. 販賣事業

가. 推進方針

- 生産漁民의 受取價 提高
- 水産物 鮮度維持 및 漁價의 安定維持
- 系統出荷 및 價格支持事業 擴大

나. '95委販事業('95.10.31 現在)

14,538톤	31,511百萬元
- 本 所 : 10,693톤	19,627百萬元
- 東明事業所 : 1,390톤	6,575百萬元
- 大浦事業所 : 1,898톤	5,309百萬元
(法人漁村契) : (508톤)	(3,151百萬元)

다. 漁種別 委販量 : 31,511百萬元

- 오 징 어 :	14,142百萬元
- 활어(오징어) :	14,142百萬元
- 명 태 :	1,043百萬元
- 노 가 리 :	4,974百萬元
- 기 타 잡 어 :	5,247百萬元

라. 水産物 價格安定事業 : 2,255톤 3,988百萬元

- 政府備蓄 收買 : 1,400톤	2,674百萬元
- 自體價格支持事業 : 855톤	1,314百萬元
(오징어 : 1,211百萬元, 양미리 : 103百萬元)	

6. 指導還元事業

가. 推進方針

- 水資源 助成과 漁民 所得事業 支援
- 漁民生産 技術教育
- 災害 豫防 및 安全 操業 強化
- 不法漁業追放, 바다살리기 運動 推進
- 任職員 教育 研修 先進技術 및 海外見學

나. 事業計劃

- 組織強化事業費	108,197千원
- 水産指導費	156,469千원
- 教育訓練費	22,415千원
- 宣傳啓蒙費	30,820千원
計	317,901千원

다. 主要還元 支援事業

— 漁村所得 支援事業	36,000仟원
(전북, 가리비 ————— 大浦, 章沙漁村契)	
— 漁村 購買場 運營支援	50,000仟원
(中湖, 靑校 漁村契)	
— 災害對策支援費	45,000仟원
• 海上操難시 相互救助 支援費	15,000仟원
• 災害 豫防 應急 復舊 支援費	30,000仟원
— 漁業先進國 技術 見學(海外研修)	
• 漁民先進國 研修支援費	21,000仟원
— 任職員 研修 支援事業(水協中央會 委託 教育)	
• 任職員 研修費	17,000仟원
— 漁民子女 獎學 支援事業	
• 地域 人材 養成을 爲한 獎學金 支援	3,500仟원
東草高等學校	1,500仟원
東草商業高等學校	1,000仟원
水產高等學校	1,000仟원

위와 같이 우리수협은 신용(은행업무)사업과 공제사업(보험업무)및 구매, 판매사업, 지도환원사업등 종합사업을 전개하여 1차산업인 수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 고장의 유일한 순수생산 산업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2차산업으로 연결시켜(수산물 가공사업)고용의 증대 및 이 지역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며 이 고장을 지키는 순수지방 산업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수협의 역할을 다할것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의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모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대자연의 풍요로움속에 희망을 안고 병자년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 속초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

농협 東草市지부의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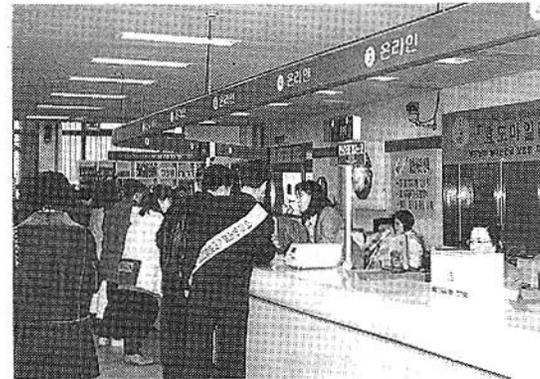
◆ 농협속초지부 전경



◆ 아늑한 분위기속에서 친절봉사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100%



◆ 고객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직원들이 창구까지 나와 고객을 안내하면서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속초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농촌을 돕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다하는 농협은 身土不二를 신조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것을 지상 목표로 삼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시민들에게 봉사 하는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을 직결시켜 유통구조의 대혁신으로 우리몸에 알맞는 우리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갖춘 농협은 시민들의 믿음이 제일가는 금융서비스 기관이라고 공인받고 있는것이 그동안의 업무실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I. 일반현황

1. 소재지 : 속초시 중앙동 468-39

2. 연 혁 : 1961. 8. 15 속초지소 설립
 1973. 4. 15 현건물 청사 신축이전
 1984. 8. 14 농협중앙회 속초시점으로 명칭변경
 1992. 1. 1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로 승격

3. 조직및 시설

○계통조직

(단위 : 개소, 명)

구 분		조직수	종사인원	조합원	비 고
중 앙 회	시 지 부	1	34		
	출 장 소	1	6		
계		2	40		
중 합 농 협	본 소	1	36	1,2933	준 조합원
	지 소	2	20		
계		3	56		5,588
합 계		5	96		

○협동조직

영 농 회	부 녀 회	작 목 반	작 목 회	청 년 부	합 계
28	25	14	2	1	70

○유통, 편의시설

- 농산물 직판장 _____ 1
- 슈퍼마켓 _____ 1
- 농기구 서비스 센터 _____ 1
- 청결미 가공공장 _____ 1
- 공동 이용 농기계 _____ 1(트랙터)
- 창고 _____ 4
- 혼수 백화점 _____ 1
- 농용자재 백화점 _____ 1
- 차량 _____ 4

4.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좌)

구		분		단	위	1995실적	비	고
중 앙 회	예	수	금	백	만 원	54,376		
	금	전	신	탁	"	15,329		
	공			계	"	34,483		
	대	출	금		"	54,336		
	B.C	회	원	명		5,198		
카드	가	맹	점	개	소	625		
중 합 농 협	관		매	백	만 원	2,850		
	구		매	"		710		
	생	활	물	자	"	2,951		
	창	고,	운	송	"	39		
	상	호	금	용	"	42,843		
	공			제	"	1,306		
	대	출	금		"	23,405		

IV. 주요사업소개

1. 농협의 사업종류 및 기능

- 신용사업 : 농협속초시지부 - 제1금융권 업무수행(은행, 외국환업무)
속 초 농 협 - 제2금융권 업무수행(상호금융업무)
- 경제사업 : 농산물 판매및 가공, 영농자재공급, 생활물자 공급, 창고, 이용, 운송사업
- 공제사업 : 생명공제 15종, 손해공제 7종, 공제복지 환원사업(건강진단, 장학금지급 등)
- 지도사업 : 영농생산지도, 농촌구조개선, 장제사업, 농촌문제 생활지도, 교육·조사·홍보 사업 등

2. 지역경제 및 고객을 위한 농협 사업

- ① 고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
 - 가. 365자동코너 개점 - CD기 3대, ATM기 1대
 - 나. 점외 CD기 운영 - 의료원 1대, 속초방송국 1대
 - 다. 외국환 환전업무 확대
 - 라.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 실시
 - 마. 농협 일렉트로뱅킹 서비스 실시
- ②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
 - 가. 전국 최대의 온라인망 구축 - 온라인사무소 : 3,400여개

나. 시민의 82%가 농협과 거래

⇒예금거래 : 62,800명, 대출거래 : 2,200명

다. 각종 정책대출금 공급 대행

⇒1,160건, 8,880百萬원

③지역발전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추진

가.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

⇒장학금 지급 - 1995年 : 5百萬원

⇒학자금 저리 지원 - 1995年 : 32百萬원

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무료건강진단 실시

⇒매년 100여명

④속초시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한 농촌구조개선사업

가. 정부 농어촌 투융자 계획에 의거 관내 유망사업 적극 발굴 추진

⇒민박 마을 지원 : 10억-15억원

⇒관광농원

⇒농산물 직판장, 전통식품 개발 등

⑤주말농장 운영

⇒소 재 지 : 속초시 노학동 800

⇒면 적 : 2,500평

⇒분 양 가 : 10평 기준, 30,000원

⇒재배작목 : 고추, 무우, 배추, 열무 등

⇒과수분양 : 주당, 20,000원(70주)

⇒참여가구수 : 약 60가구

축협은 축산농가와 소비자보호 축협은 시민과 더불어 성장

축산업 진흥발전과 육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련한 속초축협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경제단체임을 자부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다할것을 다짐합니다.

1. 연혁

- 1984. 3. 17 속초축산업협동조합 발기 인대회 개최
- 1984. 5. 3 창립총회
- 1984. 8. 1 속초축산업협동조합 인가
- 1984. 9. 14 속초축산업협동조합 설립 등기
- 1984. 9. 14 초대 김명호 조합장 취임
- 1985. 8. 14 제2대 김명호 조합장 재임
- 1985. 8. 26 축협중앙회 회원조합 가입
- 1987. 6. 20 상호금융 업무 개점
- 1988. 6. 15 조양동 예금취급소 개점
- 1988. 9. 14 제3대 김명호 조합장 재임
- 1989. 9. 21 제4대 김명호 조합장 재임
- 1990. 4. 20 본소(현 중앙지소)청사 매입 및 생활물자판매장 개장
- 1990. 5. 31 청학지소 승인
- 1991. 7. 18 조양동 창고 신축

- 1992. 5. 14 한우고기 전문 판매장 개점
- 1993. 9. 21 제5대 김명호 조합장 재임
- 1994. 6. 1 교동예금취급소 개점
- 1994. 9. 12 교동예금취급소 및 한우고기전문판매장, 생활물자판매장 개점
- 1994. 12. 18 본소청사 신축

2. 사업목적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도모.

3. 현황

속초축협은 신용, 구·판매, 생활물자, 공제사업등 다양한 사업으로 강원도 22개 회원조합중 5위안에 들만큼 우수한 봉사조합이다. 속초축협이 발족한 것은 현 김명호조합장이 영동지역 특히 속초관내에 양축가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없음을 애석히 여겨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 어렵게 구심점으로 만든

것이 속초축협으로 1984년 당시 어려운 사정으로 경영면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양축가의 이익을 도모하여 현재의 속초축협으로 태어났다.

초창기 조합장 및 직원들이 인근의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조합의 중요성 및 사업 홍보 등을 이야기하면서 조합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사비를 써가며 조합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양축가의 조합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이에따라 조합도 점차 발전, 성장하여 나갔다.

1985년 축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발전을 더해 1995년 11월말 현재 보유 고정자산만 해도 지하 1층, 지상 6층의 본소건물에 3개 지소와 사료창고, 한우전문판매장, 생활물자판매장 등 명실상부한 복지축산을 위해 최대 봉사의 위치를 다져가는 속초축협의 면모를 갖추었다.

속초축협의 사업부문별 성과를 살펴보면, 1987년에 개시한 신용사업을 보면 지소포함 4개점포의 예수금은 현재 324억원으로 연말 목표의 81%를 달성하고 있다.

조합원 양축자금의 중요한 자원조달인 예수금의 착실한 증대가 쉬웠던것만은 아니었다. 주로 도시민의 유휴자금을 끌어모아 양축자금으로 지원해야 하는것이 축협의 목표인데 수많은 경쟁상대인 시중은행과 더불어 치열한 고객유치로 한때 고전하기도 하였으나 조합장이자 전 임, 직원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치중사업의 하나가 생활물자 사업으로 1995년 개점한 본소 생활물자판매장을 비롯한 2개지소내의 판매장은 생필품과 특히 조

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강원도 지정 한우전문판매장에서는 고급육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키위해 엄격한 품질조사를 하여 속초지역 축산물 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89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181명에게 32,896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1993년부터 불우 소년, 소녀가장 2명에게 200천원을 지원하고 지역 양축농가에 소득약 360Liter에 1,250천원을, 한우성장제를 한우 530두에 1,630천원을 양축농가에 지원을 하였다.

1996년도에는 한우비육 성장제, 소득약, 암 모니아가스, 가축방역비로 8,200천원의 지원 계획과 장학생 35명에게 7,0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도 영리가 목적이 아닌 순수한 환원사업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750명에 이르는 조합원에게 경영정보 및 세계축산계의 흐름, 질병예방과 가축사양기술등을 전수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이란 것은 그 조합의 경영을 튼튼히하여 그 모든 역량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 그 모든것은 그 주인인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초창기부터 조합장직을 묵묵히 수행하여온 조합장과 임·직원 그리고 강한 주인의식과 높은 참여도를 가진 조합원이 많기에 속초축협의 오늘이 있고 밝은 미래도 함께 보인다.



조합장 김 명 호



전무 최 규 학



◆김명호 조합장이 저축 우수학생들을 표창하고 있다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운동



◆조합원 단합체육대회

우리 고장의 漢詩 考



李元植

- 成均館大學 中退
- 公務員 34年 停年退任

霜	葉	萬	園	秋
碑	立	重	陽	空
古	翁	無	復	面
今	生	相	更	逢
歲	歲	山	依	然
年	年	人	不	同
此	衆	壽	已	晚
伊	昔	紅	顏	童

—望鄉祭날 望鄉園에서—
 望鄉園 가을 짙어 가는데
 碑만 重陽節 하늘에 의로히 서 있고
 옛이는 가고 다시 안오는데
 살아 남은 우리 또 만나 기쁘구나.
 歲月은 가도 산은 그대로 인데
 해는 거듭해도 사람은 그러하지 않네
 여기 모인 이들 나이 이미 晩年
 그들도 한 때는 紅顏의 젊음이었건만?

우리 나라를 옛부터 그 山河의 秀麗함이 四海의 으뜸이라 하여 錦繡江山이라 하였다. 특히 關東地方은 비록 말타고 百里를 달릴만한 넓은 平原은 없어도 그 山水의 짜임새가 비할 수 없이 아름다워 金剛山, 雪嶽山, 五台山으로 이어지는 太白의 高山峻嶺이 있어 그 壯嚴한 奇峰과 도도히 흘러 내린 山脈마다 傳說과 說話가 엮혔고 深山溪谷에서 흐르는 河川마다 그 속에 사는 백성의 가락이 울렸으며 곳곳에 펼쳐진 大小 湖水和 臨海의 樓亭마다 周遊하는 詩人墨客들이 珠玉같은 詩文을 적지 않게 남겼다.

그중 漢詩部分에서 살펴 본다면 高麗末 文人으로 永郎湖에서 船遊했다는 景畿體歌의 關東別曲을 남긴 安軸과 그와 작할 當代의 文人 李穀의 詩가 有明하다 할 수 있고 朝鮮肅宗代 文人 三淵 金昌翁의 飛瀑層潭이 또한 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作品들을 남기도도 後世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이 고장에 사는 우리들의 責任이요 또한 反省해야 할 일이다. 우리들의 努力 不足으로 그 價値를 제대로 表出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번역된 漢詩를 보면 相當한 部分이 잘못 번역된 것을 본다. 漢詩를 번역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번역도 창작이란 말은 시에 있어 더욱 절실하고 譯詩도 시이어야 하기에 그 치르는 産苦는 창작시에서나 다를 바 없다.

直譯하면 시의 감정이 감퇴될 염려가 있고 抒情의인 맛이 떨어지고 意譯은 作者가 쓴 본래의 뜻과 멀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初心者에게는 原文 그대로 吟味함이 좋을 것이다. 漢詩의 번역은 그 詩文의 時代的인 背景과 環境, 動機 등을 參酌하여야 하며 詩人이 表現코자 하는 바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無理없이 理解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詩文이라 할지라도 現代人들이 理解하는데 어렵게 번역된다면 이를 읽는 사람들

에게 아무런 感興을 줄 수 없을 것이다. 漢詩를 읊는 妙味는 뜻글이 지나는 深奧한 妙理에 心醉되었을 때만 느낄 수 있고, 興味와 感動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번역된 漢詩中에는 어떤 것은 初心者의 눈에도 실로 엉뚱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번역된 경우가 가끔 눈에 띄는 것을 본다. 특히 우리 고장에 전해 오는 漢詩에서 타고장의 것보다 심한 感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보면 安軸과 李穀이 晩年에 樂山樂水하는 마음으로 山水景概가 좋은 關東地方을 찾아 周遊하다가 이 곳 永郎湖에 이르러 湖畔의 景致에 취해 船遊中에 韻(波·歌)을 놓고 서로 주고 받은 漢詩가 있다.

安軸이 먼저
暮雲半捲山如畫 저물어 구름이 반 걷히니
산은 한 쪽의 그림이요
秋雨新晴水自波 가을비 멈추니 하늘도 맑고
싱그러워 물결 절로 이네
此地重來難不必 이곳에 다시 올 기약이 없으니
更聞船上一聲歌 배위에서 노래 한 곡 다시
들어 보세
하고 읊으니 李穀이 和答하여 읊기를
安相情懷黃鶴月 安정승이 살아온 길은 黃鶴
과 같은 큰 뜻을 품어온 歲月이요
李生行止白鷗波 李生이 걸어온 길은 白鷗와
같은 世波의 길이네
重來此地誠難必 이곳에 다시 오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니
空聽關東一曲歌 공연히 關東別곡 한 곡 들
어나 보세
(여기서 關東別曲은 安軸이 지음)

위 두 文友가 晩年에 만나 서로 懷抱를 나누는 정겨운 모습과 湖水周邊의 아름다움에 心醉한 詩想이라 할 수 있다. 여기 李穀의 詩起·承의 두 對句에서 岸軸과 自己를 比較하여 安軸을 높이여 읊은 句節인데 이 部分의 번역이 너무 엉뚱한 것 같아 여기에 紹介하면

(起) 安相 情懷 黃鶴 月

(承) 李生 行止 白鷗 波

(起) 安정승이 情懷는 黃鶴의 달이요(옛사람의 詩에 “黃鶴一去不復返”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安軸이 한번 가고 다시 못온다는 것을 말함)

(承) 李生の 行止는 흰 갈매기의 물결이네

(行止—行動舉止의 준말로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뜻함)

위와 같이 번역되어 있다. 이를 分析해 보면

(起) 安相 情懷 黃鶴 月

(承) 李生 行止 白鷗 波

위 두 詩句(起·承)가 서로 對句임을 알 수 있다.

李 穀이 安 軸의 벼슬이 臨春飯事(政丞이 겸함)에 이른 사람이므로 安軸을 높이어 安相(정승)이라 부른 것이고 自己(李穀—牧隱李穡의 父)를 낮추어 李生이라 했다. 情懷는 黃鶴(큰 人物)과 같은 큰 뜻을 품었다는 比喻法이지 唐詩人 崔顥의 “登黃黃靜樓”의 黃鶴을 引用하는 것은 이 詩句에서 적합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의 月은 自然의 달이 아니라 安軸의 걸어온 歲月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整理하여 보면 “안정승이 살아온 길은 黃鶴과 같은 큰 뜻을 품은 歲月이다.”라는 表現이 尙當하지 않겠는가.

이에 對句로 李穀은 自己를 낮추어 李生이라 하고 위의 黃鶴과 對比시켜 白鷗(百姓—民草)로 比喻法을 쓴 것이요 波는 自然의 물결이 아니라 歲月의 對句로 世波를 의미한다. 다시 整理해 보면 “이름(李穀)이 걸어온 길은 白鷗와 같은 世波의 길이네”라고 表現하는 것이 時代의 情況에 맞지 않겠는가.

다음은 朝鮮肅宗代 文人 三淵 金昌翁(肅宗朝 영의정 金昌集의 아우)의 飛暴層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瓊臺俯金潭 右扇排靑嶂

融時備重妙 豈惟勢奇壯

名山蠟屐遍 姒協丹丘想

欲落金剛岩 驚呼更拄杖

위의 五言律詩 번역문을 살펴보면 「瓊臺같은 맑은 물을 굽어보니 부채같은 靑峰이 이곳에 펼쳐졌네. 이곳이 생길 때 妙理를 갖추었던가 그 勢 어찌하여 이리도 奇壯한가」

〈參考〉 위 詩 번역문 중 前半(首聯·領聯)만 번역되고 後半(頸聯·尾聯)은 어떤 일인지 번역된 것을 보지 못했음)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첫번 句節(瓊臺俯金潭)를 「瓊臺같은 맑은 물을 굽어보니」라 하였는데 여기서 瓊臺를 마치 거울인양 표현했지만 이 詩句에서 瓊臺는 飛仙臺를 아름답게 表現한 것이며 金潭은 가을 落葉이 가라앉은 맑은 層潭에 햇살이 어리어 金빛이 燦爛한 모습을 말한다. 그러면 이 詩句를 整理해 보면 (飛仙臺에서 금빛 찬란한 層潭을 굽어보니)가 된다.

둘째 句節(右扇排靑潭)을 「부채같은 靑峰이 그 곳에 펼쳐졌네」로 되어 있다. 마치 靑峰이 거기에 비추어 潭沼에 펼쳐진다는 뜻인 듯 하다. 그것보다 飛仙臺에서 아래쪽에 굽어보니 오른쪽에는 부채를 펴놓은 듯 푸른 石峰들이 늘어 서 있다. 다시 整理해 보면 (오른쪽은 푸른 石峰들이 부채처럼 펼쳐 서 있고)

셋째 句節(融時備重妙)를 「이 것이 생길 때 妙理를 갖추었던가」 이것을 고쳐보면 神仙이 이곳을 빛을 때(融時) 온갖(重) 妙技를 다 갖추었(備)던가. 이 句節을 다시 整理하면 (神仙이 이곳을 빛을 때 온갖 妙技를 다 갖추어서인가)

넷째 句節(豈惟勢奇壯)를 「그 勢 어찌하여 이리도 奇壯한가」 이 句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시 整理해 보면 어찌(豈)하여 오직 이 곳만(惟二唯)이 그 勢가 奇壯한가. 卽(어찌하여 오직 이곳만이 그 山勢가 奇異壯嚴한가)

다음은 後半句를 번역해 보면

名山蠟扇遍 神仙이 밀랍신을 신고 다니 빛
어서 名山이든가

始協丹丘想 仙境을 구상하여 빛기 시작한
것인가

欲落金剛岩 저기 金剛岩이 막 떨어질려고
하니

驚呼更拄杖 놀라 지팡이로 그에 받쳐줄 것
인가

(注) 蠟扇 : 神仙이 사뿐히 날아 다닐 때 신
는다는 밀랍으로 된 신발

丹丘 : 神仙이 산다는 仙境

위와 같이 아름답고 絶妙한 文體의 詩句를

남기고도 이렇게 死藏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 詩碑가 선지 오렌데 아직 그 번
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進念詩碑 蘆鶴洞사무소 앞길가에 있
음) 이외에도 이와같은 例가 있으나 紙面도
다음 機會로 미루고 淺學菲才한 者가 嚴히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이 고장의 鄉土文化와
漢詩分野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까 하여 小考
形式으로 다루어 본 것이다. 그나마 우리 고
장의 貴重한 文化遺産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多幸이겠다.

日語를 國語로 배워야 했던 世代의 아픔



오 윤 근

1. 새해부터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어 부르기로 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하였다.

원래 국민학교란 말은 folk schule라는 독일어에서 온 말인데 일제는 국민 또는 인민이라는 뜻의 folk를 보편적인 뜻의 국민이 아니라 皇國臣民의 약어로 못박아 풀이하고는 한국인에 대한 황국신민화교육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에서 1941년에 日皇 勅令으로 심상소학교를 군민학교로 바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에게는 국민학교라는 말은 일제 식민지교육의 잔재로서 굴욕적인 뜻을 시사하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광복후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시되었으나 번번이 묵살되다가 광복 50년이 지나서야 겨우 실현되게 되었으니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의 무감각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무관심 때문이었을까?

일제 식민지통치 기간중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보통학교에서 심상소학교로, 심상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바뀌기까지의 정책적 배경과 그에 다른 교육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국민학교라는 말속에 담겨있는 일제 식민지교육의 실체가 똑똑히 드러난다.

일제는 우리의 주권을 찬탈한 다음해인 1911년 8월 23일 일황 칙령 제229호로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부터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통치교육은 시작되었다.

일제는 정치적으로는 억압하고 경제적으로는 수탈하는 한편 교육에 있어서는 우민화를 통한 한국인의 황국신민화를 교육의 기본 정책으로 하여 학제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조선교육령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목적(보통학교)

보통학교의 교육목적을 “덕성을 함양하고 국어(일본어)보급에 힘써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도록 함에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2) 학 제

○초등교육기관은 보통학교라 칭하며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남자 중등교육기관을 고등보통학교라 칭하며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여자 중등교육기관은 여자고등보통학교라 칭하며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3) 교육과정(보통학교)

○수신, 국어(일본어), 산술, 조선어 및 한문을 필수교과로 한다.

○이과(자연), 창가(음악), 체조(체육), 도화(미술), 수공(공작) 등은 선택교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당분간 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어를 국어라 하고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일본어로 기술한다.

조선교육령에 나타난 특징은

첫째로 일본어를 국어라 한 것, 한국역사가 교과목에서 제외된 것, 조선어를 외국어 교과로 취급한 것, 일본어 주당 수업시수가 6~7시간인데 반해 조선어 수업시수는 2~3시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고

둘째로 조선의 학제를 일본의 학제와 다르

게 하여 차별을 두었다는 것, 즉 학교명칭을 다르게 하고 수업연한을 짧게 함으로써 교육정책상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의 민족혼을 말살하고 한국인을 우민화하여 일본인은 1등국민, 한국인은 2등국민으로 교육하여 일제의 시책에 순종하게끔 만들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교육정책을 기저로 하여 한국에 대한 황국신민화 교육은 그 막이 올랐다.

2. 일제는 식민지통치 초기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위압하는 무단정치를 써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은 일본군 현역 대장으로 임명하고 헌병장교를 경찰국장, 경찰서장에 보하고 헌병으로 하여금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정부관리는 물론, 학교교사마저도 소매에 누런 금테를 두른 제복을 입고 긴 칼을 차고 수업에 임하게 하였으니 유례 없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우리 민족은 자유뿐만 아니라 생존마저도 위협받으며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아야 했다.

3. 공포정치로 일관하던 일제는 3·1독립운동으로 겨레의 항일 감정이 고조되고 국제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당황하여 통치방법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형식상으로는 문화정책을 표방하여 국민 감정을 무마하고 국제여론을 호도하려 하였다.

현역 대장으로 임명하던 조선 총독을 문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하고 헌병경찰제도를 철폐하고 관리 및 교사의 제복착용과 군도 패용을 폐지하였다.

1920년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민족신문의 발간을 허용하여 한국인에게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척 하였다.

이와같은 정책변화는 교육에도 반영되어 1922년 3월에 개정교육령인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니 황국신민화 교육의 제2단계가 시작되었다.

새교육령에서는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제를 일본의 학제와 같게 바꾸었다. 즉 4년이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4년제 고등보통학교를 5년제로, 3년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년제로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일본과 같게 하였다.

한국인도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술책일뿐 한국인에 대한 황국신민화 정책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었으니 오히려 심화되고 가속화될 뿐이었다.

4.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싹은 1876년의 명치유신에서 잉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명치유신이란 의견상으로는 에도바꾸후(江戸幕府)의 대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가 장악하고 있던 정권을 명치천황(明治天皇)에게 넘겨주는 왕정복고 선언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봉건제도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개혁인 것이다.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창설하고 학제를 개혁하고(이때에 教育勅語 발표) 징병제도를 확립하는 등(이때에 軍人勅諭 발표) 제반제도를 정비하여 오랜 쇠국정책으로 낙후된 일본이 현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육을 통하여 서구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일으키고, 현대무기로 군대를 무장하는 등 부국강병에 힘쓰면서 대륙침략의 야심을 키워오던 일제는 마침내 청일전쟁(1894~1895)나 노일전쟁(1904~1905)을 도발하여 승리함으로써 중국땅 만주와 한

반도에 발판을 확보하게 된 일본의 자본주의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세계 열강에 끼게 된 일제는 서서히 대륙 침략의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1931년 9월, 남 만주 철도 경비를 구실로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관동군은 만주 심양(奉天)근교의 유조구(柳條溝) 근처 철도를 폭파하였다. 그리고는 이를 중국군이 한 것으로 뒤집어 썩워 중국군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니 만주사변이 터진 것이다.

개전 3개월에 만주지방을 완전장악한 일제는 만주를 따로 떼어 독립시키고는 중국의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폐위되어 자금성에 연금되어 청조부흥(清朝復興)의 허황된 꿈을 꾸고 있던 청조의 마지막 황제(제12대 宣統帝) 부의(溥儀)를 왕으로 앉힘으로써 일제는 만주국이라는 일본의 괴뢰국가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만주에 괴뢰정권을 수립한 일제는 1937년 7월 7일에는 노구교(盧溝橋)사건을 날조하여 중일전쟁(支那事變)을 일으킨다.

북경 근처의 노구교라는 다리 부근에서 훈련중이던 일본군의 한 중대에서 일본군인 1명이 실종(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일제는 이 역시 중국군의 소행으로 몰아 중국군과의 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하였으나 중국이 이에 불응하자 관동군이 중국군을 공격하니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이런식으로 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책략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國體明徴, 內鮮一體, 忍苦鍛鍊을 三大 教育方針으로, 滅私奉公, 信愛協力, 堅忍持久를 三大 實踐綱領으로 하는 황국신민화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첫째가 1937년에 만들어진 皇國臣民의 誓詞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가 부르짖던 황국신민화며 내선일체가 과연 무

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가 똑똑히 드러난다.
皇國臣民이 誓詞(皇國臣民의 誓詞)

1. 我等は皇國臣民なり。忠誠以て君國に報ぜん。(우리는 皇國臣民이다. 忠誠으로 君國(임금의 나라 즉 일본)에 報答한다)

2. 我等皇國臣民は互に信愛協力し以て團結さ固くせん。(우리 皇國臣民은 서로 信愛協力하여 團結을 공고히 한다)

3. 我等皇國臣民は忍苦鍛錬力な養い以て皇道な宣揚せん。(우리 皇國臣民은 忍苦鍛錬 힘을 길러 皇道를 宣揚한다)

한국사람은 남녀노소 할것없이 이 “서사”라는 것을(어린이용은 따로 있었음) 외워야 하고 모든 행사 때마다 이것을 제창하여야 하였으니 우리 민족에게 있어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을 것이다.

두번째로 1938년에 칙령 95호로 공포된 조선인 지원병제도를 들 수 있다.

한국사람도 일본군에 지원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말이 지원이지 온갖 방법을 써서 지원을 강요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일제는 1938년 칙령 제103호로 제1차 개정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니 식민지교육은 제3단계에 접어들었다.

개정교육령에서는 “內線一體”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내 학교의 명칭을 일본학교의 명칭과 같게 하였다. 적어도 교육제도상으로는 차별을 완전히 없앤 것이다.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바꾸었다. 그리고는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니 한국사람이 한국글을 배울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인도 황국신민이니 일본어말 배우면 된다는 명분을 만든 것이다.

또 “國語常用(日本말常用)을 의무화”하니 한국사람이 한국말도 쓸 수 없게 되었다.

학교에서 한국말을 쓰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다. “매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는 옛말대로 “국어상용”

에서 한 수 더 뜨는 한국인도 있었으니 어찌 알밉지 않았겠는가?

한국말을 쓰는 철부지 어린이를 세워 놓고는 황국신민 운운하면서 일장 훈시하고는 벌주는 한국인교사-이보다 더 추하고 꼴불견인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또 시류에 편승하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란 있기 마련이어서 일어상용에 앞장서서 열열히 실천하는 열빠진 추한 한국인-가정에서 가족끼리도 일본어를 상용하며 황국신민임을 자처하는 못난 그들을 보며 아마 일제는 황국신민화 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5. 중일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자 2차세계대전을 계획하고 있던 일제는 1941년 3월 일황칙령 148호로 국민학교 교육령을 공포하니 식민지교육은 최종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황국의도”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을 전시체제에 맞춤으로서 인적물적 동원을 효율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학교 교육령이 공포되면서 학교생활이 여러면에서 바뀌기 시작하였다.

○중학생의 복장이 바뀌었다. 검정색 학생복이 일본군인 복장과 같은 국방색으로 바뀌었고, 등근 검정색 학생모는 일본군의 국방색 전투모와 같은 모양의 전투모로 바뀌었다. 또 한쪽 어깨에 걸치도록 되어있는 학생 책가방이 등에 메는 일본군 배낭과 같은 모양의 국방색 배낭으로 바뀌었다.

학생은 등교시 일본군인처럼 각반(脚絆)이라는 것을 착용하여야 했다. 각반이란 폭 10cm정도, 길이 2m가량의 두꺼운 국방색 천으로 된 것인데 이것을 발목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바지위에 감아서 활동시 거치장스럼

지 않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을 차려입은 학생은 완전무장으로 전투준비를 갖춘 일본군인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야구, 배구, 축구등 구기종목이 체육시간은 물론, 운동장에서조차 취미를 감추고 그 대신 수류탄 던지기, 모래가마니 나르기, 달리기 등 전력증강에 도움이 되는 종목만을 실시하여야 했다.

○1941년 6월 학생근로봉사 실시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면서 학생은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군용 비행장 활주로 건설작업이나 공장노동에 동원되었다. 전쟁말기에는 봉사활동이 더욱 더 강화되어 격월제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즉 한달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음 한 달은 공장에서 노력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니 학업이 거의 전폐되다시피 하였다.

○1941년 창씨개명 제도가 실시되었다. 한국사람은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야 했다. 창씨개명 제도가 발표되었을 때 한국사람의 대응자세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죽어도 창씨개명은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요지부동형, 힘 없는 한국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도리가 없다고 체념하여 마지못해 성만 바꾸는 체념형, 얼씨구나 잘되었다고 성도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는 일본인으로 행세하려 드는 적극형,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발악하기 시작하니 사태는 급변하였다.

물적·인적 동원을 위한 제도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조선인 징병령이 공포되니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의 침략전쟁에서 명분없이 희생되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학도지원병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징집 연령을 초과한 한국인 대학생들을 전쟁터로 끌어갔다.

○휘발유의 대체연료인 송탄유(松炭油, 송진에서 뽑아낸 연료)의 원료가 되는 관솔(소나무 뿌리나 소나무 옹이) 채취에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전쟁 말기에 원유공급이 끊기게 되어 유류난이 극심해지자 생각해낸 일본의 고육책인 것이다. 학생들은 할당된 양의 관솔(1인당 1관)을 월요일마다 제출하여야 하니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산에 올라 관솔을 따야 했다.

학생의 생활이 이러하였으니 일반국민의 생활이 어떠하였을지 미루어 짐작이 갈 것이다. 소위 “국민총동원령”이 공포되었다. “성전 완수(聖戰完遂)를 위하여 온 국민은 근검절약하고 인고단련하여 멸사봉공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남자는 삭발하여야 한다. “하이칼라” 머리는 사치이며 시간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용납이 안된다.

○벡타이를 댈 수 없고, 국민복이라는 국방색 간편복을 입어야 한다. 여자들은 몸빼라는 일본식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식량이 부족하게 되자 식량배급 제도가 실시되었다. 성인 1인당 3홉씩의 양곡이 배급되는데 그 중 30%는 잡곡이었다. 가정마다 식량이 부족하여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또 모든 공장이 군수공장으로 전환되어 일용품 생산이 중단되니 물자난이 극심하였다. 가게가 문을 닫아 시장이 철시되니 일용품을 구할 수 없었다.

○농촌에서는 양곡을 공출(供出)로 바쳐야 했다. 농가마다 가을이면 할당된 양의 양곡을 공출로 바치고 나면 식량이 부족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실정이었다. 물자가 귀하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闇시장을 뜻하는 闇(일본말로 “야미”)라는 말도 이때에 생겨났다. 그래도 돈만 있으면 비쌀망정 闇시장에서는 필요한 일용품을 더러는 살 수 있었다.

○젊은이들이 모두 군대에 끌려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징용령을 발동하였다. 징집

연령을 초과한 한국 청장년들을 공장이나 광산 노동에 투입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사할린 교포도, 재일교포도 이때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여자정신대도 이때에 생겨났다.

○국방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녀자들의 금패물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포탄을 만든다고 가정에서 사용하던 낫쇠그릇은 계기, 방상기 할것없이 모조리 빼앗아갔다. 그토록 악랄했던 일제의 만행과 수탈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6. 일제는 식민지 통치기간중 네 번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의 목적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여건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시국상황에 대처하면서 한국인을 일제의 정책에 순순히 따르는 황국신민으로 교육하여 침략전쟁에 철저히 이용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41년 3월에 공포한 국민학교 교육령은 황국신민화 정책의 최종 단계로서 “한국인도 황국신민이기 때문에”라는 명분을 만들어 인적·물적으로 한국으로 철저히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벌써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7. 일제가 식민지 통치기간중 우리에게 끼친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인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는 커녕 망언을 일삼고 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거론하며 역사상 최초의 원폭 피해국임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않다. 2차대전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사죄하며 뉘우치고 있다. 독일인에게도 히로시마 참사에 못지 않은 드레스덴(Dresden)의 비극이 있는데도 말이다.

엘베강변의 피렌체로, 바로크 예술의 보석으로 불리우는 옛 동덕지방의 고도 드레스덴市는 베토벤의 고향곡에 매료되어 음악가가 되어 악극을 창시한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와 낭만파 오페라를 확립한 작곡가 칼 마리아 베베(Carl Maria Weber)와 같은 위대한 음악가를 낳은 예술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화의 도시 드레스덴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2차세계대전중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가 하였던 22만의 독일군은 러시아 지방의 혹한을 견디지 못하여 소련군에게 패하니 동부전선의 전황은 반전되었다. 진격을 거듭하던 독일군은 퇴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45년 2월 동부전선에서 패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후퇴하는 독일군을 소련군이 파죽지세로 뒤쫓고 있었다. 밀물처럼 추격하여 오는 소련군을 피하여 독일 난민들이 드레스덴에 몰려들어 그 수가 50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연합군이 유서깊은 고도 드레스덴만은 폭격하지 않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를 걸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 고 말았다.

1945년 2월 13일 밤 10시를 기하여 연합국 공군은 드레스덴에 무차별 파상공격을 퍼부었다. 그 공습은 다음날 정오까지 계속되었다.

먼저 영국공군이 15km에 이르는 드레스덴 도심부에 2,000톤 가까운 폭탄과 60여만개의 소이탄을 밤새도록 퍼부었다.

영국 공군의 뒤를 이어 미국 공군의 릴레이식 폭격이 계속되었다. 엄청난 양의 폭탄과 소이탄으로 드레스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았다. 6만여명의 사상자가 확인되었다는 통계가

있으나 실제 희생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하니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웃도는 것이다.

폭탄(Bomben)으로 융단(Teppich)을 깎다는 뜻의 융단폭격(Bomben Teppich, 봄벤 테피히)이라는 말도 이때에 생겨났다고 한다.

드레스덴의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중에는 83세된 독일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게르하르트 하우스프트만(Gerhart Hauptmann)도 있었다. 다음의 그가 한 말에서 그 참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인생에서 물러나는 출구에서 이 비극을 체험하지 않고 먼저 간 모든 사자를 부러워한다. 울음을 잊어버렸던 사람도 드레스덴의 참상을 보고 다시 울음을 배운다. 나도 울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은 드레스덴의 비극을 애써 부각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가 지은 죄의 대가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은 전화와 살육의 책임을 통감하며 그 죄를 씻으려 애쓰고 있다. 나치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과 유족들에게 1,200억마르크(60조 원)에 이르는 거액을 보상하였다. 70년초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바르샤바에 가서 나치 희생자 묘역을 찾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이렇듯 독일의 과거 청산은 철저하고 진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독일의 죄를 잊을 수는 없어도 용서는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한가?

역사적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려 애쓰고 있다. 사죄는 고사하고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말이다.

관동군 남경대학살이나 731부대의 비인간적인 생체실험 등은 덮어두고 히로시마 원폭 피해만을 크게 떠들고 있다.

중군위안부 문제는 외면하면서 최근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사 3명이 저지른 여학생 폭행사건을 대서특필 보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일제의 만행을 잊을 수 없을 뿐더러 용서조차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겨먹은 인종이기에 그럴수가 있을까?

8. 일본이 이런 태도로 나오는 데에는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여 볼 필요가 있다.

광복후 우리의 과거 청산이 철저하고 확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제에 붙어 날뛰던 천일파들이 민족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는가?

우리의 생활문화속에 스며든 일제 잔재 숙청에 철저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본이 망언을 터뜨릴 때마다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광복 50주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주변에서 일제 잔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국민학교 명칭을 바꾸는 일만 하여도 그렇다. 정작 국민학교 명칭의 본산지인 일본은 패전 이후 바로 소학교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우리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였던 대만도 오래전에 그 이름을 소학교로 바꾸었다. 우리만이 고집스럽게 “국민학교”에 집착하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일어를 국어로 배워야 했고, 자기 나라말조차도 쓸 수 없었던 세대의 쓰라린 과거, “朝鮮人の ぐせに”(조선사람인 주제에)라는 치욕적인 말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야 했던 때의 아픔은 잊혀졌는가?

일본 만화, 잡지, 전자오락에 넋을 잃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 일본의 잔혹 퇴폐 영상에 병들어가는 우리의 청소년들 일본을 싫어한다면서 일본 제품에 사족을 못쓰는 일부 계층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등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가 마치 일제식민지 통치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이 식민지통치가 한국에 도움을 주었느니, 한일합병이 합법적이었느니, 대동아전쟁은 아시아 여러사람들을 독립시킨 전쟁이었다는 등의 망언을 거침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꼼꼼히 반성하여 볼 필요가 있다.

나와 東草와의 因緣



李 虎 舜
前商校校長

사람이란 이런 것일까

사람이란 어느 時代 어느 民族으로 태어나든지 詩空속에서 人生의 險路를 걸으면서 하나의 配役을 맡아 幸福과 不遇의 交叉路線上에서 生의 價値와 其意味를 찾고져 국가나 社會性에 依하여 政治 經濟 宗教 藝術 등의 多樣한 分野에서 文化의 創造와 未完成의 連續속에 善과 惡의 榮辱을 지니고 虛無와 無事의 生活課程을 밟으면서 人生을 짧게 길게 살아가는 利害得實 을 爲한 生存競爭의 效果의 人 靈의 動物이라고 하겠다.

이런 저런 追憶

여기에 적고져 하는 말은 나의 生活記錄 一部를 쓸가 말가 하다가 대략 적고자 하니 讀者 여러분은 誤解마시고 讀解하여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초와 첫재 인연(56年度)

사람마다 正義感이나 感情世界가 있겠지만 나는 타고난 性格 때문에 調和를 이루지 못한 점이 더 많다. 教育界에 投身하여 全南 忠南 江原 三道를 轉出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事緣인즉 大田師範에 在職時 不幸하게도 不正入學事件으로 校長과 마찰로 校長은 물러나고 先生五名中 忠南에 三名이 配置되고 咸興出身趙先生과 나는 江原道에 流配되었다. 趙先生은 醫科大學에 다닌 경험으로 大田刑務所에 측탁실로 들어가고 나 혼자만 남았다. 八月에 轉出된 것이 年末이 되어도 發給이 나지 않으니 그동안 精神的 經濟的 苦痛은 말할 수 없었다. 他職도 구하여 왔으나 일이 잘되지 않아 당시 高大在學中이던 아들을 江

原道에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하였더니 人事係長이란 사람이 本人이 오지 않았다고 야단만 듣고 왔다는 것이다. 함경도 말로 三水甲山에 피나무 곤장이 있다더니 江原道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고 端判하기 위하여 찾아갔다. 가는말 오는말이 좋을리야 있겠는가. 할 수 없이 局長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하여 案内되어 가보니 지옥에서 부처님 만났격이었다. 順天師範 時節 잘 아는 승주郡守로 지내던 성局長이었다. 어찌하여 江原道까지 왔는가 하고 묻기에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 하였더니 特別配慮로 東草商業高等學校에 가시오 하고 권하였다. 局長님도 알다싶이 여순 반란, 6·25事變 等に 겨우 목숨이 살었는데 砲聲이 울린 戰線地帶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살어서 꼭 故鄉에 가야 합니다. 하고 다른 곳에 善處를 付託드립니다. 하고 大田에 돌아오고 말았다. 苦北上事 好事多感한 格으로 數日後 局長님은 全北에 轉勤되고 말았다. 그 후 겨우 洪川 濃校에 發令 났다는 連絡이 왔다 부임하여 一週日 授業을 하였는데 校長이 育成會費를 豫算上支拂할 수 없으니 다른 學校를 가라는 것이다. 그것은 校長이 處理할 문제지 先生이 어떻게 하느냐고 또 말성이 벌어졌다. 수업도 시키지 않으니 先生代身 宿直을 하고 담배 두 갑씩 받아 밤낮 담배 피우는 것이 日課였다. 이런 八字도 있나하고 大田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듬해 三月 中旬 洪川에 가서 他校轉出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는 人事係長과 崔獎學士대동, 學校獎學指導次 來校하였다.

崔장학사 말이 李先生은 무슨 일로 출근부에 도장도 찍지 않았는가 하고 시비조로 말하기에 이 학교는 授業도 시키지 않고 돈도 주지 않으니 안찍었오. 그 理由는 校長한테 물어보시오. 履歷綴을 살펴보고 拓殖出身으로 어떻게 가르치시오 하고 말하기에 화가 나서 당신은 春川農大를 나왔는데 그것도 大學이나 장학사 資格이나 있나 하고 큰 싸움이 벌

어졌다. 人事係長이 야단쳐서 싸움은 끝났다. 人事係長님 이번에는 以北出身校長인데 어디든지 보내주시오. 大田가서 發令을 기다리겠오 하고 떠나고 말았다. 얼마 아니되어 原校에 發令났다는 連絡이 왔다. 江原道 오는 기회에 文教部 李係長을 만나러 갔다. 내가 당신 덕에 江原道에 流配간 先生이요. 당신이 무슨 일로 나를 그렇게 미워하였소.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기에 여보시오 이 文教部안이나 서울에 나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소. 다 情報를 알고 있소. 나도 해방전 이 총독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요, 端宗은 영월에 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오 마는 나는 不死鳥요 오래 오래 係長이나 하시오 하고 떠났다. 이 말이 口說수에 오른 일 있었다. 洪川에 오니 기린中學이나 갈줄 알았는데 原校에 大宋轉이 됐다고 送別까지 하여 주어 웃음이 나왔다. 原校에 오니 金昌成 校長 先生님의 말씀이 道에 가니 問題教師이니 잘 善導하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校長말씀이 이 바닥에는 입다물고 사는 것이 處世術이란 말씀을 듣고 果然 옳다고 생각하였다. 實로 厚德한 校長先生 밑에서 6年間이란 歲月속에서 初創期 原校에서 처음으로 教師다운 生活를 하였다. 原校에서 4·19, 5·16 革命을 맞이하였다. 수많은 弟子들이 卒業後 社會 各 分野에서 出世하는 것을 보니 옛글에 靑出於藍이란 生覺이 난다.

發令과 進級에 支障이 된 理由

教職生活은 1948年 처음 順天師範에서부터 始作되었다. 約七年間 在職中 麗順叛亂과 6·25動亂이 일어나 困難의 歲月이었다. 教職生活이 얼마되지 않아 하루는 校長先生이 英語研究授業을 하였는데 文教部獎學官이 指導次 와서 評價會를 하는데 眼下無人格으로 가장 示範的 師範學校가 한글을 전용하지 않고 漢文을 그대로 使用한다고 야단이다. 또 時間에 日語單語를 使用하는 先生이 있다고 야단이다. 늙은 張校長은 未安하다는 말뿐이었다.

그만 화가 나 내가 여보시오 당신은 유식하게 漢文用語만 使用하는데 한글로 말하여 보시오 또 日語單語가 문제인데 이 漢文授業은 아무 관계 없오. 하고 젊은 血氣에 輕舉妄動하고 말았다. 이것으로 평가회는 파장되고 말았다. 全職員이 저녁 食事接待를 하였는데 장학관이 하는 말이 오늘처럼 망신당한 것이 처음이요 하고 나에게 술을 한잔 주기에 받아 마시고 서로 친하게 되었다. 그러나 文敎部에는 이미 順師에 問題教師가 있다는 所聞은 파다하게 퍼지고 말았다. 나의 性格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目的이나 手段으로 대하지 않고 거저 친구로 對하기 때문에 웃사람에게는 오해사기가 쉽다. 順天에서 6·25때 가족은 順天에 두고 先生들과 釜山으로 피난을 갔다. 多幸으로 日本에 中學同窓인 金熙鳳君이 부산 부두 補助會委員長으로 있어 그 도움으로 就職되어 많은 신세를 졌다.

收復當時 文敎部次官으로 부터 收復學校管理責任者任命狀을 받고 順師에 돌아왔다.

學生 敎職員 부역관계는 不問에 부치고 學校登校를 권유하여 善處로 事件을 處理하여 매듭지은 것은 至今 生覺하여도 잘하였다고 生覺한다, 그리고 5·16革命후 人事大異動 때는 原校에서 嶺東에 轉출되어 北坪高에 轉근되었다. 轉근 후 五個月만에 江陵女高에 校監으로 昇進되었다. 注文津水高를 거쳐 여든에 陵泰奉이란 格으로 校長 資格증만지 11年만에 廢校措置된 望山高等公民學校에 校長發令이 났다. 大統領發令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格이라 생각이 된다. 全校生 25名 先生 8名 이것은 全國 高等公民學校 豫算에 포함된 所致였다. 그리하여 태백, 철원에 파견 근무하고 학교 5名 敎師가 있으니 한 사람이 하루 한시간하면 된다. 이런 학교는 나서 처음이었다. 이때 내가 지은 敎訓은 배우자, 일하자. 잘살자이다. 이것이 내가 校長으로 가는 곳마다 敎訓이며 나의 信條이고 哲學이다.

至誠이면 感天이라고 努力 끝에 江陵中學

分校도 만들어 내었다. 入學式때는 江陵中學 유형설 校長이 職員과 밴드부를 動員하여 盛大히 入學式을 舉行하여 주었다. 感謝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至今은 어엿한 中學校로서 서울 모會社가 全校生에 獎學金을 주고 學校後援을 받고 있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實로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한다. 그후 平昌(美歎中學)을 거쳐

속초와 두번째인연

1970年 束草實業學校에 發令났다. 도에서 失業學校란 무엇을 가르치냐고 물으니 爲仙 商科를 두었으니 校長이 가서 地方特色에 맞추어 學校運營을 하라는 것이다. 束草實校가 된 理由는 당시 文敎部가 並設學校는 其高等學校에 進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므로 束草中學生 進路를 爲하여 만든 것이 實校였다. 校舍없이 束草國民學校3教室을 얻어 入學式을 가졌다. 그날 訓示로 이런 말 한 記憶이 난다. 너희들이 뒤돌아보라 너희들이 앞을 보라 後輩도 先輩없다 너희들은 이 學校의 開拓者요, 先驅者이다. 개척자와 선구자란 외롭고 고달픈 일이다. 이 말이 오늘 뿐만 아니라 먼 人生을 거쳐 가면서 이러한 強한 信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力說한 것이 자주 生覺이 난다.

이 學校는 장차 工業學校로 轉換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一年半만에 東高並設學校外 分離되는 바람에 雪中初代校長으로 또 가고 말았다. 다시 73年度에 巨津實校에 轉근되었다. 零細農漁民子女들의 將來 學業을 爲하여 高等學校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朴大統領이 工業政策을 펼 때이다. 그리하여 難關을 무릅 쓰고 工業學校 設置運動을 展開하였다. 당시 立地的 條件으로 보아 到底히 不可能하였다. 그러나 誠을 다하여 電氣, 電子 二科目 設置認可를 얻어냈다. 당시 鄭一權 國회의장님의 도움도 컸다. 한 때는 工業學校 運營에는 어렵다는 文敎部 存廢問題까지 나왔지만 最善의 努力으로 至今은 全校生이 卒業

후 全員 就業되는 唯一한 工業學校가 되었다. 누가 무어라 하여도 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세번째 속초인연(76年度)

76年度에 東商校에 再發令을 받았다. 學校에 發展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나는 決論을 내리었다. 즉 男女共學學則政改정안을 道에 提出 하였다. 그러나 道當局 이 生覺할 때는 그때만 하여도 風紀紊亂等으로 承認이 늦어 三年만에 許可를 받았다. 豫相대로 女學生의 支援이 많아 아주 큰 學校로 發展하였다. 靑峰健兒들이 團合된 힘을 모아 母校發展과 經濟人으로서 成功을 본다.

學校生活은 81年 8月 30日로 停年退職을 하였다. 道에서 퇴임자를 代表하여 答辭者로 정하였으니 答辭內容을 事前에 적어 보내라는 連絡이 왔다. 그리하여 江原道教育發展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急先務가 公正한 人事政策, 公正한 褒賞制度의 確立에 있다. 그러나 언제 公正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되어 서무 崔主事가 만든 答辭를 代談하고 온 것이 至今도 나의 原案대로 이르지 못한 것들이 기억으로 후회스럽게 남아있다.

東草가 絡着驛이 될 것인가?

나는 乙卯年 冬至달 利原大坪에서 古上에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 成長하였다. 中學時節은 問島龍井 大成 中學三學年때 同盟休學事件이 일어났다. 各農路에 事前 趣旨文을 直接 傳達하고 落葉지던 늦가을 休學을 斷行하였다. 때마침 만주 건국 十週年 記念日을 앞두고 當局은 우리 行動을 좋게 보지 않았다. 一週日後 問島省長 憲兵司領官이 直接 學校로 찾아와 解決方案을 題示하였다. 省長은 無條件 登校할 것 그렇지 않으면 廢校를 시키겠다 하고 憲兵司領官은 日本軍刀를 뽑아들고 하는 말이 이 滿洲建국을 위하여 日本軍百萬名을 이땅에 회생시키고 만주를 건국시켰다. 너희들은 機關銃으로 五分 사격하면 해결될 것이니 마음대

로 하라고 위협하고 朴在夏 校長은 동포의 피눈물로 만든 學校를 살려내라고 눈물로 呼訴하였다. 감격에 넘친 全校生은 울음바다를 만들었다. 여기에 뜻하지 않게 任員이 일어나서 無條件 登校할터이나 용서하여 달라고 背信하고 말았다. 休學同盟은 아무 성공도 못하고 말았다. 退學處分 五名中 내가 代表로 全校生에게 마지막 人事말을 하고 떠났다. 당시 자기 스스로 校庭에서 모자를 뜯어 버리고 떠난 學生만 하여도 20名은 되리라고 至今 생각이 난다. 퇴학맞은 우리 一行은 數千年을 흘러내리었는지 모를 海蘭江邊에 가서 우리 民族이 이 江물에 피눈물을 얼마나 흘리었을까. 하고 實感이 하였다. 우리는 돌을 모아놓고 맹세하기를 十年後 이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조君과 둘이서 放浪生活을 하였지만 너무도 고달퍼 눈물젖은 豆滿江을 넘어 고향에 돌아오고 말았다.

할아버지께 人事을 올리니 노여워서 人事도 받지 않던 일이 至今도 잊어지지 않는다. 그후 만주는 영원히 가지 못하고 친구 소식도 모르고 쌓아둔 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人生인가 보다. 그후 身分이 문제가 되어 겨우 日本에 갔다. 할 수 없이 千葉縣에 있는 明倫中學에 編入하였다. 이 學校는 한국에서 퇴학맞은 學生 集合所며 대만學生 日本學生이 어울려 다니는 學校였다. 당시 내가 한국學生 親睦會長을 맡아 일하였는데 말못할 일이 많았다. 至今 名簿를 보면 高城學生이 3名 있어 여러 곳으로 알아봐도 알 길이 없다. 子孫이라도 있을 터인데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다.

晚學徒로서 1941年度 東洋大學 拓殖科를 卒業하였다. 就業을 위하여 金融組合理事 滿洲動利會業公採에는 失敗하고 日本政府에서 陸海空省을 除外한 各省에 內鮮一體한 美名下에 若干名씩 公採한 바 있다. 多幸히도 農林部에 採用되어 水產課에서 勤務하게 되었다. 얼마 안되어 집에서 成興聯隊에 入隊하라

는 電報가 왔다. 당시 明治大學校講義室에서 유학생 學兵 當爲性 강의차 유력人事, 崔, 李先生이 왔었다. 學生들은 血稅를 받치면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한 것을 確約하라고 야단이었다. 나는 긴급동의를 要請하여 電報內容을 公開하고 이것은 日本의 기만政策이라고 抗議하자 參席한 閣僚들은 즉시 善處를 約束하였다. 이른 새벽에 고등계 형사가 찾아와서 당신 故鄉에도 그 連絡을 취하였으니 安心하라고 連絡하고 갔다. 그 후 집에서 便紙가 왔는데 주재소 소장이 정중히 사과하고 갔다고 消息이 왔었다. 農林部에 몸담고 있는 바람에 學兵徵用 等은 용케 면하게 되었다. 45年 3月 10日 밤 東萊에 대공습이 있었다. 당시 희생자가 20만이었다고 한다. 나는 그날 日直關係로 農林部에 나가니 청사는 불타 흔적도 없었다. 그자리에서 水產局長을 만나 口頭辭表를 내고 東萊驛로 갔다. 車票와 車도 탈 수 없었다. 驛은 연기속에 쌓여있고 말이 아니었다. 마침 海軍專用列車가 있기에 타고 인솔장교에게 身分證을 보이고 無事히 오사카驛에 도착되었으나 亦是 오사카는 불바다였다. 철도가 파괴되어 神戶까지 電車를 利用하여 시모노세키에 到着되었다. 여비는 麗水에 사는 靑年을 만나 도움을 받았다. 至今도 잊어지지 않는 것은 안부連絡船 刑事가 내 身分證을 보더니 一等席을 마련하여 주던 일과 그 一等席에는 關東軍呂司領官大將이 탔는데 中語工夫를 하기에 몇마디 가르쳐 주었더니 月給 500원을 줄터이니 滿洲를 같이 가자는 것이다. 돈 生覺은 꿀떡 같으나 日本이 亡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生覺하고 그만두었다.

집에 도착하니 戰爭末期라 形便이 없었고 더욱 집에 있을 수 없어 고민중에 新聞을 보니 朝鮮總聯盟 事業部長 鄭然基氏가 全北知事로 發令났기에 동경부터 잘 아는 處地라 일자리를 付託하였더니 총독부軍事授護會本部에 오라기에 가서 5個月만에 8·15解放이 되었다. 즉시 靑年會를 組織하여 와세다出身 崔相麟君이 會長을 맡고 내가 相務를 맡았다.

그러나 15名 以上の 生活對策이 없어 韓美親善 靑年大會를 3번 열고 上海에서 劇團運營을 하다 馬山巡回公演은 끝으로 도망하고 말았다. 至今 생각하면 事業的 머리가 없었다는 것이고. 軍政長官 하지 當時 어느 양조장과 청량리 고무공장을 얻었는데 한번도 가동하지 못하고 남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즉 父母에게서 온돈을 타서 學校다닌 멧터구리였다고 본다.

나는 골치아파 46年度 全南小鹿島更生園에 事務長職責을 맡고 떠나고 말았다.

小鹿島는 즉 나환자 收容所를 말한다. 시설로서는 당시 最大 요양소였다. 직원 300名, 患者 7000名 대규모의 病源이었다. 至今 後悔되는 것은 制憲初代口會議員選舉에 黃목사께 양보하고 그만둔 것이 一生의 生活길이 달라졌다. 當時 職員으로 있던 金寬洙 氏의 권유로 師範草創期에 敎職에 들어온 것이 一生 敎職生活로 끝을 마치게 되었다.

故鄉에는 영영 갈 수 없을가.

38線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민족 때문인가 國家 때문인가, 世界平和 때문인가. 우리民族은 정말 깊이 生覺하여 볼 때가 왔다. 양양南大川 연어떼는 母川을 찾아 수萬里길 찾아 오는데 38선도 없고 경비병도 없는 모양이지, 여우도 죽을 때면 首邱初心이란 말이 있다. 落葉도 歸根인데 이 무슨 모양인가. 解放후 고향에 잠깐 들렀다가 곧 38선이 해결될터이니 安心하십시요라고 離別한 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임진강 나루터에서 쏘련 軍 多發銃 세례를 받고 피발을 헤매면서 온 몸이 피안에 글키며 피로 물들인 것이 엇그제 같은데. 安史의 亂에 詩人 杜甫가 이런 句節을 지었다.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이라 歲月과 季節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天道가 無心치 않아 이 불쌍한 民族에게 하루속히 南北統一을 이루워 주기를 祈願할 뿐이다. 쓸말은 많으나 이만 끝을 마치기로 하겠다. 1995年 10月 20日 속초에서 씀.

殺身成仁의 美談 (고. 유정충선장의 義死)



李 泰 亨

■ 略歷

- 襄陽中·高等, 東草女中·高校 教師
- 東草教育廳獎學士
- 高城高等學校校監
- 江原道民防衛實教科教育講師
- (現) 東草專門大學講師
- 東草文化院理事

지금 60代 以上の 既成世帶는 日帝의 桎梏 속에서 植民地 教育을 받았다. 그 教育은 아끼즈가미(現人神)인 日皇을 盲崇하고 忠節을 바치는 所謂 皇民化教育이었지만 그 속에서 勤儉 節約 勞作하는 生活樣式(Life style)을 배운 것만은 事實이다.

日帝는 그 教育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小學校 教室 正面에는 日皇의 宮闕 即 니쥬바시(二重橋) 寫眞과 左側에는 性理學의 大家로 이기일물설(理氣一物說)을 主張한 李氏朝鮮의 大哲人 이퇴계(李退溪) 李滉先生의 肖像畫가 벽 가운데 걸려 있었다. 하필이면 日帝時 感受性에 銳敏한 어린이 教育現場에 被支配民族의 祖上인 李滉先生의 肖像畫를 鄭重히 걸고 教育의 象徵의 人物로 推仰하였을까? 支配民族의 自尊心을 버린채?

그것은 李滉先生이 陶山書院을 세우고 眞理를 理論에서 찾지 않고 실등 生活에서 찾은 한 人間의 勞力의 極致를 이룩함으로써 至極히 完熟하고 獨步的 境地를 開拓한 大家로 그 高邁한 思想이 日本에 傳해져 日本國民精神 教育에 絶對的인 影響을 줌으로서 日本精神文化의 根幹이 되고 그 文化創出의 비조(鼻祖)라 하여 當時 教師들은 李滉先生의 높고 깊은 學德을 極讚하는 美談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教室 右側에는 篤農家(篤農家)로서 낮에는 農事, 밤에는 工夫하는 소위 晝耕夜讀하여 指導者로 大成한 勤儉節約의 標本人인 니노미야손도꾸(二宮尊德)의 銅像寫眞(나무지게를 지고 冊보는 場面)을 걸어 놓고 「저 두 분

先覺者를 본받아야 한다」고 恒時 훈도(薰陶)하신 半世紀前 스승님들의 模倣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리고 1941年 11月 淸津에서 出港하여 니히가타로 航進中 機雷에 부딪쳐(當時 소련이 敷設한 機雷라고 報道됨) 沈沒한 게히마루(氣北丸)에서 婦女子와 少年者에게 救命袋를 讓步하고 배와 함께 殞命한 日人 大學生(고오트대학 철학과) 히로즈쇼오니(弘津正二)의 人間愛는 當時 日本國內은 勿論 全世界에 傳播되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오랫동안 평하게 하였다. 그 後 故人이 生前에 쓴 日記를 모아 出版한 것이 바로 「젊은 哲學徒의 手記」로서 그 冊은 旋風敵 人氣 속에서 賣盡되면서부터 日本人들의 窺대를 더 높게 하였고 故人은 殺身成仁의 典範으로 推仰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日本人들이 第2次 大戰의 慘敗를 克服하여 끊임없는 研究開發 合理的인 企業運營 徹底한 品質管理 誠實한 勤勞精神 등으로 世界 一等國家를 만든 것은 바로 美談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勇氣를 주고 마음을 淨化시키고 아름다운 꿈을 안겨주는 徹底한 日本教育의 德이며 힘이라고 確信한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美談의 對象이 없는가? 殺身成仁의 典範으로 昇華시킬 人物이 果然 없는 것인가? 아니다. 얼마든지 있다. 몇몇하게 자랑할 수 있는 節義의 根本이 된 象徴人物이 많다. 그 한 例로서 殺身成仁의 희생정신을 발취한 우리 고장 出身인 하나號의 故 劉正忠(劉楨忠) 船長의 義로운 죽음을 아니 들 수 없다.

1990年 3月 1日 濟州道 西南方 370哩 海域에서 激浪으로 遭難中 21名의 全船員을 下船시킨 後 劉船長은 繼續 救助緊急 信號를 發信하다가 沈沒하는 하나호와 함께 희생되었다. 故 劉船長의 죽음은 荒廢化 되어가는 人間性 失蹤의 우리 時代에 그는 責任感과 人間愛의 高貴한 빛을 던진 殺身成仁의 標本으로

로서 그 高邁한 일은 永遠히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숨쉬고 있을 것이다. 滅死奉公의 價値觀 確立을 絶對 強調한 日帝時 게히마루(氣北丸)와 함께 희생한 大學生의 人間愛 發露에 모두들 크게 놀라며 머리 숙였는데 하물며 人間不在 不協化의 病理現象으로 利己主義 思想이 지나치게 膨脹(彭湃)하여 私利私慾이 于先하는 오늘날 故 劉船長의 超人的 節概야말로 歷史에 남는 永遠不變한 거울(鑑)이 되고도 남는다.

1950年 12月 철부지 5歲때 3男妹와 함께 어머니의 손목을 꼭 붙잡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추운 겨울 自由를 찾아 死線을 넘어 越南한 劉船長은 어릴때 철없이 뛰놀던 정든 故鄉인 咸南 北靑郡 新浦里에 가고 싶은 失鄉民으로서의 가슴앓이를 치유(治癒)하지 못한 채 멍든 失鄉民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統一의 波濤를 타지 못한채 애석하게 너무 빨리 世上을 떠났다.

하나號를 몰고 海金剛과 元山灣을 거쳐 明太의 黃金漁場인 故鄉 新浦를 向해 航進하는 푸른 꿈을 實現하지 못하고 下直한 것을 슬프게 생각한다. 우리 모두 故人의 冥福을 다시 빌며 그의 人間愛가 우리들 教育現場에서 山 教材가 되어 靑少年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仁勇의 精神을 심어주는 教育風土가 造成되도록 힘쓰자. 美談이 없는 社會 美談이 없는 國家는 「가난하다」라는 教訓을 깊이 새기면서……

先進國일수록 美談을 所重히 여기며 그 美談을 통해 靑少年들에게 愛國과 自記 희생과 自負心의 高貴한 品性을 심어주고 있다.

筆者는 越南前 1946年 우리 民族의 스승인 古堂 曹晩植 先生이 領導한 朝鮮民主黨에 어린 나이로 入黨하여 反共戰線에 몸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때 先輩님들로부터 큰 影響을 받았다. 어느날 政治集會에서 學德이 높은 先輩님(朴仁俊…6·25後 被檢)의 美談事例 特講이 나의 心琴을 울렸다. 即 그 內容은 「물

이 새어 나오는 堤防의 구멍을 막아」祖國 네덜란드를 살린 스파담에 세운 피터少年의 銅像의 美談과 스탈린 時代(구소련) 굶주리는 家族을 위해 集團農場에서 食糧을 훔친 아버지를 계급의 敵으로 規定하여 當局에 告發함으로써 英雄이 된 8歲의 파블릭모로초프少年의 悖倫行爲를 暴露하는 內容이었는데 當時 先輩님은 自由와 共產 兩陣營에서 서로 崇尚하는 相反된 두 少年의 事例를 比較하면서 파블릭모로초프少年의 反人倫的 動作이 共產帝國 社會의 모순된 構造에 起因함을 逆說하였다.(現在는 「少年英雄」이 「悖倫兒」로 反轉 再評價되고 있음)

지난 1995年 1月 7日 밤 9時 KBS 第2放送에서 放映된 土曜名畫 「백야의 연인들」 속에 登場한 시베리아 強制收容所所長이 바로 8歲 때 아버지를 告發한 파블릭모로초프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서 筆者는 희미해 가는 지난 달 1946年 겨울밤 밖을 嚴重히 監視하면서 내 故鄉의 “최찬수” 先輩님 宅에서 進行된 反共集會 進行狀況을 回想하게 되었다.

피터少年의 그 強烈한 愛國心을 높이 評價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反共闘士(반공투사) 先輩님들(김성룡, 박인준, 황봉록, 박민국, 이승현, 김응철, 정주알, 김일갑, 이길언, 박동필, 정성봉, 최득봉, 김정복)의 얼굴이 생생하게 되살아 났다. 事實은 越南하여 알았지만 피터少年은 實存人物이 아니고 美國女性이 쓴 創作 童話冊에 「한스 블린카」에 나오는 架空人物이라는 것을 알았다. 순전히 꾸며낸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이 感動的인 이야기를 네덜란드 少年들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 스파담에 美談의 銅像을 세워 큰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이다.

筆者는 여기에서 네덜란드의 바다와의 영원한 鬭爭을 象徵하는 少年의 銅像을 세워 그 主人公의 愛國精神을 심어 주면서 發展하는 偉大한 네덜란드 國民情緒에 깊이 敬意를

表한다. 이와같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童話冊에 나오는 架空人物을 實存人物처럼 美化시켜 國民精神 培養에 산 標本으로 삼고 있는데! 그럼 果然 우리들은 어떠한가? 21名의 生命을 救하고 희생한 유선장의 義死를 다시 再照明하면서 보다 높은 次元으로 昇華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現在 속초시 금호동 靑草湖畔에 자리잡은 勤勞福祉會館 앞뜰에 東草水協이 主管이 되고 一部 水產業界의 뜻있는 사람들의 誠金으로 故人의 義로운 銅像이 서 있지만 유선장은 水產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象徴人物만 아니고 모든 市民들의 典型人物이 되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現收復塔 空地에 既存銅像을 옮기거나 새로운 銅像을 세워 한글과 英文으로 表記하여 널리 國內外에 弘報하는 것이 바로 智慧로운 市民의 姿勢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世界化로 가는 우리의 課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精神이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심어져 정말 殺身成仁의 典範으로 昇華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큰 자랑과 榮光으로 여기면서 後孫들에게 그 精神을 깊이 심어주자.

우리들의 永遠한 美談의 상징 人物로! 「美談은 우리에게 勇氣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淨化시키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을 안겨준다」는 教訓을 다시 吟味하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情緒를 키워 나가자. 그리고 浩浩蕩蕩한 東海의 水平文化와 絶景의 雪嶽山 垂直文化가 서로 調和되어 展開되는 自然美에 유정충 선장의 殺身成仁의 義死美談을 없애 가슴에 담아 한층 次元 높은 美의 極致로 昇華시킨다면 정말 錦上添花가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들의 큰 자랑이 될 것이다. 日本 東京驛에는 사람들의 視線을 끄는 塔이 있다. 東京驛을 통해 出退勤하는 主人을 따라 그 집 개(犬)는 驛에서 主人을 전송하였고 退勤時에도 驛에 가서 主人을 반갑게 맞이하였지만 不意의 事故로 그 主人이 作故하였는데도

每日 그 忠犬은 驛에서 寢食을 잇고 不撤晝夜 에타게 主人을 기다리다가 애절하게 죽었는바 모든 사람들은 主人에게 絶對 忠誠을 다 한 그 개(犬)의 美談을 높은 次元으로 昇華시키기 위해 세운 塔이 바로 東京驛의 忠犬塔인 것이다.

우리나라 楊口의 一線地域에도 國軍巡察兵들의 목숨을 救하고 처절(悽絶)하게 죽은 軍犬의 高貴한 忠犬塔이 서 있다 그러한 塔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21名の 人命을 救한 유선장의 義死는 정말 값있고 崇高한 殺身成仁의 典範이라는 것을 再三 切感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精神은 우리 地方의 貴重한 高次元의 價値를 지닌 文化財가 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地方化時代의 오늘날 各地方에서는 文化財의 潛在要素를 發掘하는데 渾身の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역역히 볼 수 있다. 어떤 地方에서는 보잘것 없는 文化財라 할지라도 針小棒大하여 自畫自讚하는 現實을 볼 수 있다. 그러한 模習은 可笑롭게 評價될 것이 아니라 地方文化發展에 寄與하고자 하는 地方民의 叡智의 能力 發露라고 믿어 높이 評價하고 싶다.

再論하지만 네덜란드 國民들의 온갖 精誠을 投資하여 피터 少年의 銅像을 세움으로서 愛國心 涵養과 더불어 國威를 世界에 宣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因하여 많은 國內外 觀光客을 誘致하게 된 事實을 우리는 큰 敎訓으로 받아드려 行動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다시 強調하지만 유정충 선장의 義死를 보다 높은 次元으로 昇華시키면서 우리의 蓄積된 愛鄉心에 불타는 叡智의 能力을 跳躍하는 束草發展에 바치자. 故 유선정이지여! 後世의 樂이 無窮하옵소서.

국립공원 설악산(11)

~ 구룡계곡(九龍溪谷)을 찾아 ~



박 의 훈

- 전직 교육자
- 현 속초시 노인학교장
- 속초도서관 교양한문 강좌
- 속초시 문화교육상 수상
- 서훈 국민훈장 목련장, 동백장 수상
- 강원도 노인 봉사왕상 수상
- 저서 “5분 교양”

우리 친산회원이 이 계곡을 찾기 시작한 것은 1994년 4월 20일부터였다. 이 계곡은 구룡령으로부터 양양 남대천(襄陽 南大川)에 이르기까지 140리가 넘는 60여키로에 이른다.

구룡령은 양양 현북면과 서면 사이에 있는 鷹伏山(응복산)과 함께 양양군과 洪川郡(홍천군)과의 分水嶺(분수령)을 이루고 있는데 모두 천미터가 넘는 高山(고산)들이다.

수많은 산 구비를 돌고 돌아서 넘어간다 해서 九龍嶺(구룡령)이라 부르고 있다. 이상하게도 嶺西(영서)쪽인 홍천 방면에는 흩이 나지 않고 嶺(영)東쪽인 양양땅에만 葛(葛)이 많다 해서 마을 이름까지 葛川里(갈천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葛川藥水(갈천약수)터

갈천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五色藥水(오색약수)보다 질이 좋은 약수가 나고 있었지만 머나먼 깊은 산골인데다가 交通(교통)이 불편해 병을 치료하러 가는 사람 외에는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襄陽서 洪川으로 通하는 56호 국도가 포장되고 부터는 갑자기 찾는 사람이 많아져 지금은 小都市(소도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부락에서 약수터까지 가는 길 양쪽에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조그마한 돌塔(탑)들이 觀客(관객)을 歡送(환송)이나 하는듯 늘어 서 있어 마치 절간을 찾아가는 기분이 든다.

약수터 주위에는 五百羅漢(오백나한)을 모신 듯 약수터가

아니라 탐골로 착각을 이르킬 정도로 온 골짜기가 돌탐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 수천에 달하는 탐들은 누가 세웠을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것은 갈천마을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관객을 끌기 위해 몇달을 두고 쌓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그마한 슈퍼집 주인 金能烈(김능렬·74) 씨에게 물어 보았더니 뜻밖에도 경기도 장호원에 산다는 이강일(55)이란 분이 매년 이곳을 찾아와 개울가에도 조그마한 움막을 짓고 라면으로 끼니를 이어가며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도록 몇달을 두고 쌓은 것이라 한다. 때로는 굶기도 한다는 것이다.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주위 만드니 길도 전보다 평평해져 보행에도 편리하고 주위 경관도 좋아져 한결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야말로 錦衣添化(금의첨화)격으로 자연에 人文(인문)을 繡(수) 놓은 셈이다.

이분은 물욕이 없는 사람으로 속세의 榮慾(영욕)을 버리고 돌탐 쌓는데만 전념하고 있어 마치 脫俗(탈속)한 土亭(토정)같은 奇人(기인)이라 했다.

우리 일행이 그곳을 찾은 것은 95년 7월 31일이었는데 사흘전에 그분의 맏아들이 승용차로 모셔갔다 했다. 그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이 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은 다행히 속초소방서 직원 일행 5명이 간호사까지 대동하고 산간오지까지 찾아다니며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까지 돌보고 있어 고마운 마음 금할길 없었다.

禪林院址(선림원지)

葛川里에서 양양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黃耳里(황이리)란 동리가 나오는데 왜 황이리라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선림원 사지란 표지판이 서 있는 곳에서 다리를 건

너 東쪽편 골자기를 약 2km쯤 들어가면 잡초육어진 곳에 여러 石造物(석조물)이 보인다. 그곳이 바로 선림원이란 절터이다. 복원공사가 지금 한창이었다.

이 골자기를 米川(미천)골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이 한창 번성할 때 수많은 승려들의 供養米(공양미) 씻은 물이 황이리 마을까지 흘러 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온다.

1985年 東國大學學術調查團發掘記(동국대학 학술조사단 발굴기)에 의하면 이 절은 합천 해인사를 창건한 順應法師(순응법사)가 참여했고 신라때 가장 유명했던 華嚴宗派(화엄종파)인 月精寺(월정사)계통이 지은 절이고 弘覺禪師(홍각선사)가 이 절에 住釋(주석)하면서부터 禪宗(선종)으로 바뀌어져 절의 면모는 一新(일신)되고 많은 승려들이 모여들어 공양미 씻은 물이 米川(미천)이란 이름까지 남기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이 절터에는 지금도 많은 石製物(석제물)들이 남아 있는데

- 三層石塔(삼층석탑) 444호)
- 石燈(석등) 445호)
- 弘覺禪師塔碑(홍각선사탑비) 446호)
- 浮屠(부도) 447호)



◆禪林院址 보물 446호 홍각선사 탑비

모두 寶物(보물)로 지정 보관되고 있다. 홍각선사의 비석은 山火(산화)로 파괴된 것을 朝鮮王朝(조선왕조) 21代 英祖(영조 23년 ... 1947)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8년전 양양부사 安慶運(안경운)이 서울로 移送(이송)했고, 국사의 碑銘(비명)은 陽刻(양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1948년 民家(민가)를 짓기 위해 집터를 닦다가 큰 梵鍾(범종)이 발견되었는데 돌레가 세아름 높이가 여섯자 종의 뒷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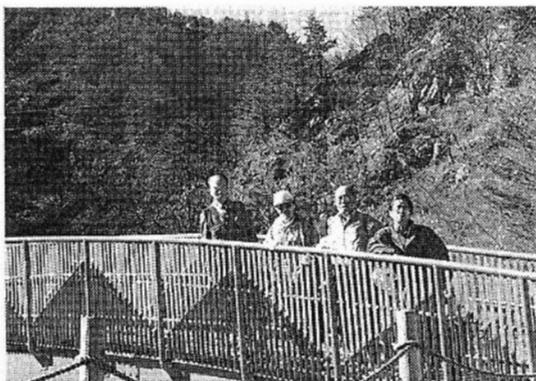
“貞元(정원)二十一年”

新羅哀莊王(신라애장왕)五年”이라고 쓰였는데.

그러니까 서기 804년으로 새겨져 있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190년전에 제조된 것이다.

이 종은 발견 당시 月精寺(월정사)로 옮겨 갔는데 6·25전쟁때 燒失破壞(소실파괴)되고 破片(파편)일부만을 서울로 갖어가 박물관에 보관중이라 한다. 鍾의 모양은 경주 박물관에 있는 종과 꼭같다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것이었으나 지금은 파편과 사진만 남아 있을 뿐이다.

米川골 自然休養林(자연휴양림)



◆米川自然休養林다리

선림원에서 江陵(강릉)방면을 향해 10리

가량 계곡으로 들어가면 토종 양봉가가 있는데 좁은 계곡에 벌통 2百여통이 서 있는 壯觀(장관)은 이곳이 아니면 보기드문 광경이다. 이 좁은 골짜기에서 2백여통이나 되는 벌들의 蜜源(밀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생겼는데 양양문화원장 高慶在(고경재) 씨 말에 의하면 黃耳里(황이리)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높은 산봉이 천개나 되는데 벌들의 활동 거리가 10리 밖에 되지 않지만 2백통 정도의 양봉은 무난하다 했다.



◆米川골 土種벌통

거기서부터는 강릉영림사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지대인데 體育鍛鍊場(체육단련장),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많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수백년 묵은 나무들이 울창한 데다가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기암괴석들이 많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驚歎(경탄)케 한다.

그 부근에는 鐵·銅(철·동)이 많아 옛 사람들이 쇠를 녹이던 용광로터가 발견되었고 6·25전까지만 해도 民家(민가)가 70여호나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론지 다 떠나고 이름모를 산새들이 지저귀고 물소리만 들릴 뿐이다.

황이리에서 양양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西林里(서림리)다. 現西分校 運動場(현서분교

운동장) 한 구석에 石佛(석불)과 三層石塔(삼층석탑)이 눈에 뜨인다. 이 석불과 석탑들은 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논둑에 放置(방치)되어 있는 것을 1965년 6월 25일 당시 현서국민학교(지금은 분교장) 교장 崔正圭(최정규) 씨가 부락민을 동원하여 학교에 옮겨 두었다 한다.



◆自然休養林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본다면 서림리도 옛 절터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百(백)년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現山誌(현산지)에

小林寺 在府西四十里 西林之南 今廢己卯巳月 西林 民人 偶於崑崖 得鉢一竹少無腐云

서림사는 양양부 서쪽 四十里되는 서림리의 남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사가 되었다. 기묘년 어느달 서림리 사람이 바위 밑에서 석로 만든 검은 바릿대(절간에서 쓰는 식기)와 대 막대 하나를 주었는데 조금도 부패되지 않았다.

이 기록역시 서림리에 서림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골자기는 위에 기록한 외에도 많은 승지와 유적이 있는가 하면 도처가 선경인데다가 물이 맑고 공기가 깨끗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적지로 생각된다. 이런 곳에 댐을 만든다 하니 현재 우리 세대에겐 이로우지 모르나 百年 千年 뒤를 생각한다면 후손들에게 큰 죄악이요 이 아름다운 山河(산하)가 水中孤魂(수중고혼)이 되고 만다고 생각하니 아픈 마음 금할 길 없다. “자연은 우리 자손만대의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 힘모아 지킵시다.”

제15회 대보름민속놀이 경연대회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멸되어가는 전통 민속놀이를 재현,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 2월 12일(일요일·보름 14일) 수북탑옆 매립광장에서 속초신협과 축협, 협찬과 농협과 국민은행 속초지점의 후원을 받아 각동에서 대표 선수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등 행사를 가졌다.

속초시장과 교육장의 축사로 시작, 대회장 주변은 먹거리 잔치로 흥을 돋구면서 전통민속의 재현에 이바지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방패연

- ▲일반부 ①김민식(도문동) ②김주원(도문동)
③김세환(도문동)

◇ 가오리연

- ▲일반부=①김정환(동명동) ②전상원(금호동)
▲학생부=①김상섭(조양동) ②서정효(교동)
③이준희(조양동)

◇ 제기차기

- ▲농고차기=①전현수(속중) ②장두성(설중)
▲들고차기=①장두성(설중) ②김영욱(속중)

◇ 연제작 우수상

- ▲서용철(교동)



傳統婚姻儀禮



이 종 옥

- 韓國典禮研究院 禮節大學修了
- 成均館大學校 儒學大學院修了
- 宗廟大祭運營委員
- 全國進士同門會副會長
- 儒學大學院同門會副會長
- 禮節大學自治會會長
- 成均館進士, 儀禮士

古代의 婚姻禮를 살펴보면 男子와 女子가 짝을 지어 夫婦가 되는것을 陽과 陰이 만난다하여 陽인 낮과 陰인 밤이 만나는 날이 저르는 時間에 禮를 올리고 宗族 保存을 爲하여 즉시 新房을 차려 들게함이므로 날저물혼(昏)字를 써서 昏禮라 하였다. 至今도 中國에서는 날저른 時間에 婚姻禮를 올리고 新房을 차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婚姻을 結婚이라하는데 男女가 만나 夫婦가 되는것을 婚姻이라 한다.

婚은 男子가 장가 간다는 뜻이요 姻은 女子가 시집간다는 뜻이므로 우리나라 憲法에도 婚姻이라 明示하였고 現在 禮式場 허가도 婚姻禮式場이며 시행령에도 婚姻이라고 있다. 結婚이란 用語는 日本侵略으로 因하여 普及되었고 8.15光復以後 外來文化가 밀려들어와 禮式場이 亂舞하면서 傳統 婚姻禮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또한 結婚은 男子가 장가 간다는 뜻만있어 男尊女卑社會에서 쓰여지는 말로서 男子측 祝賀金을 傳할때 “祝結婚”이라 쓰는것이 當然할지 몰라도 女子측 祝賀金을 傳할때 “祝結婚”이라 쓰게되면 큰 缺禮가 될것이다. 男子共히 “祝婚姻”이라 쓰는것이 兩측에 該當되는 禮라 할 수 있다.

婚姻禮는 三誓精神과 平等精神이 具現되어야 한다. 三誓精神이란 誓父母(自己를 存在하게 하신 祖上과 父母에게 誓約한다.) 誓天地禮(陽과 陰의 基本인 天地神明에게 誓約한다) 誓配偶禮(서로 夫婦가 되는 配偶者끼리 誓約한다) 平等精神이란 婚姻則 男女合體之儀 男女合體則 男尊則女

尊 男卑則女卑(남녀가 몸을 합해서夫婦가 되면 남편이 높으면 아내도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도 낮다)라하여 婚姻하기 前에는 身分이나 나이에 離別이 없더라도 夫婦가 이루어지게 되면 平等하다. 이와같이 嚴激한 精神으로 結合한 夫婦가 健全하고 安樂한 平生의 家庭을 營爲하게 될것이다. 現在 이루어지는 夫婦關係는 男女의 사랑만으로 禮式場에서 간단한 儀式인 主禮의 結婚誓約만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急激한 離婚의 事態가 날로 增加 趨勢라 본다.

傳統 婚姻禮의 節次를 살펴보면 朱子家禮를 崇尚하면서도 六禮를 갖추어 男子측에서 請婚하여 女子측에서 許婚하는 “婚談” 卽 子の 生年月日을 적은 四柱를 보내는 “納采” 女子측에서 男子측에 婚姻日字를 定해 알리는 “納期” 男子측에서 女子측에 禮物를 보내는 “納幣” 新郎이 新婦의 집에 가서 夫婦가 되는 儀式을 行하는 “大禮” 新婦가 新郎을 따라 媳宅으로 들어가는 “于歸”의 順으로 婚姻禮가 이루어지며 特히 女子측에서 擇日을 하는 理由는 婚姻準備의 複雜함이나 生理現像等を 考慮하여 女子측에서 定하고 場所의 準備는 男子측에서 한다.

大禮의 節次를 살펴보면

*行醮禮：新郎 新婦가 각기 父母의 教訓을 받는 儀式(醮子禮, 醮女禮라 함)

*行新迎禮：新郎이 新婦宅에 가서 新婦를 맞이하는 儀式

*行奠雁禮：新郎이 新婦宅에 가서 원앙같이 살것음을 다짐하며 기러기를 드리는 儀式

*行文拜禮：新郎과 新婦가 처음만나 맞절로 인사하는 儀式

*誓天地禮：新郎과 新婦가 天地神明에게 誓約하는 儀式

*誓配偶禮：新郎과 新婦가 配偶者에게 誓約하고 誓約을 받아들이는 儀式

*雋拜禮：하나의 박이 두개의 바가지로 나뉘었다가 원자리로 돌아와 하나가 되었음을 宣言하는 儀式

이와 같이 婚姻은 人倫之大事라 하여 新郎은 벼슬한분의 平常服인 冠服을 입게 하였고 新婦는 內命婦 外命婦가 입는 圓衫을 입게하여 聖스럽고 嚴肅하게 行하도록 나라에서 許用하였다. 特히 注意할점은 雋拜禮에 使用한 표주박은 合하여 平生동안 保管하였다가 어느 한편이 離別하게되면 그 표주박 반쪽을 깨고 (상장례시 방에서 관이 나갈때) 離別 하는데 쓰게 된다.

이와 같은 儀式은 東方禮意之國 뜻 그대로 禮俗을 바르게 嚴肅하게 치루어지는 禮라 할 수 있다.

現在 禮式場에서 婚姻禮를 치룸에 있어 位次는 지켜져야 한다. 婚姻禮는 吉事임으로 凶事의 位置(吉事의 反對)에서 치루어진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사람의 位置에 서게된다. 婚姻禮에서 主禮의 左側은 東이요 東은 陽이 됨으로 新郎은 主禮의 左側에 右側은 西로 西는 陰이됨으로 新婦는 主禮의 右側에 新郎父母는 新郎側에 新婦父母는 新郎側에 앉아야 儀禮의 位次가 된다. 火燭도 乾은 紅이요 坤은 靑이므로 紅色의 燭은 新郎側에 靑色의 燭은 新婦側에 놓아야 陰陽의 理致에 맞다. 婚姻禮外 各種紀念式 및 會議場所도 陰陽과 乾坤의 理致 맞도록 本部席의 右側에 社會者席을 設置함이 當然하다.

점차 道德의 馥廢 倫理의 崩壞 人性의 亡失로 社會性을 喪失한 現實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傳統禮節을 찾아 道德性을 四復할때다.

■ 창작시

길

장작으로 방 텨하던 무렵
그렇게도 선명했던 그 야산으로 가던 길.
순하던 산길이
사나워졌네, 생목 울타리 사라지면서
아궁이, 가마솥이 잊혀지자
마을과 멀어질수록 서서히 희미해진거야.
마음 다잡고 더 올라가니
산정으로 가는 길 아예 끊어져 버리고.
인적 그친 야산엔 나무끼리 따스한 등 기대고
제 품에 새들의 등지를 온전히 허락했네.
마음의 터를 찾아 오른 나의
자잘한 근심들을 내려놓아도 좋을 듯 하여
고요에 눕진한 마음 풀어놓았네.
내 안에 이따금씩 새들이 푸드득 날기를 희망하며.
이 세상의 길들은 처음엔 모두 낮설고,
차차 낮익은 길이 될테지만
매론 낮익은 길이
마음의 발길 뜰해지면 낯선 길이 되는 것을.



채 재 순

약 력

- 강원 원주 출생
- 춘천교대, 방송통신대학 국문과 졸업
- 설악문우회 회원
- 시문학으로 등단
- 현재 교동국민학교 교사

■ 창작시

비무장 지대 산불

— 눈물의 불이, 불의 눈물이 휘발성의 생에 바람부네 —

김 창 균

인간의 슬픔을 대신우는 짐승들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채 서성대는

비무장 지대에서 생은 하나 둘

발목 지뢰를 밟네.

이 당의 편견을 전복시켜

사랑이 완성될때까지

오, 끝이 둥근 저

비무장지대 산불은 국경을 넘어

가시 덩불을 태우고

국경의 산과 나무를 밀며,

제 서있는 땅을 억세게 움켜잡고 농을 줄 모른

사람을 밀며,

밀며 타네.

약 력

- 1966년 강원 진부生
- 1985년 강릉고卒
- 1988년 MBC청소년문학상수상
- 1989년 공동시집 「더 큰 바다로 가는길」(도서출판'청맥')
- 1991년 강원대 국어교육과 卒
- 현) 속초상고 교사

빛속에서

또 한 꽃잎이 지는군요

최 광 호

괴로워할 뿐

시간은 가는 것,

날개를 적신 새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다시 바다로 나옵니다

때문에 떠난다는 식의 말을 마친 뒤

갯배를 오르던 그대

얼마나 긴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물과 공기만으로 양식 삼으며

지하실 찾집

약 력

병속에 갇힌 꽃처럼 산다는,

- 1966년 속초생
- 1990년 강원일보신춘문예당선
- 1993년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주
- 현) 설악신문사 근무

먼 소문 빛소리에 들리어

그대 행복이 나의 슬픔일 때

사랑이어,

이렇게 또 한 바람이 지나가는군요.

■ 창작시

시 섬

들녘에선

파도 소리가 난다

거실 바닥으로 어둠이 스러지고

카펫 한 끝에서 그리움이 불그레 타들어가는 저녁

들판에 홀로 서도

바다되어 차오르는 칼바람에 전될 수 있음은

이 들판을 그리워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움 속에선 그리움을 모른다

지난 다음에야 그리움을 깨닫게 되는 건

오늘에 떠 밀려

뿌리 없이

단지 삭아지는 기둥에만 의지하여 떠 다니기 때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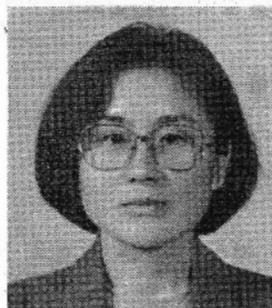
들녘에 떠 있다가

우린 또 어떤 그리움 속으로 들어가

이 들녘을 그리워하며

갈기를 찢기울건가

그리움에 떠 다니는 우리는 섬이다.



지 영 희

약 력

- 설악문우회회원
- 속초시교동현대2차APT203동 1304호

■ 창작시

벽

- 동백꽃을 위하여

여수에 갔었을 때
너는 미소로 마음을 열며
내게 다가왔는데
오늘 水國에서는
굳은 얼굴 꼭다문 입술로
끝내 속을 보이지 않는구나



김 승 기

까맣게 속을 태우며
키워온 씨앗
이제 그 속을 내밀어 뱉아낼 때 되었지
그래, 힘차게 열어젖히는 거야
달렸던 문 열리며 쏟아낼 환희
너의 속살이 사뭇 궁금하구나

약 력

- 속초출생
- '90년 『교육정론』창간호에 『물』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
- '95년 『순수문학』신인작품상 수상
- '95년 『시마을』신인작품상 수상
- 現 물소리시낭송회 총무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감사
강원도속초교육청 제직

■ 창작시

갈대들의 노래

-남대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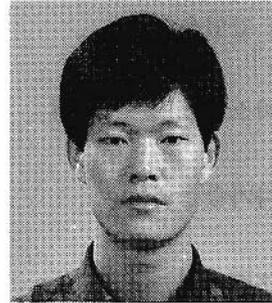
흘러야 한다
어디든
아래로
강물은
흘러야 한다

상류에서 허물어져
떠 내려온 퇴적의 수렁
흐름의 번두리로
밀려난 강둑에서
함초름 갈대꽃 피어났다

침묵의 창 열리면
먼 산 나무
안으로 쌓은 고독의 두께
가지 그트 잎새들의
서걱대는 수근거림

상처뿐인 언덕에서
서로 부비며 살아온 날들
건조한 태양 아래
목마름에 허덕이는
야원 갈대들의 노래

불어야 한다
먹구름 몰아
환하게 씻어내릴 곳으로
바람은
불어야 한다



정 희 섭

약 력

- 속초출생
- '95년 8월3일 『詩와 詩學 교실』 백일장 차상 입상
- 現 물소리詩낭송회 회원
설피·알파인 클럽 회원
HAM회원
월간 『사람과 산』주재 기자

■ 창작시

반 평의 자리

쇠불이로 삶을 캐는

좁은 공간엔 늘

발길이 춤을 춘다

쟁기에 날을 세워 작은 터를 일구면

분주한 걸음으로 저마다

마음을 심고 가는 길목

쇠불이로 삶을 캐는

영글어야 할 實相을 위해

땀 베인 삶을 詩로 싹틔운다



박 은 남

약 력

- 양양출생
- 現 물소리 詩낭송회 회원
- 양양 『한일철물』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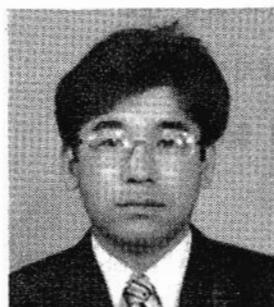
■ 창작시

바 다

때로는 가늘게 유혹하고
때로는 큰 목소리로 꾸짖는 파도소리

희망과 절망
성공과 좌절의 꿈틀거림은
커다란 용광로에 용해되어
잔잔한 떨림과 파란 일렁임이 되고

밤 별의 빛으로 일구어낸 풍경은
우주의 저편, 의식의 뒤편길
어머니의 품



이 상 호

약 력

- 양양출생
- 現 물소리詩낭송회 회원
양양군청 재무과 재직

■ 창작시

아침을 건져 올리는 바다

하늘과 바다 천년 눈맞춤 하더니
타오르는 가슴 한 빛깔 되었네
바다 저 끝 솟아 오르는 햇살
누가 이 아침 서로 몸 부비며
사랑의 불 지피고 있는 걸까?

갈매기 떼는
아침 노을을 손수건처럼 입에 문채
조각 구름 되어 흩어졌다가 다시 날아들고

바닷가 아이들은 이른 새벽
수평선을 밧줄로 잡아 당기며
발아래 파도가 까마득 무서움으로
들아눕는줄도 모른채
등대가 있는 방파제 끝에서
술레 잡기를 한다.

밤을 밝혀 눈이 충혈된 어부들은
윤기 오른 팔로 파도 가르며
무지개빛 비늘 퍼덕이는 아침을 건져 올리고

새벽 안내가 소문처럼 번져나가는 포구의 아침
하늘과 바다 천년 입맞춤 하던자리
누가 이아침 사랑의 불지피며
바다끝에서 꿈틀거리며 일어서려고 하는가



권 정 남

약 력

- 경북출생
- “시와의식”으로 등단
- “속초바람” 시집 출간
- 설악문우회 회원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창작시

날지 못하는 새

둥지 밖을 모르고
어둠 앞던 작은 새
문득 어느날 깊은 잠 깨어
가슴에 젖어드는 햇살 한 자락
너무도 아름다워
울음소리로 하늘을 채웠다



최 숙 자

그는 몰랐다
자신이 날 수 없는 새인줄
지상을 박차고 솟아올라
비상하는 새들을 보고서야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리 보지만
날개는 퍼질 줄 모른다

어둠 털고 일어나
무한한 창공에
마음껏 날아올랐다가
황혼에 몸을 기대고
눈부신 것을 털고 싶지만
그것은 날지 못하는 새의 꿈

약 력

- 강릉출생
- '93년 전국편지쓰기대회 장려상
- '95년 교차로 신문 생활수기 우수상
- '95년 사임당백일장 수필부문 장원
- 現 물소리詩낭송회 회원
전국 편지가족모임 회원
강원일보 주부리포터

■ 창작시

바다에 나간다

봄 가고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아득하고 긴 자전에 실려

한 점으로 내가 썼네

미움을 띄우러 바다에 나간다

내것 네것 몽땅 띄어 보내자

미움은 파도에 행구어져

쪽빛이 되었다

내것 네것 엉키었다

발목을 간지르는 표백된 마음

미운사람 용서하는 법 배우러

바다에 나간다.



李 玖 宰

* 약 력 *

- 평북강계출생
- 1979년 「시문학」으로 등단
- 1984년 「주문진항」 1991년 「나무들의 웃음」시집 출간
- 제10회 강원 문학상 수상
- 한국문협, 기독교문협, 국제펜 한국본부 정회원, 현대시협 회원
- 관동문학, 석악문우회, 산까치, 해안문학 동인
- 영랑 국민학교 상설짓기반 강사
- 강릉시 주문진읍 333-23

東學革命 遺跡地를 찾아서

金 鎬 應
文化院 事務局長

10월18일 아침7시 관광전세버스에 분승한 문화가족 40명은 속초를 출발, 안개가 자욱한 미시령을 넘어 동학혁명 유적지인 전북 정읍을 향해 떠났다. 일행중엔 지역 원로인 金兌淙씨를 비롯 韓高本씨, 吳勢夏씨등이 참여해 문화유적 순례단원들의 비중을 무겁게했다. 인솔책임은 본원 이사 金錫圭선생이 맡았다. 관광버스에 탄 일행은 보통학교 시절 동심세계로 돌아와 들뜬마음으로 안개가 자욱한 미시령 정상의 단풍을 보고 감탄과 환성이 터지면서 유쾌하고 마음 설레이는 2박3일간의 여정에 올랐다.

본원 朴政基이사(基子유통상사 대표)가 순식물성 음료 5백병(20만원 상당), 金光洙 본원이사(속초자동차학원장)는 5만원어치의 음료수, 朴相福이사(의료보험 대표이사)는 3만원어치의 음료수를 기탁해 일행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큰 박수를 받았고 崔龍文원장의 무사히 잘다녀 오시라는 인사가 있었다.

본원 향토문화학교 강사인 崔捧河씨와 張恩善본원 간사가 일행의 시중을 열심히 하여 환영을 받기도 했다. 오전 8시반 인제읍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들었다. 아침식사때 경월양조장에서 보낸 소주와 맥주로 아침 해장할때 기분은 천하를 다연은 호걸같은 느낌을 가져 흐뭇했다. 역사의 유적지 연구에 몰두했더 李虎舜선생(전 속초상고교장)이 출발 전날 속이 좋지않아(복통) 동행하지 못해 서운했으나 본원 金雲川이사와 朴영도씨(영랑동 양우APT C동 805호)가 동학혁명의 유래와 역사적 의의, 그 교훈등을 장장 10여시간동안 설명해 여행의 지루함을 달래 주어 보람

을 느끼게 했다. 또 대청관광(주) 박춘在사장은 안내원 임무를 자청해 이번 여행을 더욱 즐겁게 했다. 현지에 도착, 정읍문화원에 안내와 설명을 요청했으나 향토축제 관계로 도착 당일의 협조는 어렵다고 말해 부득히 서울대 愼鏞慶교수의 연구논문으로 현장 학습을 대신하기로 했다.

愼교수의 예리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學農民革命運動의 歷史的 再照明

1. 머리말

1894년 한 해에 한국민족이 겪은 역사적 경험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東學農民革命運動이 이 해의 大激變의 시작과 중심을 이룬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東學革命運動이 한국민족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2. 東學農民革命運動의 4단계

넓은 의미의 東學農民革命運動은 그 전체적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古阜民亂’의 단계이다. 이것은 전라도 古阜에서 탐관군수 趙乘甲과 舊體制의 가렴주구에 견디지 못한 농민 약 1천명이 全琫準을 대표로 추대하고 古阜郡衙를 습격하여 탐관오리들을 징계하고 군수 조병갑이 수탈해 간 水稅등이 양곡을 原主人에게 돌려 주었다가 郡守가 교체되고 신임군수 朴源明이 古阜군 농민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민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해산한 ‘民擾’의 단계이다. 이것은 아직 農民革命運動이나 농민전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전주곡에 해당하는 小民亂 또는 小暴動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94년 음력 1월11일(양력 2월17일)경부터 3월3일(양력 4월8일)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제2단계는 東學農民革命運動의 제1차 봉기의 단계이다. 이것은 전라도 일대의 농민들이 全琫準·孫化中·金開男등의 지도하에 茂長에 남접도소를 설치하고 봉기 준비를 하여 동학 교도를 중심으로 한 약 4천명의 東學農民軍을 편성해서 茂長에서 起砲하여 먼저 古阜를 점령하고 黃土峴전투에서 營兵을 쳐 부순후 약 20개의 고을의 官衙를 점령하고 다시 黃龍村전투에서 京軍을 격파한 다음 전라도 수도인 全州에 入城한 단계이다. 이 단계로부터 본격적인 東學農民革命運動이 시작되었다. 1894년 음력 3월20일(일설 3월21일, 양력 4월25일)부터 동년 5월7일(양력 6월10일)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제3단계는 東學農民革命運動의 ‘執網所 시기’이다. 이것은 淸國軍과 日本軍이 東學農民革命運動에 개입하여 조선에 침입하자 두나라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東學農民軍과 官軍 사이에 ‘全州和約’이 성립되고, 그 결과 동학농민군이 형식상 자진해산하여 외국군 철수의 조건을 만들면서 전라도 53개 郡縣에 ‘執網所’를 설치해서 農民統治를 실시하던 단계이다. 1894년 음력 5월8일(양력 6월11일)부터 동년 9월12일(양력 10월10일)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제4단계는 東學農民革命運動의 제2차 봉기의 단계이다. 이것은 조선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日本軍이 끝까지 철병하지 않고 도리어 조선에서 汎關을 자행하여 마음대로 정권을 농단함과 동시에 조선에서 淸日戰爭을 도발하여 남의 국토를 전장으로 만들자, 全琫準의 지휘하에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여 日本軍을 한반도에서 몰

아내기 위해 血戰을 전개한 단계이다. 1894년 음력 9월13일(양력 10월11일)부터 동년 연말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東學農民革命運動은 이 4단계를 거쳐 전개되면서 제2단계인 제1차 봉기 때부터 舊體制 해체를 겨냥한 본격적 革命運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舊體制的 해체와 執網所의 통치

東學農民革命運動의 혁명적 성격은 적어도 제1차 봉기(제2단계)때부터는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1차 봉기 때의 문서들은 동학농민군 자신이 ‘農民革命’을 목표로 봉기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동학농민군이 1894년 음력 3월20일 茂長에서 4천명의 병력으로 봉기한 후 古阜로 진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白山에서 3월25일경 동학 농민군을 약 7천명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동학농민군의 ‘四大名義’를 공표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동학농민군의 혁명 의지가 천명되어 있었다.

- 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大殺人 不殺物)
 - ② 충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다(忠孝雙全 濟世安民)
 - ③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어 없애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逐滅倭夷 澄清聖道)
 - ④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驅兵入京 盡滅權貴)¹⁾
- 위의 四大名義 중에서 제4항인 “군대를 몰고 서울로 돌아가서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는 조항은 舊體制(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양시양 레짐)의 골간인 閔妃守舊政權과 兩班貴族을 모두 진멸하겠다는 동학농민군의 反封建的 革命的 目標을 강령적으로 명료하

게 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3항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어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는 조항은 개항 후부터 1894년 당시까지 국내에 침투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몰아내려는 反侵略·反帝國主義 민족투쟁의 의지를 명료하게 천명하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군이 백산에서 음력 3월27일경 호남 일대와 전국에 발송한 다음의 檄文도 동학농민군의 혁명 의지를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우리가 義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단단 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도탄중에서 건지한 國家를 반석위에다 두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官吏의 머리를 베히고 밖으로는 횡포한 強敵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다. 兩班과 當豪의 앞에 고통을 받는 民衆들과 方伯과 守令의 밑에 굴욕을 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 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다.

甲午 月 日
湖南倡義大將在白山²⁾

이 격문을 읽어 보면, 동학농민군의 봉기의 본의는 民衆을 도탄중에서 건지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몰아내어 國家를 반석 위에 두려는 혁명을 일으키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봉기의 적대관계를 밖으로는 일본 침략세력 대 한국민족, 안으로는 兩班·當豪 대 民衆(그리고 傍白·守令 對 少吏)으로 설정하고 있음이 천명되고 있다.

동학농민군은 3월20일 제1차 봉기 후 전라도 군현을 점령하여 조선왕조정부가 임명한 합법적 지방행정기관들과 지방관들을 모두 부정하고, 점령지역에서 兩班官僚의 舊體制的 행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붕괴시켰으며, 그대신 동학농민군의 관점에서 정당하다

1) 鄭喬, 『大韓季年史』(국사편찬위원회 판), 상권, p.74.

2) 吳知泳, 『刊行本 東學史』, 1940, p.112.

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윤휴민막의 교정사업을 단행하였다. 또한 동학농민군은 이때 서울로 들어가서 盡滅權貴하겠다고 선언했었으므로, 閔妃守舊政權을 권력의 골간으로 한 舊體制를 타도하기 위한 革命運動을 시작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동학농민군은 제3단계의 執網所 농민통치의 시기에는 더욱 단호하게 舊體制를 위한 농민통치를 단행하였다.

舊體制的 골간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①社會身分制度 ②封建的 地主制度 ③專制君主制度 ④封建的 收取制度 등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執網所는 요강을 정하여 폐정개혁을 단행했는데, 『東學史』 草矯本과 刊行本을 통하여 그 요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草矯本 ³⁾	刊行本 ⁴⁾
제1조	人命을 濫殺한 자는 버릴 事	道人和 政府 사이에는 宿嫌을 蕩滌하고 庶政을 協力할 事
제2조	貧官汚吏는 祛根할 事	貧官汚吏는 그 罪目을 查得하여 嚴懲할 事
제3조	橫幅한 當豪輩를 嚴懲할 事	橫幅한 當豪輩는 嚴懲할 事
제4조	儒林과 兩班輩의 巢窟을 討滅할 事	不良한 儒林과 兩班輩는 懲習할 事
제5조	殘民等의 軍案은 불지를 事	奴婢文書는 燒祛할 事
제6조	종 文書는 불지를 事	七班淺人의 待遇는 改善하고 白丁頭上에 平壤笠은 脫去할 事
제7조	白丁의 머리에 패랭이를 벗기고 갓을 써을 事	青春募婦는 改嫁를 許할 事
제8조	無名雜說등은 革罷할 事	無名雜說는 一并革罷할 事
제9조	公社債를 勿論하고 過去의 것은 并勿 施할 事	官吏採用은 地閔을 打破하고 人材를 登用할 事
제10조	外敵과 連絡하는 자는 버릴 事	0과 奸通하는 者는 嚴懲할 事
제11조	土地는 平均分作으로 할 事	公社債를 勿論하고 己往의 것은 并勿 施할 事
제12조	農軍의 두레法은 장려할 事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事

먼저 舊體制 중의 社會身分制度 해체의 부분을 보면, 執網所의 폐정개혁 요강 중에서 社會身分制度 廢止와 身分解放에 관한 것이 刊行本の ④⑤⑥⑦⑨의 5개 조항, 草矯本の ④⑥⑨의 3개 조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동학농민군의 執網所는 폐정개혁 요강 중에서 ①불량한 兩班들의 응징 ②유림과 兩班들의 소굴의 토멸 ③地閔의 타파와 兩班身分制度의 폐지 ④奴婢문서의 소각과 奴婢解放 ⑤七班賤人의 解放 ⑥白丁에 대한 차별대우의 폐지 ⑦청춘과부의 改嫁의 허용 등을 실행한 것이었다.

黃玿의 『梧下記聞』은 執網所 시기 동학농민군의 社會身分 解放運動에 대하여 당시 다음과 같은 관찰기록을 남겨 놓았다.

3) 『草矯本 東學史』, 1924, 제3책, pp.43~44.

4) 『刊行本 東學史』, pp.126~127.

賊黨(동학농민군:인용자)은 모두 賤人奴隸이므로 兩班士族을 가장 증오하였다. 그래서 兩班을 나타내는 뽕죽관을 쓴 자를 만나면 곧바로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도 역시 兩班인가'하고 冠을 벗기어 빼앗아 버리거나 또는 그 冠을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兩班을 욕주었다.

무릇 집안의 奴婢로서 도적들(동학농민군:인용자)을 따르는 자는 물론이요, 비록 도적들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 지극히 賤한 자가 主人을 위협 강제하여 奴婢文券을 불사르고 良人됨을 강제로 승인케 하거나 또는 그 主人을 결박하여 주리를 틀고 곤장과 매를 치기도 하였다. 이에 奴婢를 가진 자들은 바람에 따라 奴婢文券을 불살라서 그禍를 덜었다. (奴婢로서)삼가는 자가 혹시(奴婢文券을) 불사르지 말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러나 氣焰이 널리 맹렬하게 타고르고 있어서 主人이 더욱 이를 두려워 하였다.

혹은 奴와 士族主人이 모두 함께 도적을 따르는 경우에서 서로(평등하게) 接長이라 칭하면서 그들의 법을 따랐다. 屠漢(白丁)才人 등 속의 무리도 역시 平民士族과 평등하게 같이 禮를 했으므로, 사람들이 더욱 치를 떨었다.⁵⁾

황현의 당시의 이 관찰과 증언 기록은 ① 동학농민군이 兩班身分制度를 부정하고 兩班을 욕주었으며, ② 동학농민군에 가담한 奴婢는 물론이요 가담하지 않은 奴婢들까지도 主人을 위협하여 강제로 奴婢문서를 불사르게 하고 從良(良人됨)을 승인케 하여 奴婢解放을 쟁취했고, ③ 奴婢의 主人이 멈칫거릴 때에는 그 奴婢가 主人을 결박하여 주리를 틀고 곤장을 쳤으며, ④ 奴婢들의 身解放運動에 놀란 奴婢의 主人이 화를 덜려고 스스로 자진해서 奴婢文書를 불살라 奴婢解放을 승인했고, ⑤ 때로는 奴婢가 奴婢文書를 불사르지 말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거세게 불타오르는

奴婢解放運動의 기염에 겁을 먹은 奴婢主人들이 더욱 두려워하여 자기의 奴婢들을 解放시켰으며, ⑥ 奴婢와 그 兩班身分의 主人이 함께 東學農民軍을 따르는 경우에는 서로 평등하게 '接長'이라고 부르면서 平等한 예를 했고, ⑦ 奴婢 뿐만 아니라 白丁(屠漢)·才人(倡優) 등 七班賤人들도 解放되어 良人(平民)·兩班(士族)과 서로 평등하게 禮를 했음을 극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執網所의 농민통치가 社會身分制度를 廢止했다는 사실은 후에 官軍이 동학농민군의 10죄 중의 여섯째 죄목에 "平等을 가칭하여 名分(身分을 의미)을 부수었다"⁶⁾고 지적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관군은 全瑋準에 대한 문죄에서도 "兩班과 부자를 모조리 짓밟았으며 宗文書를 불질러 網常을 무너뜨렸음"을 들었다.

또한 당시의 자료인 『尹致昊日記』는 동학농민군이 兩班身分을 취급한 방식에 대하여, "그들(동학농민군:인용자)은 어디에 가든지 兩班에 대한 깊은 증오를 나타내었다. 동학이 兩班을 취급한 잔인성은 프랑스大革命 기간에 프랑스貴族에게 가해진 유혈적 취급의 하나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⁸⁾고 기록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이상과 같이 舊體制의 첫째의 골간인 社會身分制度를 철저히 해체시키고 폐지해버린 것이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동학농민군이 중세적 봉건적 地主制度의 廢止를 내용으로 한 土地改革을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全瑋準은 그후 체포되어 일제측의 심문을 받을 때에 봉기의 목적을 묻는 심문에 대해, "오직 나의 중국의 목적은 첫째로 閔族을 타

5) 黃珪, 『梧下記聞』, 제2필의 p.97.

6) 『兩湖石先鋒日記』, 『東學亂記錄』(국사편찬위원회 판), 상권, p.272.

7) 『刊行本 東學史』, p.157.

8) 『尹致昊日記』(국사편찬위원회 판), 제4책, 1895년 2월 18일조.

도하고 一黨의 奸臣을 없애며, 또한 轉運使를 폐하고 田制 山林制를 改正하며, 小吏의 私利를 짓는 자를 엄하게 처분함을 원했을 뿐이다”⁹⁾ 그런데 『經世遺表』에서 정약용이 제시한 土地改革안은 널리 아는 바와 같이 ‘井田制’ 土地改革안이었다.

한편 동학농민군 執網所의 土地改革에 관련된 폐정개혁 요강은 위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토지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사’와 ②농군의 두레법은 ‘장려할 사’의 2개의 조항이었다.

이 세 자료를 종합해 보면 全琿準 등 동학농민군은 정약용의 ‘井田制’ 土地改革案을 자기시대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執網所에서 井田制 土地改革을 단행하려고 추구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반드시 地形상으로 井子田形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8區의 私田과 1구의 公田을 만들어서 이것을 단위로 하여, 地主制度를 폐지함과 동시에 私田8區는 8家의 농민들에게 분배하여 自作農을 만들고, 公田 1區는 8家의 私田경작자가 ‘두레’의 방법으로 공동경작하여 그 소출로 公稅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이 井田制 土地改革을 실시하면 ‘토지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사’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왜냐하면 井田制의 9區의 各區 면적은 완전히 平等하기 때문에 私田8區를 1區씩 경작하는 8家의 농민은 “토지를 완전히 平均으로 分作케”되는 것이다. 公稅를 위한 나머지 1區의 公田의 경작을 制度化한 폐정개혁 요강이 바로 ‘농군의 두레법은 장려할 사’인 것이라고 해석된다.

井田制 토지개혁에서는 농토의 9분의 8은

私田이고, 9분의 1은 公田이므로, 公田의 공동경작을 위하여 ‘두레’는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필수의 制度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군의 두레법은 장려할 사’가 실행되어 公田 1區를 완전히 ‘두레’로 공동경작하고, 私田 8구에 대해서도 모내기 김매기 등의 작업은 ‘두레’로 협동경작하는 것이 장려될 필요가 절실했었다고 해석된다.

동학농민군은 地主制度에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地主의 小作料(賭租)를 번번히 탈취하거나 부정하였고,¹¹⁾ 地主의 토지문서를 빼앗고자 하였다.¹²⁾ 동학농민군의 井田制 土地改革을 실행함에 있어서 地主制度를 존속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

土地改革의 실시는 적어도 1~2년의 집권기간이 필요한 사업인데 동학농민군의 執網所 통치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했으므로 동학농민군의 井田制 土地改革은 추구만 되었지 실천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이 봉건적 地主制度의 廢止를 추구는 ‘土地改革’을 단행하려고 한 것은 舊體制의 둘째의 끝간을 실력으로 해체해서 농민적 토지소유(즉 자작농체제)를 창출하려고 한 혁명적인 추구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찰해야 할 것은 동학농민군의 政治體制에 관한 정책과 추구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거의 없다. 동학농민군의 四大名義의 하나에 ‘일본 오랑케를 몰아내어 없애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는 강령이나 각종 문헌에 國王에 대한 ‘忠’의 기록은 있어도 國王을 부정하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동학농민군이 ‘君主制’ 자체를 폐지하려는 의식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四大名義의 하나에 “군대를 몰고

9) 『東京朝日新聞』1985년(明治28)3월5일자, 「東學黨大巨と其口供」.

10) 朴宗根, 「李朝後期の 實學思想—茶山 丁若鏞の 社會改革論(上)」, 『思想』, No. 567, p.1284 참조.

11) 『巡撫先鋒陣?錄』, 『東學亂記錄』상권, p.628 및 p.650 참조.

12) 『東匪討論』, 『韓國學報』, 제3집 「새資料紹介」, p.265 참조.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들 모두 없앤다”고 하여 당시 집권화 閔妃守舊政權은 철저히 진멸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아 閔妃守舊세력은 舊體制의 마지막 政權이었다. 동학농민군이 추구한 정치제도는 ‘君主制’는 존속하되 閔妃守舊政權은 철저히 타도하여, 과거의 閔妃政權이 존재했을 때와는 다른 君主制, 다른 政府를 추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다른 君主制, 다른 新政府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全琫準은 그후 체포되어 일제의 심문을 받을 때에 이에 대해,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간악한 관리를 쫓아낸 다음에는 “國事を 들어 한 사람의 勢力家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弊害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사람의 名士에게 協合해서 合議法에 의해 政治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¹³⁾고 응답하였다. 당시 일본의 『東學朝日新聞』은 이것을 「東學受領과 合議政治」라는 제목을 붙여 널리 보도하였다.

즉 全琫準은 중앙의 정치제도는 <合議政治> <合議政治制度>를 구상한 것이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동학농민군이 執網所의 조직에서 <議員> <議事員>들로 구성된 <協議體>를 두었었다는 사실이다. 오지영의 『草矯本 東學史』에서는 이에 대해 “행정에 있어서는 執網이 主務로 十數人의 議員이 있어 協議體로 조직되었었고”¹⁴⁾라고 하여 집강이 專制獨裁하지 못하도록 10수명의 <議員>으로 구성된 <協議體>를 두어 충분한 討議를 거친 후에 정책을 집행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刊行本 東學史』에서도 “議事員 약간인을 두었으며”¹⁵⁾ 집강의 전제를 방지했다고 기록하였다.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자료에서 미루어 보면, 동학농민군은 서울에 입성하여 ‘君主制’ 자체는 폐지하지 않을지라도, ‘專制君主制’는 방지하여 ‘議會’와 유사한 議事機關과 議員을 두어 政務를 사전 사후에 議論하는 <合議政治>를 추구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동학농민군도 의식 무의식간에 당시 역사의 대세에 따라 정치체제의 개혁의 방향은 專制君主制의 立黨君主制로의 개혁의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동학농민군 執網所의 농민통치가 봉건적 收取制度와 前近代의 負擔을 모두 혁명적으로 폐지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동학농민군은 장기간 농민들을 착취해 오던 還穀制度를 혁명적으로 즉각 폐지하고, 公債인 모든 還穀이니 부채를 전면 무효화 하였다. 뿐만 아니라 私債도 이왕의 것은 모두 무효화하는 혁명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동학농민군 執網所의 폐정개혁 요강에 “公私債를 물론하고 이왕의 것은 一并 勿施할 사”의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全琫準이 1894년 7월 초에 절대로 시행치 못하게 하여 이 지시를 어기는 자는 마땅히 笞에 보고하고 처벌하라”¹⁶⁾고 엄명한 곳에서 私債의 무효화와 私債 徵捧의 엄금이 단호하게 실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군 執網所는 또한 軍布稅의 개혁과 폐지도 추구하였다. 이것은 執網所의 폐정개혁 요강에 “殘民 등의 軍案은 불지를 사”라고 한 곳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동학농민군 執網所는 田稅도 현저히 삭감하여 징수했으며, 이미 구정부에 의해 과도하게 징수되어 있는 부분은 억류하였다.¹⁷⁾

13)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자, 「東學黨首令と合議政治」.

14) 『草矯本 東學史』, 제3책, pp.42~43.

15) 『刊行本 東學史』, p.126.

16) 『梧下記聞』, 第2筆의 p.66.

17) 『先鋒陣呈報牒』, 『東學亂記錄』, 하권, p.245.

또한 동학 대접주 金德明의 죄목의 하나에 “이 자는 院平店에 都所를 크게 설치하고 公穀과 公錢을 사사로이 징수했다”¹⁸⁾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執網所의 동학농민군이 그들이 새로 제정한 삭감된 세율에 따라 田稅를 징수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동학농민군은 田政·軍政·還政의 문란했던 三政의 收取制度를 혁명적으로 改革한 것이었다. 三政의 개혁의 추구는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동학농민군은 강릉을 점령하자, 1894년 9월5일 東門에 “三政의 폐막을 矯革하고 보국안민한다”¹⁹⁾는 방문을 붙였다. 동학농민군은 9월초 4일 영월·평창·정선의 3읍을 점령했을 때에도 “三政을 마음대로 정했다(昌定三政)”²⁰⁾고 했고, 강릉의 “府中에 4~5일 留住하는 동안에도 軍布稅와 적조세(환곡)를 바로 잡아서 三政을 임의로 삭감했다”²¹⁾고 기록하였다. 전라도 執網所에서는 물론이요, 강원도에서도 三政의 대대적 개혁이 추구된 것이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동학농민군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두 無名雜稅를 모두 단호하게 철폐했다는 사실이다. 執網所의 폐정 개혁요강이 “無名雜稅 등은 혁파할사”, “無名雜稅 등은 一并 勿施할 사”등의 조항이 이를 잘 알려주고 있다.

동학농민군 執網所의 농민통치는 이밖에도 탐관오리의 징계, 횡포한 부호의 응징과 討財, 미곡의 일본에의 流出 방지, 인민들의 訴狀의 처리, 官吏의 文簿의 검열, 동학의 전도와 농민군의 강화, 동학농민군의 무기와 마필의 공급, 軍需錢과 軍需米의 비축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만으로도 東學農民革命運動은 舊體制(앙시앙레짐)의 골간이 되는 制度들을 아래로부터 근본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혁하여 해체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동학농민군의 개혁에 의해 身分差別制度가 폐지되어 보다 평등하고 보다 자유로운 市民社會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봉건적 地主制度가 폐지되어 自作農의 均作制度가 수립되며, 議事機關 또는 合議機構를 두어 백성(주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新政權을 수립하고, 모든 無名雜稅와 還穀制度를 폐지하며 軍布稅와 田稅를 대폭 삭감하여 三政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모든 중세적 수취체제를 폐지하며, 농민들의 의견이 나라정치에 반영되어 실현되는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들 나름의 근대적 ‘新體制’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4. 東學農民軍의 제2차 봉기의 성격

全瑋準을 지도자로 하여 동학농민군이 執網所의 농민통치를 실행하다가 1894년 음력 9월 13일 제2차 봉기를 단행한 것은 제1차 봉기와는 매우 다른 동기에서였다.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國土 위에서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朝鮮을 전쟁터로 유린하면서 朝鮮왕국을 소위 ‘保護國化’하고 併呑하려는 야욕을 보이자, 동학농민군은 일본침략군을 자기의 祖國疆土에서 몰아내어 조국을 구하려고 봉기한 것이었다.

全瑋準은 그후 체포되어 일제의 심문을 받을 때 제2차 봉기의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우리들은 田畠에서 生長하여 世事에 소원해서 日本政府의 우리나라에 대한 政略方針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본년 6월 이래 日本軍이 계속 우리나라에 오자, 이것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併呑하려 하는 것이라고, 옛날의 壬申(辰)의 禍亂을 생각하여 내고, 인민들이

18) 『巡撫先鋒陣?錄』, 『東學亂記錄』, 상권, p.66.

19) 『臨瀛討匪小錄』, p.7

20) 『東匪討論』, 『韓國學報』, 제3집, p.265.

21) 『東匪討論』, 『韓國學報』, 제3집, p.265.

疑懼한 나머지 나를 추대하여 首領으로 삼아서 國家와 生死를 함께 하려고 決心하여 이 再據를 도모한 것이었다.²²⁾

즉 동학농민군은 한반도에 불법 침입한 일본침략군이 淸日戰爭에서 승리를 굳혀가고 조선왕조를 併呑할 야욕을 보이자 일본에 종속화되어 가고 있는 자기 祖國을 구하기 위하여 抗日 民族運動으로서 제2차 봉기를 일으킨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는 全瑋準이 지휘하는 南接뿐만 아니라 崔時亨·孫秉熙가 지휘하는 北接도 참가했으며, 제2세 교주 최시형의 통문에 호응하여 전국의 동학농민들이 각지에서 봉기하였다. 전국의 동학농민군의 병력은 약 60만명으로 추산되나 각지에 分散되어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주력인 全瑋準부대 1만명과 손병희부대 1만명은 論山에서 만나 聯合한 후 北上을 시작하여 한발전투, 公州利仁 전투, 孝浦전투, 態峙전투 등에서는 승승장구했으나, 公州 牛金峙전투에서 특파된 日本軍 後備步兵 제19大隊의 근대적 화력에 패전하게 되었다.

동학농민군 진압에 동원된 일본군 병력은 後備步兵 제19대대, 後備步兵 제18대대, 後備步兵 제6연대, 後備步兵 제10연대 등 약 5,800명이었고, 해군이 군함 波號와 操江號의 2척과 陸戰隊(해병대)2개 중대였다.

全瑋準부대와 손병희부대의 牛金峙전투에서의 패전을 전환점으로 해서 동학농민군은 전국에서 수세에 들어갔으며 각지에서 日本軍과 官軍의 동학농민군 공격과 학살이 자행되었다. 동학농민군도 완강이 저항하여 전국 도처에서 처절한 전투들이 전개되었다. 동학농민군의 마지막전투는 1895년 음력 1월 24

일(양력 2월 18일)전라북도 完州郡과 충청남도 錦山郡 및 論山郡에 걸쳐 있는 大芑山에서 26명의 동학농민군이 일본 특공대의 공격과 投降권고를 받고 끝까지 投降을 거부하여 싸우다가 전원 戰死한 ‘大芑山전투’였다.

제2차 봉기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전사 학살된 동학농민(군)의 총수에 대하여 『天道敎創建史』는 이 전사 피살자수를 “20만 명이상”²³⁾이라 하였고, 朴殷植은 이를 “약 30만명”²⁴⁾이라 했으며, 『東學史』는 이를 “약 30~40만명”²⁵⁾이라고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제1차 봉기에서는 거의 희생이 없었다. 그러나 日本 侵略軍을 祖國疆土에서 몰아내어 祖國을 구출하려는 제2차 봉기의 抗日武裝抗戰에서 약 30만명의 막대한 희생을 낸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이 한국근대사의 愛國運動에서 가장 많은 殉國者들을 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東學農民革命運動은 비록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前近代社會로부터 近代社會로의 변혁에 필수적인 舊體制의 해체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운동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東學農民革命運動은 우리나라 농민들의 대표적인 半封建·자주근대화 運動이었고, 反侵略·反諸國主義 愛國運動이었다. 제1차 봉기는 반봉건·반침략의 성격이 복합된 運動이었지만, 반침략보다는 반봉건적 성격이 더욱 강한 農民革命運動이었다. 이에 비하여 제2차 봉기는 반봉건적 성격도 내포되어 있었지만,

23)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1933, 제2편의 p.69.

24) 朴殷植, 『韓國通史』, 1915, 『朴殷植全集』, 상권 p.111 참조.

25) 『刊行本 東學史』, p.154 참조.

22)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5일자, 「東學黨大巨魁と其口供」.

그보다는 日本 侵略軍을 자기의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굳게 지키는 輔國安民을 위한 反侵略的 反諸國主義의 성격이 전면에서 부각된 民族革命運動이었다. 이제 2차 봉기에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은 무려 30만명이 목숨을 바치면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祖國을 지키기 위한 愛國運動을 헌신적으로 전개하여 나라와 거레를 지키는 일에 크게 기여했으며 애국정신을 고도로 발양하였다.

둘째, 東學農民革命運動은 당시의 兩班身分制度和 당시까지의 수천년 묵어온 社會身分制度를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역사에서 社會身分제의 폐지는 東學農民革命運動에 의하여 아래로부터 먼저 혁명적으로 社會身分제를 폐지해 나가자 그 후에 갑오경장 開化派들이 이를 받아서 法令으로 社會身分제를 폐지한 것이었다.

셋째, 東學農民革命運動은 당시까지 수천년 지속되면서 나라의 자주근대화를 완강하게 저지하고 있던 舊體制(양시양 폐짐)를 근본적으로 해체시켰다. 당시 한국 민족국가의 자주독립과 近代社會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閔妃政權을 정치권력체로 한 舊體制를 붕괴시키는 것이 선결의 대과제로 전제되어 있었는데, 한국社會의 근대화과정에서는 이 대과제를 市民勢力이나 開化派가 수행하지 못하고 東學農民革命運動이 수행함으로써 近代社會로의 이행의 길을 넓게 열어준 것이었다.

넷째, 東學農民革命運動은 執網所의 농민통치를 실시하여 한국역사에서 처음으로 비록 지방에서이지만 농민이 권력을 장악하고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민의 大改革을 단행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社會身分제의 폐지와 身分解放, 地主制度의 폐지와 土地改革추구, 三政의 개혁과 봉건적 收取制度의 폐지, 기타 각종 폐정개혁은 舊體制를 해체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원하는 新體制와 近代化의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만일 일본군의 간섭이 없어서 동학농민군이 패전하지 않고 서울에 입성했었다면 전국에 걸쳐 新網所型的 近代의 新體制가 수립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東學農民革命運動은 개혁과 정부의 甲午更張의 아래로부터의 추동력이 되어 대개혁을 단행하도록 하는 근원적 힘이 되어 주었다. 당시의 開化派의 실력으로는 東學農民革命運動이 없었다면 執權할 기회조차 없었다. 개화파 집권후의 甲午更張의 대개혁은 東學農民革命의 개혁 내용을 開化派式으로 번역하고 수정해서 여기에 개화파의 정책을 합하여 단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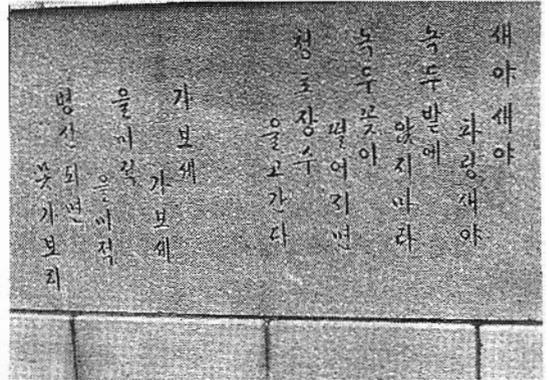
여섯째, 東學農民革命運動은 전국적으로 각계 각층 광범위한 국민들의 정치적 社會的 각성을 크게 촉진하였다. 東學農民革命運動이 제기한 국정 전반의 여러가지 문제들은 전국민에게 심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 충격을 받고 19세기 말 한국 국민들의 政治意識과 社會意識이 크게 비약적으로 계발되었다.

일곱째, 東學農民革命運動은 그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反日力量을 크게 제고시켰으며, 抗日義兵運動의 저변의 토대를 튼튼히 형성하였다. 東學農民革命運動에 참가했던 다수의 동학농민군 병사들이 그후 義兵部隊들의 병사가 되어 기회있을때마다 抗日武裝鬪爭을 완강히 전개하였다. 다수의 관찬 문헌들에게 義兵部隊의 兵士들에 ‘東匪餘黨’이 많다고 기록한 것은 이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長期史의 관점에서 볼 때, 東學農民革命運動은 반은 成功하고 반은 失敗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근대사의 가장 큰 과제의 하나는 前近代의 舊體制로부터 近代의 新體制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舊體制의 해체와 新體制의 건설이란 두 과업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했다.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는 이 두개의 과업을 주로 市民層이 담당하여 모두 수행하였다. 그러나 한국근대사에서는 역할이 분담되어 舊體制의 解體는 東學農民革命運動이 담당하여 수행하고 그 닦아는 열린 길 위에서 한국의 시민세력인 開化派가 新體制의 건설을 담당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東學農民革命運動은 半分은 成功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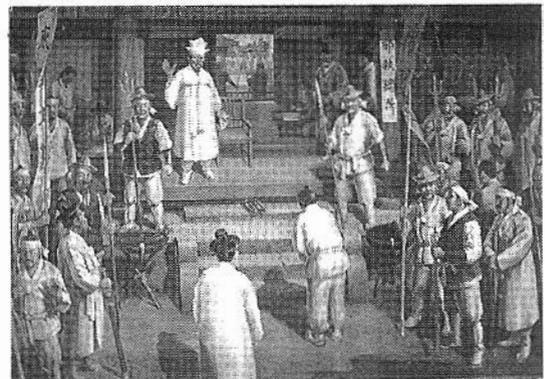
◆전봉준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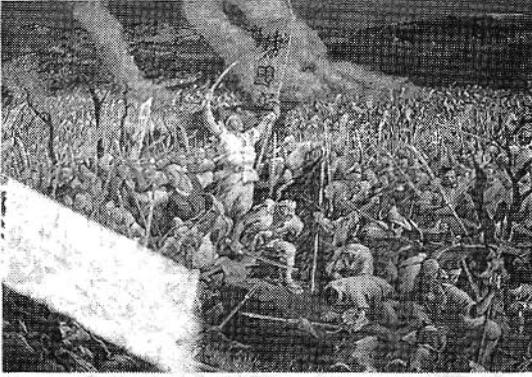
◆문화유적지순례에서 나선 문화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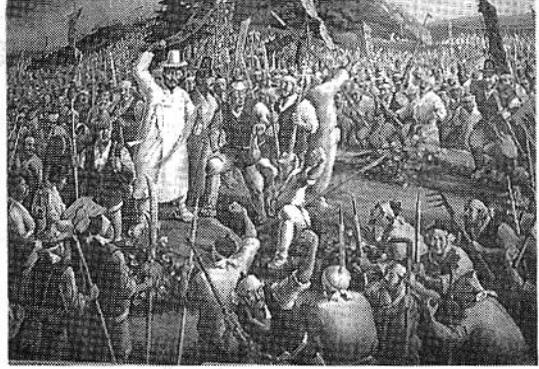
◆진군하는 동학 농민군



◆동학군의 집감소



◆봉기한 동학 농민 군단



◆동학농민 군단

束草文化院 사업실적

지방문화원 진흥법 발효이후 최대의 활력이 넘친 업무 전개로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격려를 받게되어 본원이 비로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긍정적인 반응이 일고있다. 이제 까지 최대규모의 예산이 6천만원대였으나 95년도는 1억대로 육박해 4급 문화원에서 3급(예산규모로 분류되는 수치)으로 위상이 격상될 단계까지 도달해 문화가족들의 긍지는 대단하다.

95년도에 펼친 중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토문화학교 개강

'92년도에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된후 93년 2월에 제1기생을 받은 본원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 제3기생 1백60명과 1백20명의 중고교생등 모두 3백여명이 전통문화를 익히기 위한 공부에 여념이 없다. 문화학교의 과목은

▲서예교실=강사·지응준 설악서예학원장



◆향토문화학교 3기수강생 입교식



◆향토문화학교 서예반

수강생은 초급반 30명, 고급반 30명등 모두 60명이고 1회 2시간씩하는 강의가 1주 2회씩 개강하고 년2회의 발표회를 갖는다.

▲꽃꽃이교실=강사·임재순 꽃꽃이작가(양양화원운영) 1기생과 2기생은 2급과 3급 자격증을 21명이 취득하였고 올해도 15명이상 2~3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구교실=강사·박치영·동우전문대 풍물패 지도, 3기생 53명을 조직적으로 지도, 제30회 설악문화제때 수강생 대부분이 자기 주소지의 동대표로 풍물패 공연에 나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노래교실=강사·최봉하 시립합창단 단무장이 맡고있는데 60여명의 수강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여 96년도 제4기생을 모집하면 문

화원 합창단을 구성, 군경위문을 비롯, 노인회 관 위문, 진전가요보급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통예절과 한국의 다도=분기별로 1~2주 정도 열고 건강, 교양 특별강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향토문화학교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경노행사=본원 경노 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해 문화가족중 65세이상 노인들을 1일 관광시켜 좋은 반응을 얻었다.

5월24일 노인과 그 가족등 40명을 초청하여 1백만원의 예산으로 관광버스를 전세내어 독립기념관과 유관순기념관을 방문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고교생들이 특별반을 통해서 국악을 익히고 있다.



◆서예·꽃꽂이 작품전 개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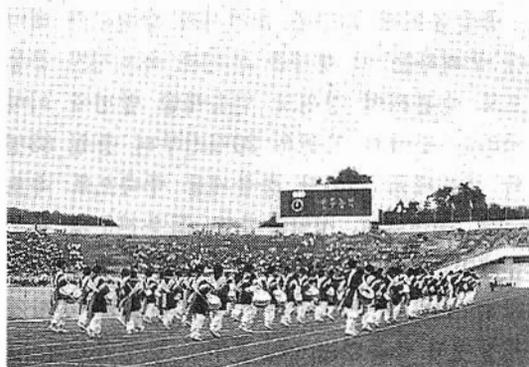
▲95향토 작가 초대전

본원은 미술의해를 맞아 30여명의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9월12일~18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백종숙씨의 한국화등 4점, 김광수씨의 서양화등 11점, 박영근씨의 조소등 2점, 고주리씨의 공예·디자인등 2명, 김광희씨 서예등 4점등 모두 23점이 전시되었다.

개전식은 이날 오후2시 董文星시장, 金麗水 설악문화재단위원장, 崔龍文문화원장, 史相喆예총회장등 각급기관장과 미술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董시장은 축사에서 향토작가들이 미술의해를 더욱 빛내기위해 애쓴 노고를 치하하면서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문화원의 노력을 격려, 앞으로



◆주부회호대회 盛了



◆제13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축하 풍물놀이공연을 83명이 시연했다.

도 더욱 분발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부 회호대회

건전 생활화운동이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주부계층에서 서예붐이 일기시작해 국내 회호대회는 물론 해외까지 출품해 입상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있다. 이 열기를 지속시켜 주부들의 취미생활을 바르게 인도하기위해 본원은 제30회 설악문화제를 축하하면서 서예운동의 확산을 도모하는 뜻에서 9월13일 주부회호대회를 개최하여 63명의 선수가 출전해 성황을 이루었다. 董文星시장과 金麗水설악문화제위원장님이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서 건전 생활화운동을 서예활동을 통해 고차원으로 승화시켜 관광 문화 東草건설의 새장을 열어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입상자는

- *장원=김연규(종합우수상)
- *한문=차상(양청실) 차하(강인순)
- *한글=차상(정연숙) 차하(신은숙)
- *장려상=손명자 한명희 임명희 김옥순 이성복
- *입선=이순자 원영숙 남정연 이정순 이경자

▲제1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풍물놀이패 83명을 출연시켜 강원도가 해마다 주최하는 이 행사를 본원과 속초시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강원도 민속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뜻에서 본원은 20일전부터 총원 83명의 풍물패를 갯마당 풍물패를 주축으로 속초상고, 속초여고, 설악중학교, 동우전문대 풍물동아리패등으로 단원을 83명으로 구성, 20일간 매일 오후 3시~9시까지 노학동 소재 종합경기장에서 땀흘리는 연습훈련을 강행했었다. 그 보람이 열매를 맺어 개회식과 폐회식때 30분간의 공연에서 강원지사와 도의회의장, 속초시

장과 도내 시장군수등 관계관들이 열연을 치아하는 박수를 열렬히 보내 주어 많은 시민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 이날 공연에서 본원 소속 풍물패 기량과 공연능력에서 도내 정상급 수준을 재확인하게 되어 국악과 전통민속 문화 발전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었다. 강원도는 11월30일 풍물패 공연을 기획한 金鎬應본원 사무국장, 천성필 갯마당 풍물패 대표에게 그 노고를 치하 하기 위해 도지사 감사장이 수여 되었다.

▲바둑대회

본원은 제30회 설악문화제 경축 바둑대회를 10월8일(일요일) 본원의 문화사랑방에서 董文星시장을 비롯 金麗水설악문화제위원장, 崔龍文문화원장등 기관단체장, 본원임원, 문화가족



◆董文星시장이 꼬마기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동학혁명유적지(全北井邑)를 답사하고 있다.

등이 참석한 가운데 65명의 기사들이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문화사랑방에 초만원을 이룬 바둑열기는 앞으로 크게 발전 될 전망을 엿보이게 했다. 입상자는

▲어린이부=①조수민 ②오경석 ③장호

▲학생부=저학년부(①심현보 ②박재영 ③오동규) 고학년부(①석현우 ②박문식 ③정구성)

▲일반부=갑조(①지영식 ②전민재 ③최영환) 을조(①정두봉 ②정광희 ③이창호) 병조(①백승만 ②박병찬 ③김준호)

▲심사위원=오병철 허정원 남정남 임경호씨 등이 수고했다.



◆설악문화제 축하 풍물패 행렬



◆설악문화제 축하 풍물패 행렬

▲설악문화제 축하행사 적극 벌여

제30회 설악문화제를 멋지게 치르기 위해

본원은 축제 분위기 제고와 시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볼거리로 품격을 높이는 일에 적극 이바지 했었다.

본원은 속초시와 설악문화제 위원회의 뜻을 받들어 시민참여도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두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사의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기로 했다.

전야제 날엔 수복탑 광장에서 한마당 놀이를 시민들과 함께 2시간동안 벌이자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신나는 향토축제란 평을 받았다.

11일 오후7시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8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축하공연을 갯마당 풍물패가 벌여 박수와 환호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설악문화제 연구단이 발족

▲서예·꽃꽂이 작품전

본원은 제30회 설악문화제를 경축하는 차원에서 본원 부설 향토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서예작품 35점, 꽃꽂이 작품 15점을 10월12일~14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가졌다. 이날 개전식은 董文星시장과 金麗水설악문화제 위원장을 비롯 각급기관장, 본원임원, 문화가족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董시장은 축사에서 속초문화원이 활발한 문화사업을 벌여 시민정서 순화와 전통문화 선양에 이바지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문화학교 수강생들도

속초시가 벌이는 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조상들이 이룩한 전통문화의 미덕을 더 열심히 다듬어 후세까지 빛낼 수 있는 노력을 쏟고있는것은 정말 훌륭한 문화시민의 본보기를 보이는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품전은 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관했었다.

이외에도 10월18일~20일까지 2박3일간 예

정으로 전북 정읍 동학혁명 유적지를 답사하여 구한말 이나라에 밀어 닦친 외세를 물리치기위한 민중운동의 현장을 밟으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선렬들의 애국정신을 다시금 음미하기도 했다. 그리고 속초문화 11호발간 사업도 어렵게 마쳤고 청초농악대 창단식도 가졌다.

95년도 속초예총 주요업무소개

■예총 강원도지회 정기총회

'95 예총 강원도지회 정기총회가 지난 1월6일 오후 2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자리에 강원예술인 대표 및 도내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올해의 강원예술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깊은 토의가 있었으며 속초에서는 김영복 예총지부장과 장규호 연극협회 지부장이 참석하였다.

■속초예총 제6차 정기총회

속초예총 제6차 정기총회가 1월 20일 오후 3시에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94년 예산 결산안 및 예산심의에 이어 제3대 김영복 지부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앞으로 4년간 속초예총을 이끌어갈 4대 지부장 선출이 있었다. 선출된 4대 지부장은 사상철(문인), 부지부장으로 김광희(미술), 장규호(연극)와 감사는 최낙민(미술), 박명미(연극) 등이 선임되었다.

사상철 지부장은 39년 여주에서 출생하여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83년엔 성남시 예술원장을 역임하였다.

그간 “저하늘의 흰구름은”등 세편의 시집을 출간 하였으며 현재 한글문화회 이사, 관동문학회자문위원, 강릉신문논설위원등을 맡고 있다.

■속초예총지부장 이·취임식

속초예총 제3대 지부장(김영복)의 이임식 및 제4대 지부장(사상철)취임식이 고성군 하일라비치 회의실에서 1월26일 오후 5시에 거

행되었다.

배동욱 예총도지회장, 이돈섭 속초시장, 영동지역 교수 및 지역 문화예술인, 지역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진 이·취임식에서 사상철 신임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4대 예총지부장의 중책을 맡아 임기 내 지역 예술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역문예증흥에 애써온 전임지부장께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속초예총 회장단회의

속초예총 4대 회장단 회의가 2월7일 오후 5시 영랑동 진국설령탕 음식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예총의 방향 모색과 속초 사진협회 결성에 대한 토의등이 있었으며, 지역 사진작가인 성동규, 최홍영 등이 참석하였다.

■제5회 학생예술상 수여식

사상철 예총지부장은 2월14일~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지난 한해동안 문예부문에 뛰어난 관내 중·고교생들을 선발, 이를 높이 치하하기 위하여 졸업식장에서 학교별로 학생예술상을 시상, 상품과 상장을 수여 하였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속초상업고등학교 ————— 김정권
- 속초여자고등학교 ————— 장재숙
- 속초고등학교 ————— 서평원
- 설악여자중학교 ————— 고문정
- 설악중학교 ————— 김보묵

- 속초중학교 ————— 마용운
- 속초여자중학교 ————— 김표선

■ 강릉예총 정기총회

제29차 강릉예총 정기총회가 2월 17일 오후 4시에 강릉문예관 소전시실에서 개최 되었으며, 사상철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초청을 받아 참석 하였다.

■ '95 미술의해 기념 신춘 미술협회전

지난 2월18일~25일까지 8일간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95년 미술의 해를 맞이하여 미술협회 속초지부(지부장:김광희)주관으로 "신춘 미술협회지부전"이 개최되었다. 통산 19회째를 맞는 지부전으로써 영북지역 미술작가 24명이 한국화, 양화, 조각, 공예, 서예등 5개 장르의 작품이 출품 전시되었다. 아울러 금번전시회는 95미술의해의 경축분위기 조성에 일조함은 물론 미술인으로서의 자긍심고양에도 이바지 하는데 기여한 큰 전시회였다.

■ 95-1차 간사회의

지난 3월9일(목) 오후 6시에 예총사무실에서 95-1차 간사회의를 가졌다.

-주요안건

- 속초종합예술제 일정 조정에 관한 건
- 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건
- 예술인 수련대회 추진전등

■ 제12회 강원연극제 참가

연극협회(지부장:장규호)에서는 4월26일~30일까지 5일간 삼척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2회 강원연극제에 출전하였다.

제13회 전국연극제 강원도예선을 겸한 본 연극제에 속초연극협회 산하 극단 "굴렁쇠"(대표=김귀선)에서 준비한 이만희 작 "돼지와 오토바이"로 마지막날인 30일 공연을 가졌

으며, 연출은 김인환(연극협회 부지부장)씨가 맡았다. 강릉에 이어 춘천문화방송사장 상인 단채우수상과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 제6회 청소년건전가요제 예심

연예협회(지부장:한기학)는 지난5월13일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6회 청소년건전가요제 예심을 개최하였다.

■ 예총 전국대표자대회 참석

경북 김천에서 개최된 95년도 예총전국대표자대회가 지난 5월 11~12일 양일간 개최 되었으며, 속초에서는 지부장(사상철)과 사무국장(박종성)이 본 회에 참석하였다.

■ 95-2차 간사회의

95-2차 예총속초지부 간사회의가 지난 5월 16일 예총사무실에서 있었다.

▲주요안건

- 예총사무실 사용건
- 민속예술경연대회/제30회 설악제 예술 행사 참여건
- 조각공원 설치에 대한 건 등

◎ 제6회 속초종합예술제 ◎

한국예총속초지부(지부장:사상철)에서는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속초시 일원에서 예총 5개협회지부(문인, 미술, 연극, 연예, 음악)가 연례적으로 지속해온 속초종합예술제의 6회째를 개최하였다.

영북지역 문예발전에 이바지코져 예총협회 지부가 연합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지역 청소년은 물론 시민에게 높은 참여도와 호응속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11개 사업이 실시되었다. 행사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1회 주부백일장

문인협회(지부장 : 윤홍렬)주관으로 5월25일 오후 2시에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속초시 주부백일장을 개최하였다.

지역 가정주부 95명이 본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시와 산문부문에서 총 9명의 입상자가 선정되었다.

■ 제6회 학생 백일장

제6회 학생백일장이 문인협회 주관으로 5월 25일 오후 2시에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평소 연마한 글쓰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심성고취와 지역 문학인구 저변확대를 꾀할 목적으로 마련한 본 대회에 지역 청소년 1,350여명이 참가하여 얼굴, 내팍, 우리집, 만남, 작은것, 길, 속초등의 주제로 시와 산문에서 열띤 짓기를 통해 총 119명이 입상자로 선정 되었다.

■ 제6회 학생미술실기대회

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주관으로 5월25일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제6회 학생미술실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지역청소년들이 평소 연마한 그리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미술의 이해도 도모와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코져 마련한 본 행사에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등에 총대회참가자 2,300여명이 참가하여 262명이 입상자로 선발되었다.

■ 제20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주관으로 지난 5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20회 미술협회속초지부전이 개최 되었다. 향토작가의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임으로서 회원상호간의 창작의욕고취 및 지역 미술인 저변확대를 통한 향토미술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마련된 본전시회에 미술협회 회원 25명이 한국화, 양화, 서예, 공예, 조각등 총 50여점의 개성있고 다양한 작품을 출품 시민의 높은 호응속에 전시회가 성료 되었다.

■ 제1회 국제아동미술전

미술협회(지부장 : 김광희)에서는 6월1일부터 3일까지 속초시 청소년들에게 세계 청소년들의 미술작품과 우리 청소년들의 작품을 상호 비교해 보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술작품 감상의 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독일, 미국, 불가리아, 싱가포르, 일본, 인도, 이란, 러시아,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중국, 태국등 13개국에서 총 141점의 작품을 유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우리고장에선 국제미술아동전이 최초로 개최된 관계로 관내 학부모 및 학생들의 대단한 호응속에 연일 만원관람이 이어지는 속에서 대성황리에 전시회가 이어졌다.

■ 제6회 학생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시회

문인협회(백일장)와 미술협회(미술실기대회)가 연계하여 지난 5월 25일 속초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백일장 및 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시회를 6월1일부터 3일까지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3일간 전시되었다.

백일장 작품 119점, 미술전시 137점이 전시되어 백일장, 미술실기 대회참가자는 물론 학부모 교사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 속에 거행되었으며 1일 입상자 시상식은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 제3회 설악청소년음악콩쿠르

음악협회(지부장 : 심연흠)은 6월3일(토) 오후1시에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제3회 설악청소년음악콩쿠

트를 개최하였다. 지역 음악 발전 및 미래 역량있는 지역 음악인을 배양코져 마련한 본 행사에 초등 고학년,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피아노, 성악, 관현악 부문에 총 85명이 참가하여 평소 연마한 실력을 한껏 발휘하였다.

구슬비, 섬집아이, 기러기, 과꽃등과 바하 인벤션 2성 13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번 등이 과제곡 지정등이 주어졌으며 지역 최대의 청소년 음악경연대회로써의 유감없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 제6회 청소년건전가요제

속초연예협회(지부장 : 한기학)에서는 지난 5월13일 제6회 청소년건전가요제 예심에서 선발된 14개팀의 본심을 6월4일 오후2시에 속초시 문화회관대극장에서 개최하였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요보급을 통한 지역 청소년 축제의 장을 마련코져 한 본 가요제에 문화회관을 가득매운 열띤 지역청소년의 열기와 응원속에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수상팀은 대상을 포함한 7개팀으로 결정되었다.

■ 극단 굴렁쇠 제10회 정기공연

연극협회 소속 극단 굴렁쇠(대표 : 김귀선)는 제12회 강원연극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돼지와 오토바이”를 6월6일~7일 양일에 걸쳐 속초시문화회관대극장에서 정기공연을 가졌다. 연출 김인환및 김귀선, 박영미, 김영미 등의 캐스트와 김영재, 이병섭, 윤종국등이 스태프를 맡았으며 연 3회 공연으로 총 1,200여명이 관람하였다.

■ 포스트와트 피아노독주회

음악협회 소속 도레미예술기획(대표 : 원영백)에서는 세계 우수 피아노 독주자를 초청하여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속초 음악발전에 이바지코자 6월10일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

서 폴스트와트초청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 하였다. 폴스트와트는 91년 모짜르트 국제 피아노경연대회를 석권하는등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과 뛰어난 연주자로 캐나다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다.

본 공연에서는 슈만의 교향적 연습곡 작품 13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관람객 800여명의 환호와 갈채속에 연주회가 성료되었으며 양크르에서는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재 음악및 우리가곡 브리발등을 준비하는등 치밀함을 보였다.

■ '95강원예술인 심포지움

강원도 예술인 학술 발표회를 통해 강원도 문예발전모색은 물론 화합과 친목을 도모코져 연례적으로 개최된 강원예술인 심포지움이 6월13일 오후 1시에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예총 강원도 예술인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문예발전 대한 열띤 토의있었다. 특히 이자리에서 배동욱 예총강원도회장의 “지방자치와 지방예술” 사상철 속초예총지부장의 “지역예술의 문제점”등의 주제 발표도 가졌다.

* 제6회 학생백일장 수상자 명단 *

◆ 저학년 동시

- ▲장원 : 이진주(영랑국 2-2)
- ▲차상 : 김지에(속초국 2-4) 이빛나(속초국 3-2)
- ▲차하 : 안보미(중앙국 3-3) 최서영(교동국 2-5) 이예진(" 3-8)
- ▲가작 : 김장미(영랑국 3-4) 강태관(" 3-4) 이보라(" 3-2) 김민아(" 3-3) 신은영(" 2-2) 이예린(" 3-3) 박민희(교동국 3

-8) 이영숙(" 3-2) 이선영(" 3-8) 유보람(" 3-1) 유유리(" 3-7) 한경태(속초국 3-2) 김새롬(" 2-1) 박아람(중앙국 3-4)

◆저학년 산문

▲장원 : 함현식(영랑국 2-3)
 ▲차상 : 김미진(속초국 3-2) 황지은(현북국 3)
 ▲차하 : 오혁렬(속초국 2-1) 정다운(강현국 2-1) 이우리(교동국 2-3)
 ▲가작 : 권혜진(청호국 2-2) 유혜인(" 2) 안효철(영랑국 3-1) 김영화(중앙국 3-4) 정진교(대포국 3-1) 김초롱(인홍국 3-1) 박광선(속초국 3-1)

◆고학년 동시

▲장원 : 안철영(속초국 6-2)
 ▲차상 : 김수경(청호국 6-2) 임정원(영랑국 6-2)
 ▲차하 : 이보라(교동국 5-7) 안민호(중앙국 6-5) 정하늬(강현국 4-1)
 ▲가작 : 황정렬(속초국 5-1) 이용원(" 5-6) 민슬기(" 5-7) 최아람(" 5-6) 진민한(" 5-3) 천효숙(" 5-7) 홍성봉(" 5-5) 김지경(" 5-5) 이윤기(" 4-2) 황준호(" 4-4) 김하나(" 4-1) 이승희(" 4-4) 이선아(" 4-1) 김미리나(" 4-2) 김미선(" 6-2) 정아람(속초국 6-6) 오유정(" 4-3) 어수진(" 5-5) 양기은(" 5-3) 김보연(" 5-4) 고두희(" 4-1) 안보연(영랑국 6-1) 안기현(" 6-3) 박현주(" 6-3) 임미애(" 5-1) 박지은(" 6-1) 윤보람(" 5-2) 함진아(" 6-3) 김현아(인홍국 4-1) 김민아(" 4-1) 김길자(" 6-1) 이미혜(" 6-1) 박인호(상평국 5-1) 김은경(" 5-1) 장두석(온정국 6-1) 우란(조양국 4-3) 김윤희(희룡국

6-1) 이해나(교동국 5-2) 이희경(" 5-5) 조아라(" 5-6) 김상열(중앙국 6-3) 가지은(" 6-6) 김성수(" 6-4) 이승우(" 6-6)

◆고학년 산문

▲장원 : 이향란(현북국 4)
 ▲차상 : 김혜리(속초국 5-7) 김지혜(청호국 6-1)
 ▲차하 : 김슬이(중앙국 5-5) 강다운(영랑국 6-4) 박정혜(인홍국 6-1)
 ▲가작 : 정안진(속초국 6-4) 이수미(" 4-6) 김영래(" 4-3) 김하림(교동국 5-1) 이홍민(" 6-6) 김수미(대포국 5-1) 이지선(" 6-1) 전보현(영랑국 6-4) 전은경(중앙국 6-1) 함주희(온정국 5-1) 탁연수(인홍국 5-1) 서주연(강현국 6-1) 최유정(천진국 6-2)

◆중학교 시

▲장원 : 안병욱(속초중 2-7)
 ▲차상 : 정예원(설여중 2-8)
 ▲차하 : 정유정(설여중 1-7)
 ▲가작 : 이한아(설여중 1-3)

◆중학교 산문

▲장원 : 유혜정(설여중 2-1)
 ▲차상 : 오수진(설여중)
 ▲차하 : 박지혜(설여중 2-1)
 ▲가작 : 황은미(설여중 2-4) 이경전(") 김동현(" 1-7) 윤샛별(" 2-2) 김성종(속초중 3-5)

◆고등학교 시

▲차하 : 양정규(양양고등 2-2)
 ▲가작 : 박상훈(양양고등 2-3)

◆ **고등학교 산문**

- ▲차상 : 이광석(고성고등 3)
- ▲차하 : 신현익(양양고등 1-1)
- ▲가작 : 김혁(양양고등)

◆ **주부백일장 시**

- ▲장원 : (탁여옥 속초국 4-5 김향실 모)
- ▲차상 : 나임순(조양국 5-3 홍지원 모)
- ▲차하 : 이미숙(조양국 5-3 김수진 모)
- ▲가작 : 최애련(속초국 4-6 정예지 모)

◆ **주부백일장 산문**

- ▲차상 : 김수현(속초국 2-2 김준태 모)
- ▲차하 : 최희선(속초국 2-3 장하린 모)
- ▲가작 : 김미경(속초국 3-3 김혜지 모) 한은주 노선우(교동국 3-8 이예진 모) 이춘실(속초국 4-2 김나현 모)

* 제6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수상자명단 *

◆ **국민학교 1,2학년**

- ▲금 : 김보라(천진국 1-1)
- ▲은 : 최민식(교동국 1-6) 태진이(속초국 1-3) 이치훈(영랑국 2-3)
- ▲동 : 김예슬(속초국 1-5) 김수린(속초국 2-3) 한정아(교동국 1-1)
- ▲장려상 : 최유철(교동국 2-4) 김유정(" 2-1) 김지은(" 1-1) 송성근(" 1-5) 조충원(" 1-8) 백지연(" 1-5) 김정연(" 1-1) 장보금(" 1-6) 신용진(" 1-4) 채지원(" 1-5) 노슬기(" 1-2) 김정빈(영랑국 1-3) 최혜란(" 1-4) 윤형모(" 2-4) 김정은(" 1-3) 신승환(" 1-4) 김근영(" 2-2) 박혜미(" 2-1) 이슬비(" 1-1) 안은진(" 2-2) 김누리(속초국 1-5) 진영민(" 1-

- 5) 이설지(" 1-1) 최지현(" 1-4) 한형원(" 2-3) 정수진(" 1-6) 김영림(중앙국 1-1) 정다희(" 2-3) 심원익(" 1-1) 김나리(강현국 2-1)

- ▲입선 : 이재희(중앙국 2-4) 이지영(" 1-2) 강부선(" 1-3) 최재원(" 1-1) 박상현(" 1-2) 어숙연(" 2-3) 원경화(" 2-3) 민설희(" 1-3) 이진희(" 1-3) 김나윤(" 1-2) 박민렬(" 1-1) 김우태(" 1-3) 김아람(" 1-1) 조영식(" 1-1) 진민곤(" 1-1) 마수영(" 1-1) 이태희(" 1-2) 김정래(속초국 2-4) 이창재(" 2-6) 김유진(" 2-2) 김동환(" 1-6) 최정웅(" 1-3) 오은미(" 2-6) 홍미경(" 1-4) 이준현(" 1-5) 김세중(" 1-1) 이해원(" 2-6) 김유정(" 2-4) 김민정(" 2-3) 이진민(" 1-1) 김소영(은정국 1-1) 김태정(" 1-1) 김남인(청호국 2-2) 박혜인(천진국 1-1) 전수현(영랑국 1-2) 이미다(" 1-3) 주은경(" 1-2) 황정호(" 1-3) 김지현(" 1-4) 이보아(" 1-4) 고찬규(" 1-2) 김정윤(" 1-4) 서명원(" 1-4) 김현일(" 1-4) 광미선(" 1-3) 황순호(" 1-3) 김소영(인홍국 2-1) 박효정(" 2-1) 최예지(" 1-1) 이수진(교동국 2-1) 김재희(" 1-3) 최종은(" 1-8) 송윤희(" 2-6) 박희진(" 1-4) 정민혜(" 1-4) 주미애(" 2-4) 김진영(" 2-5) 김소희(조양국 1-1) 홍종욱(" 2-2) 오유경(" 1-1) 우민경(" 1-3) 최영득(" 2-1)

◆ **국민학교 3,4학년**

- ▲금 : 정혜윤(영랑국 3-4)

▲은 : 박형호(중앙국 4-2) 이지영(중앙국 4-2) 안은비(영랑국 4-4)

▲동 : 최윤희(중앙국 4-2) 김향실(속초국 4-5) 장수인(영랑국 3-1)

▲장려상 : 김혜림(교동국 3-2) 김정희(" 4-7) 김주영(" 3-5) 이세민(" 3-4) 김덕중(" 4-2) 김현정(" 3-7) 김나현(" 4) 조아라(" 3-7) 박윤희(" 4) 이정훈(" 4-7) 김궁기(영랑국 3-1) 신송이(" 3-4) 윤민우(" 3-4) 탁대열(" 3-4) 김세나(" 3-4) 이유리(" 4-1) 권유정(" 4) 김민우(" 4-5) 주동혁(" 4-4) 이상아(속초국 4-1) 김양희(" 4-4) 최정운(" 4-5) 이지현(" 4-2) 이유나(" 3) 민승기(" 4-3) 양지숙(청호국 4-1) 김태영(온정국 3-1) 김택승(중앙국 3-4) 박혜진(" 4-1) 김수연(" 4-2) 신지아(조양국 3-2) 전다운(" 4-3)

▲입선 : 이용석(속초국 4-6) 김민형(" 3-5) 남상균(" 4-4) 신혼철(" 3-3) 송하늘(" 3-5) 조보현(" 4-1) 권혁재(" 3-5) 김정현(" 4-1) 김성미(" 3-6) 이보람(" 3-5) 어이지(" 3-1) 오한나(" 3-1) 정수진(교동국 3) 박나리(" 3-5) 김성은(" 4-6) 이윤림(" 4-6) 정세원(" 3-2) 양은빛(" 3-5) 장지혜(조양국 4-3) 황은영(" 4-3) 이수정(" 4-3) 최재혁(중앙국 3-1) 김태향(" 3-3) 지은선(" 3-4) 추성호(" 3-1) 이은미(천진국 4-1) 김은혜(영랑국 3) 서주희(" 4-4) 장덕영(" 3-1) 양승연(" 3-4)

◆ 국민학교 5,6학년

▲금 : 박주희(교동국 5-2)

▲은 : 황연주(중앙국 6-1) 박선미(속초국 6-5)

▲동 : 이진이(온정국 6-1) 노주리(교동국 5-5) 이시내(교동국 5-3)

▲장려상 : 박수경(속초국 5-5) 임영선(" 5-6) 김수진(" 5-5) 김은영(" 5-5) 최선미(" 6-5) 최태영(" 5-4) 김미경(" 4-6) 조유경(" 6-5) 이현지(" 6-4) 엄수경(교동국 6-1) 길이빛나(" 6) 신현정(" 5-7) 김희선(" 5-3) 김미소(" 5-1) 이화선(" 5-2) 변영란(" 6-4) 유재호(" 6) 이혜진(" 5-2) 신미희(영랑국 6-3) 선미숙(" 6-1) 남성우(" 6-2) 최은석(" 6-4) 정명숙(천진국 6-2) 고지선(" 6-2) 김주경(회룡국 5) 김상진(현북국 6) 김일기(온정국 5-1) 정재욱(" 6-1) 송영운(" 5) 이남수(" 5-1)

▲입선 : 이우철(영랑국 6-1) 최지혜(" 6-2) 이필호(" 6-1) 손지혜(" 6-4) 김은미(" 6) 안상희(" 6-4) 신아희(" 6-2) 최지혜(" 5-2) 강성희(" 5-2) 김지현(중앙국 6-4) 심어해(" 5-2) 신은경(" 5-4) 강형은(" 6-2) 윤성희(" 5-1) 박은정(" 6-4) 박현석(" 6-3) 양은영(회룡국 6-1) 김보영(" 6-1) 이현숙(교동국 6-2) 김주열(" 6-4) 이미지(" 6-1) 함인애(" 5-2) 김보민(" 5-1) 유서라(" 6-2) 김남길(조양국 5-1) 남진희(청호국 6-1) 홍준영(강현국 5-1) 양철주(속초국 5-1) 이정명(" 6-6) 최순정(" 5-3) 정경아(" 5-1) 송은지(" 5-4) 장선자(인흥국 6)

◆ 중학교

▲금 : 박민희(설여중 2-8) 김보라(" 1-2)

▲은 : 조혜란(설여중 2-3) 안유진(" 1-2) 이의신(" 2) 김창우(" 1-5)

▲금 : 김우량(설악중 2-2) 김인기(" 2-2) 손영근(" 2-3) 박종근(" 2-2) 권현석(속

초중 2-2)

▲장려상 : 최윤성(설악중 2-3) 홍승환(" 1-2) 하재로(" 1-2) 이명환(" 2-3) 정병민(" 1-2) 장태식(" 1-2) 김경미(설여중 1-7) 원미선(" 1-7) 강성혜(" 1-7) 윤성필(속초중 2-4)

◆ 고등학교

▲금 : 장지선(속초여고 1-8) 이윤미(고성고교)
▲은 : 성운봉(속초여고 1-5) 김선영(속초여고 1-4)

* 제6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시상내역 *

▲대상 : 장미혜, 김연옥(△학교; 속초상고3 △곡명; 내사랑투유 △상; 예총회장상(장학금 20만원))
▲금상 : 문지은(△학교; 속초여고2 △곡명; 채워지지않는 빈자리 △상; 염예협회지부장상(장학금 15만원))
▲은상 : 최철웅(△학교; 고성고2 △곡명; 우리 모두여기에 △상; " (장학금 10만원))
▲동상 : 박미희(△학교; 고성고2 △곡명; 유리창엔비 △상; " (장학금 7만원))
▲장려상 : 이상민, 양정규(△학교; 양양고2 △곡명; 텅빈객석 △상; " (장학금 5만원)) 최병용(△학교; 속초고1 △곡명; 라이온킹 △상; " (장학금 5만원))
▲인기상 : 장충동, 김대익, 박정민(△학교; 속초고1 △곡명; 단발머리 △상; " (장학금 5만원))

* 제3회 설악 음악콩쿠르트 시상내역 *

◆ 초등피아노

▲금상 : 최용주(교동국 6)

▲은상 : 이정미(속초국 6) 양경은(교동국 4)
▲동상 : 황연주(중앙국 6) 안현정(교동국 6) 김정민(영랑국 5)
▲장려상 : 이장미(교동국 6) 김우영(중앙국 4) 김보배(영랑국 4) 김슬이(중앙국 5) 이미영(영랑국 5)

◆ 중등피아노

▲금상 : 안주희(양양여중 3)
▲은상 : 정혜심(설악여중 1)
▲동상 : 윤지선(설여중 3)
▲장려상 : 함지영(설악여중 2) 정진향(설악여중 3) 김성희(양양여중 2)

◆ 성악

▲금상 : 이향하(교동국 5)
▲은상 : 임주영(조양국 6)
▲동상 : 남궁세은(간성국 4)
▲장려상 : 김아름(속초국 5) 김혜성(중앙국 6)

◆ 관현악

▲금상 : 조상진(교동국)
▲은상 : 장민진(양양국)
▲동상 : 이도영(교동국)

■ 중국 요령성 경극단 초청공연

속초예총(지부장 : 사상철)에서 주최한 제6회 속초종합예술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속초종합예술제에 국제 규모의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에게 폭넓은 문예감상의 기회를 부여, 지역최대의 순수예술제로 정착 승화코자 6월13일(화) 오후7시 중국요령성 경극단 초청공연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졌다.

아울러 금번 초청공연을 계기로 특히 한·중 민간예술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예술 이해도 증진 및 친선도모에도 이바지

가 크게 기대됐다.

초청공연한 요령성 경극단은 1947년에 설립되었으며 세계 유수의 도시를 순회하여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극단으로 중국내에서도 다수의 수상실적이 있는 실력을 인정받는 극단으로 지역민에게 좀처럼 보기힘든 이국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공연작은 “양장관” “노용관”등을 공연하였으며 관람객은 800여명이였다.

단장 고화, 연출 주연백, 단원 고성검, 손명춘등 스태프포함 출연진은 총 15명이였다.

■ 95-3차 간사회의

95-3차 간사회의가 지난 6월30일(금) 오후 6시에 예총사무실에서 개최 되었다.

-주요안건

- 제6회 속초종합예술제 평가회

■ 크리스티나 폰타넬리 내한공연

지난 7월11일(화) 7시30분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도레미예술기획(대표 : 원영백)과 연계하여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폰타넬리 초청 공연을 가졌다. 폰타넬리는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공연을 통해 화려한 기교의 목소리를 소유한 실력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본 공연에서는 O SOLE MIO등 시민에게 친근한 곡은 물론 특히 임수철(속초예총간사)작곡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와 우리 가곡을 불러 관객으로 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다.

총 관람객은 550명이였으며 피아노는 전주대 교수인 김동진씨가 맡았다.

■ 사진작가협회 창립총회

속초사진 예술발전과 지역 사진작가들의 권익증진및 협회창립을 목적으로 속초사진작가협회 창립총회가 7월14일(금) 오후6시에 문화

회관 문화식당에서 총회모임을 가졌다.

속초예총지부장(사상철)및 임원, 지역 언론인 및 본 회원 18명등 30여명이 모인 이날에 초대 속초사진협회 회장으로 최이권씨가 선임되었다. 신임 최이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 30회 설악계 기간에 창립전시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시일내 중앙사진작가협회 인준을 받아 지역 사진예술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회장으로는 최홍영, 성동규 고문으로는 60년대 속초예총회장을 역임한바있는 최구현씨가 추대 되었다.

■ 박라나 하프독주회

지역 음악발전을 도모코져 박라나 초청 하프독주회를 지난 7월22일 오후 3시와 7시30분에 속초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회 공연을 가졌다. 속초예총과 도레미 예술기획이 주최하여 초청공연한 금번연주회에서 지역 청소년과 일반인의 높은 관심속에 연주회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3시 공연엔 지역 청소년들이 대거 입장하여 직접적으로 접하기 힘든 하프에 대한 연주자의 설명과 연주를 통해 하프를 이해하는데도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시민의 높은 호응속에 연주회가 성료되었다.

박라나는 세계적인 권위있는 콩쿨 수상경력 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명성을 얻고있는 하피스트로 현재 서울대, 중앙대드에 출강하고 있으며 이날 공연에 플룻은 김희숙씨가 맡았다.

■ 강원외 풍경화 지역 순회전

강원의 풍경화 지역 순회전이 8월1일부터 7일간 속초시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갖었다.

미협 강원도지회에서 주관한 본 전시회에 도내 82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속초미협에서는 박동국, 신동진, 이동명, 정광섭 등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 95-4차 간사회의

8월3일(목) 오후 6:00에 예총사무실에서 95-4차 예총속초지부 간사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안건

- 제7회 속초시민문화상 추천건
- 제37회 강원도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건등

■ 세종국악관현악 초청공연

세종국악 관현악 초청공연이 8월30일, 9월1일 양일간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갖았다. 속초예총이 주최하고 도레미예술기획(음협사무국장: 원영백)이 주관한 본 관현악 초청공연에 관내 초등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단체 무료관람을 하였다.

프로그램에선 국악이야기(해설)에 이어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접목을 통한 다양한 연주를 통해 우리가락의 이해와 노래와 기악이 어우러진 연주회로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하였다고 평가되는 공연이었다.

■ 향토작가 초대전

9월12일부터 18일까지(7일간) 속초문화원 초대 향토작가 미술 전시회가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95 미술의해를 기리고 지방미술인구 저변확대와 지역미술발전및 성화에 이바지코자 개최된 본 전시회에서 예총 미술협회 회원 23명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 김광수 개인전

김광수화백 개인전이 9월15일~21일까지 7일간 아남쇼핑 19층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본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은 작가가 평소 설악과 동해의 비경을 사실적으로 확폭에 담아온 작품을 주로 소개되었다. 김광수화백은 속초예총 2대 지부장을 역임한바 있다.

■ 이임례여사 초청공연

9월23일(토)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속초예총이 주최하고 도레미예술기획이 주관한 이임례여사 초청 판소리 한마당이 공연되었다. 오후 3시와 7시30분 2회의 공연에 9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명창 이임례여사는 제19회 전주대사습 판소리명창부 장원을 수상한 영화 "취모리"의 실제인물인 국악인이다.

■ 안동호, 송희송 듀오 연주회

9월30일 오후 7:30분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안동호, 송희송 듀오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속초예총이 주최하고 도레미예술기획이 주관한 본 연주회에서 바이올리니스트안동호, 첼리스트 송희송은 서울음대, 비인국립음대 출신의 주목받는 부부음악인이다.

이날 연주회에서 피아노는 추계예대교수인 계명선씨가 맡았으며 학생 및 시민 450여명이 연주회를 감상하였다.

■ 95-5차 간사회의

10월6일 오후 6시에 예총 95-5차 간사회의가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주요안건

- 제30회 설악문화제 문예행사 추진건등

■ 제30회 설악문화제 기념 연극공연

설악제경축 연극공연이 연극협회속초지부(지부장: 장규호)주관으로 9월9일~10일 양일간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후 4시, 7시 총4회 공연을 갖었다.

설악제를 문예행사로써 승화함은 물론 지역극 발전에 이바지코저 50여일간의 맹훈련끝에 무대에 올린 본 작품은 박 승희작으로 조선시대 매관 매직을 풍자한 해학극 "이대감 망할대감"으로써 연출은 장규호가 맡았다. 연 관람

인원은 1,500여명으로 한국문예진흥원 및 설악문화재단 후원회 후원에 힘입어 전회 시민에게 무료 관람을 하였다.

■ 제30회 설악문화제기념 예총 사진협회 창립전

제30회 설악문화제 기간인 지난 10월9일~11일까지 3일간 속초사진협회 창립전이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협회회원 16명이 다양하고 개성있는 작품을 출품, 지역을 찾은 관광객은 물론 많은 시민이 작품을 감상 호평을 받은 전시회였다.

■ 자매결연 10주년기념 연극공연(그레샴시 방문공연)

연극협회(지부장 : 장규호)에서는 속초시와 미국오레곤주 그레샴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로 박승희작 장규호연출 “이대감 망할대감”을 그레샴시 후드대학 문화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제30회 설악문화제때 속초시민에게 선보였던바있는 본 작품은 조선시대말기의 시대적 병폐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총 11회의 공연(아동 8회, 성인 3회)을 하였다.

5,000여명을 웃도는 관람객이 입장하는 대성황에서 그레샴시 초유의 문예 단체관람이라는 대기록도 함께 달성 하였으며 현지언론의 매일같은 극찬은 물론 교포사회에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고양과 한국의 문화예술을 미국사회에 선양하고 또한 자매양시의 유대감 및 우호협력에도 이바지한바 지대하다 평가 되었다. 공연단은 연기자 6명 음향, 미술, 분장, 슬라이드, 조명포함 6명, 무대스텝 3명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공연후 캐나다 일원을 견학한뒤 29일 귀국하였다.

■ 안승범 클레식키타초청연주회

도레미예술기획(원영백 : 음협사무국장)과 속초예총에서는 11월4일 우리지역키타음악발

전을 위하여 안승범클레식키타 초청연주회를 개최하였다.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및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파토리의 주제를 연주한 이날 공연에 오후3시, 7시30분, 2회에 걸쳐 1,000여명 이 작품을 감상하였으며 연주곡마다 연주자가 곡해설을 곁드려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연주자 안승범은 허병훈, 신인근등의 사사와 한국기타협회 지부장등을 역임하였으며 워크샵, 가스터크레스 국내다수의 연주경력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키타리스트이다.

■ 제11회 속초시 서예교육연구회원전

속초시 서예교육연구회(회장 : 박재호)에서는 속초예총이 후원한 제11회 속초시 서예교육연구 회원전을 11월4일부터 8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연구회는 속초, 양양, 지역교사로 회원이 구성되었으며 총 25명의 작품이 출품 전시되었다.

■ 95-6차간사회의

예총속초지부 95-6차 간사회의가 11월6일 오후6시에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주요안건

- 96 강원도 문예진흥기금 신청전
- 자매시 공연경과 보고전
- 제77회 전국체전 문예행사 참가전 등

■ 95강원예술인 평가회

95강원예술인 평가회가 예총도지회 사무실에서 12월12일 오후2시 예총도지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 속초에서는 김종규 의 사과장과 연극협회사무국장 김귀선씨가 감사패와 공로패를 배동욱 예총도지회장으로 부터 각기 수여 받았다.

■ 제5회 음악협회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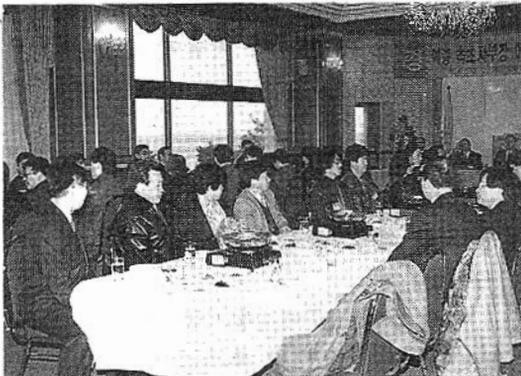
음악협회 속초지부(지부장 : 심연홍)에서는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2월16일 오후7시에 제5

'95년도 속초예총 주요업무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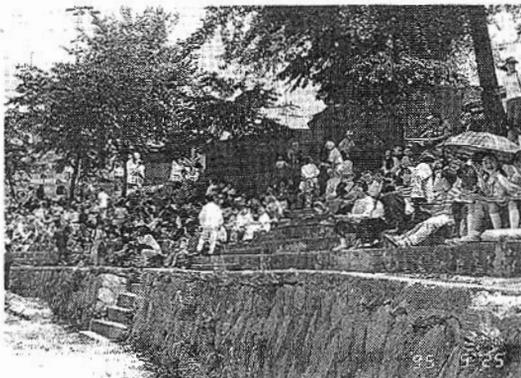
회 음악협회 정기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음협
년중 최대의 축제로서 피아노독주, 소프라노,
가야금, 첼로독주등 다양한 레파토리를 시민에
게 선보여 많은 갈채를 받았으며 주요 출연진
은 설악음악콩쿨 입상자를 비롯 안혜정, 윤진
경, 어은미등였다.



◆예총속초지부 제6차 정기총회



◆예총 3,4대지부장 이·취임식



◆제6회 학생백일장, 주부백일장
제6회 학생미술실기대회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시상식



◆제1회 국제아동미술전



◆미술의해기념 미협속초지부전(제1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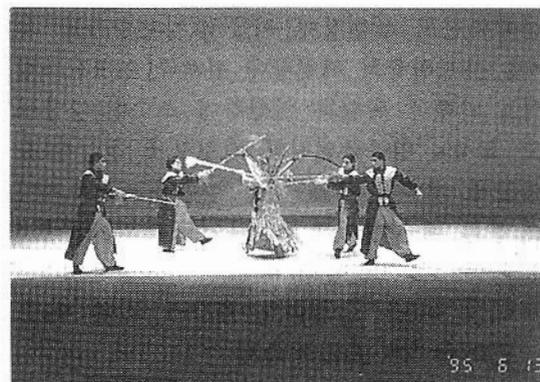
◆제6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연극공연 "자매시 10주년기념-미국오레곤주그레삼시 후드대학공연장"



◆제3회 설악청소년 음악 콩쿨



◆중국요령성 경극단 초청공연



◆제30회 설악문화제기념 "사진협회창립전"



◆세종국악관현악 초청공연

민예총 속초지부 사업보고

■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창립

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속초지부가 1995년 1월24일 창립되었다. 동진 리호텔 회의실에서 거행된 창립대회는 건강한 민족문화의 발굴, 계승, 보급을 통해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강원 민예총 속초지부 위원장으로 업상빈(거진공고 교사)씨를 선출하고 이어서 문학위원회 위원장에 박종현(강현중학교 교사), 사진위원회 위원장에 전태극(현대전자경영), 민족극 위원회 위원장에 조수현(양양여고 교사), 민족극위원회 위원장에 천성필(풍물굿패 갯마당 대표)씨를 선출하고 속초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하였다.

■ 해방 50년 강원정도 600년 기념 속초 민예총 '95 종합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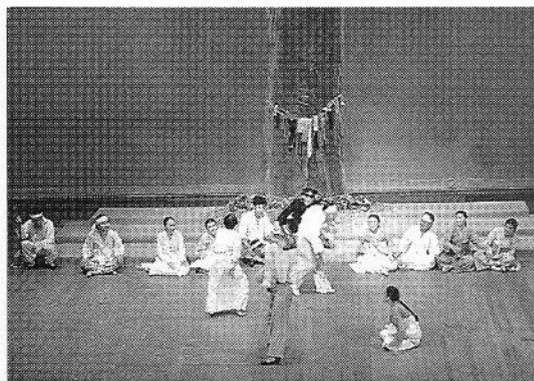
민예총 속초 지부가 창립된 후 대규모의

첫 사업으로 해방 50년 강원정도 600년 기념 종합 예술제가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간 문화회관 대강당, 문화회관 전시실, 문화사랑방 그리고 수복탑 광장에서 열렸다. 민족극 위원회, 민족극 위원회, 인형극 위원회, 사진 위원회, 문학 위원회가 참가하여 벌인 이번 예술제는 민예총 창립을 속초 시민에게 알리고 문화 예술의 폭을 넓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제13회 민속예술 경연대회 경축 속초 민예총 예술제

속초 민예총 예술제가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속초 문화원 문화 사랑방, 속초신협 전시실,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예술제는 속초에서 거행된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경축하고 속초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였다.

■ 연극 위원회 '아리랑 공연'



해방 50년 강원정도 600년 기념 속초 민예총 종합 예술제 '아리랑'연극 공연
박성재원작, 임상호 연출의 '아리랑'공연을

속초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7월1일부터 7월2일까지 총 4회 공연이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인恨을 '아리랑'이라는 작품에 투과시켜 새로운 각도로 비쳐본 이 작품은 20여명의 배우들이 무대를 꽉 매운채 우리네의 아픔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민족의 삶을 상징적으로 형상화시켰다.

민예총 연극 위원회는 극단 「파·람·불」 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파·람·불」은 89년 '칠수와 만수' 공연을 시작으로 91년에는 '한씨연대기'로 전국 연극계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이번 '아리랑'은 10번째의 공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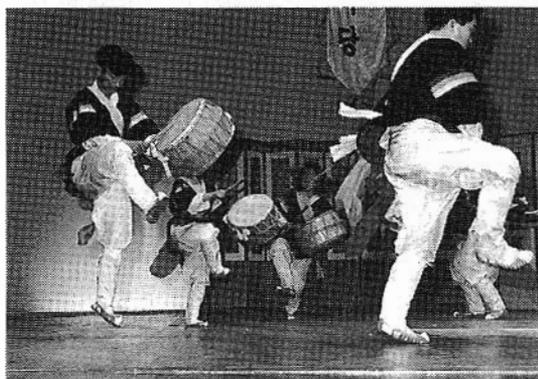
△연극 위원회 '아리랑' 강릉 공연

연극 위원회 '아리랑' 강릉 공연이 9월24일 강릉문화예술관에서 열렸다. 2회 공연에 800여명의 관객이 관람한 이번 강릉 공연은 이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恨을 바탕으로,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는 민족의 바램을 그린 작품으로 지역을 초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관이 개관한 이래 단일 공연으로 가장 많은 관객이었다는 예술관 관람자의 말처럼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인형극 위원회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공연

속초 민예총 인형극 위원회에 참가한 인형극단 '일곱 난장이'(대표 진금난)가 해방 50년 강원정도 600년 기념 속초 민예총 종합예술제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를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렸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단 '일곱난장이'의 창단 공연인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는 속초시의 어린이들을 관객으로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공연이었다.

■민족굿 위원회 '새봄맞이 제2회 갯마당 정기공연'



속초 민예총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속초 유일의 풍물굿패 '갯마당'은 우리 겨레 고유의 민속 유산인 풍물을 통하여 지역민과 더불어 지역 문화를 가꾸고 보존하며 건강한 풍물놀이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우리것'을 찾아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민족굿 위원회가 민예총 창립이후 가장 먼저 벌인 공연이 '새봄맞이 제2회 갯마당 정기공연'이다. 95년 3월4일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갯마당 정기공연은 속초시민은 물론 관내 학생들이 대거 관람하여 '우리것'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연이었다.

△민족굿 위원회 '산자의 해방굿' 공연

해방 50년 강원정도 600년 기념 속초 민예총 종합예술제에 민족굿 위원회의 산자의 해방굿공연이 7월2일 수복탑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열림굿, 통일굿, 통일 비나리, 살풀이춤, 대동놀이의 순으로 이어져 지나가는 시민의 발목을 잡아놓고 신명나게 한바탕 놀아본 공연이었다.

△민족굿 위원회 제13회 민속예술경연대회 축하 '풍물 놀이 한마당' 공연



민속예술경연대회 경축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풍물 놀이 한마당'이 9월13일 속초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판굿, 삼도풍물굿, 삼도설장구, 비나리의 순으로 진행된 공연에는 우리 고유의 민속 예술의 모습과 날로 기량이 향상되는 갯마당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 사진 위원회 '신평리 풍경' 전시

설악신문사에서 문화사업으로 기획한 사업중 그 첫번째로, 현 민예총 속초 지부장으로 있는 엄상빈씨가 초대되어 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신평리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5월20일부터 23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 작품에서 엄상빈씨는 잼버리대회등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자연과 사람의 삶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 사진 위원회 '해방 50년 기념 기획사진 5인전'

해방 50년 강원정도 600년 기념 속초 민예총 95 종합예술제에 참여한 사진위원회가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시회에 참여한 5인은 각기 민족의 수난사와 우리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역사적 흔적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조명하여 앞으로의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 사진 위원회 '기획사진 5인전' 개최



제1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경축행사의 하나로 기획된 '기획사진 5인전'이 9월12일부터 16일까지 속초신협 전시실에서 열렸다. 관광도시인 속초,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속초의 모습들이 전시된 이번 행사는 속초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속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 관광도시의 폐해도 생각하게 하는 전시회였다.

△ '고성-오늘展'

고성 수성문화재단행사의 일환으로 고성문화원에서 초청 기획한 엄상빈 사진전이 9월20일부터 23일까지 고성문화원에서 열렸다. 고성 지역의 군민들이 다수 참여한 이번 개인전에서 작가는 한시대의 단면이 아니라 고성이 겪어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총체성을 들어 내고자 하였다. 그것은 고발이자 상처이며 사랑이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희미하게나마 다음에 만나게 될 세상에 대한 어떤 대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 사진 위원회 '민족사진작가협의회 창립전'

민족사진작가협의회(민사협)창립전이 10월2일부터 7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제30회 설악문화제 경축행사를 겸하여 열린 이번 전시회는 속초를 시작으로 동해, 강릉에서 순회 전시되었다. 민사협 강원지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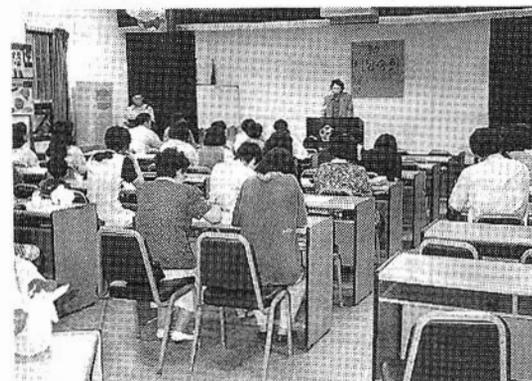
95년 3월11일 도내 사진 작가 9명이 모여 결성하였으며 속초에서는 김정일, 김홍수, 박영철, 엄상빈, 전태극씨가 참여하고 있다.

■ 문화 위원회 '청소년 문학 캠프' 개최



문학 위원회에 참여하고있는 영북 문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문학 캠프가 올해는 7월28일부터 30일까지 양양군 한남 국민학교에서 열렸다. 속초, 고성, 양양의 청소년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속초지역과 도내의 시인들이 참가하였으며 문학과 연극, 사진 예술에 관하여 강의 및 토론이 있었다. 청소년들의 문학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들의 순수성과 예술에 대한 사랑을 높인 이번 행사는 해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열리고 있다.

△해방 50년 강원정도 600년 기념 문학 위원회 '시 낭송회'



속초 민예총 종합예술제에 문학위원회는 '시 낭송회'를 7월1일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열었다. 시 낭송회와 문학강좌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학위원회 회원과 초대 시인, 주민, 독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시를 낭송했으며 문학강연이 있었다.

△문학 위원회 제13회 민속예술경연대회 경축 '민속 테마시 낭송회'



민속예술경연대회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문학 위원회의 '민족 테마시 낭송회'가 9월14일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열렸다.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취지를 살려 민속 테마시를 낭송한 이번 시 낭송회는 회원시 낭송(이상국, 김영준, 장승진, 김명기, 김창균, 최광호, 박종현) 14편과 학생시 낭송 3명 5편, 그리고 민족문화강연회가 강사 최종덕씨의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진 이번 시 낭송회는 시(詩)를 쉽고 친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속초도서관 주요업무 소개

I. 속초도서관 소개

속초도서관은 도서, 기록, 시청각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고 평생교육 및 문화의 산실로 자리하고자 1987년 12월4일 속초시 금호동 488-2번지에서 탄생되었다. 7,710㎡(약 2,332평)의 부지에 2,337㎡(약 706평)건물로 들어선 속초도서관은 602석의 열람실과 종합자료실, 모자열람실, 회의실(강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도서관이라는 운영목표를 가지고 도서관 자료의 확충 및 이용극대화, 도서관의 열린문화공간화, 독서분위기조성 및 봉사활동 강화라는 실천목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 속초교육청 산하로 속초시 교동 636-69번지에 위치한 속초시공공도서관은 속초도서관교동분관으로 되어 462석의 열람실과 자료실, 어린이열람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가.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운영

속초도서관은 '87년 개관시부터 지역여건상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차량에 책을 싣고 방문,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봉사해 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로써 독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적극유발하고 새로운 이용자 층을 확산, 도서관이 소장한 많은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독서인에게 배분하여 자료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이동도서관은 시내 집단거주지 뿐만 아니라 책을 접할 기회가 적은 오지지역까지 격주로 순회 대출하고 있으며, 군부대 민통선지역, 벽지학교등은 순회문고를 개설하고 월 1회로 순회하며 대출해 주므로써 도서관의 봉사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속초도서관을 바로 알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II. 속초도서관 '95주요사업 내용

1. 주민생활속으로 찾아가는 적극적 봉사

*이동도서관 순회 지역표

(’95.10 현재)

요 일	순 회 지 역	요 일	순 회 지 역
월	희룡, 상운국교, 산학진료소 8군단통신대, 송정국민학교, 어천리진료소, 송포, 상평국교	월	공현진국교, 학사평군부대, 도원진료소, 용암진료소, 성천진료소, 명파리진료소, 22사단화학지원대
화	설악한신아파트, 조양동, 해성아파트, 진덕맨션, 동명아파트, 설악빌콘, 빌리지	화	주공2차, 럭키설악1차, 로얄나하나, 삼환, 럭키설악2차아파트
수	공현진국교, 화학지원대, 학사평군부대, 용암진료소	수	성천진료소, 도원진료소, 희룡국교, 석교리진료소
목	부영아파트5블럭, 6블럭, 9블럭, 양양로얄아파트, 정아, 현대, 충용아파트 대명2차, 송하, 양우아파트, 학야리,	목	간성군인, 동해아파트, 거진리, 거진읍사무소, 고성군청 주공1차, 주공3차, 현대설악, 현대중
금	삼포리, 고성군농촌지도소	금	선, 럭키아파트, 설악빌리지, 속초비행장

나. 작은도서관운영

우리도서관에서 추진해온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에게 내집의 서재가 되어 독서생활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직장인과 아동들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5월부터 속초시 교동 삼환아파트(648세대)에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키로 하고 '속초도서관 삼환문고'(30평)을 개설 하였다. 아파트 측에서 장소와 열람석(44석), 서가를 마련하였고 본 도서관에서는 도서를 제공하여 운영되고 있다.

- 비치도서 : 1,500권(성인도서 : 1,000권, 아동도서 500권)-분기별 교환 정기간행물 3종 3부
- 대출책수 : 1인 2~3권
- 대출기간 : 1주일(1회연장가능)
- 대출방법 : 아파트 등, 호수, 전화번호 자필기재
- 설치현황 : 7단단면서가 4개, 열람석 56석
*삼환아파트 지원 : 열람석 44석

다. 해변도서관 운영

해변도서관은 속초해수욕장 내에 15평규모

의 공간을 확보하고 도서 2,000권, 열람석 24석을 마련하여 피서객 및 인근주민등을 대상으로 도서대출 및 열람봉사를 실시하였다. 해변도서관은 언제 어디서나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범 국민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건전한 피서지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95년도에는 1,927명이 3,013권을 이용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2. 찾아오는 도서관

가. 자료의 완전개가제 및 편리한 관외대출

우리도서관은 '87년 개관 이래 이용자의 편의에 서서 종합자료실과 모자열람실의 완전개가제 운영하고 있으며 수월한 관외대출제도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내집 서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4년도 속초도서관 이용자 및 이용도서는 240,236명 242,164권으로서 속초시민 8만여명이 연평균 3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도에도 꾸준히 도서관을 찾는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나. 시민독서 운동 전개

*독서생활화 운동 프로그램

행 사 명	기 간	대 상	내 용	비 고
독서교실	1월, 8월 (연2회)	국민학교 4, 5학년생	도서관이용법, 독후감 작성법, 바르게책읽는 법, 마음열기 등 19개 과목	겨울, 여름 방학 중 7일간
1일 현장학습	연중	유치원생 및 국민학생	도서관 견학, 도서관이용법, 독후감상문쓰는법, 원고지쓰는법 지도	'나의 독서록'제공
어린이독서회	연중	국민학교 4, 5,6학년생	독서토론, 논리학습, 주제별 토론, 글쓰기 지도	매월 둘째, 네째 토요일(매월 2회)
어린이 글짓기 및 독후감상문 대회	4월, 9월	속초, 양양, 고성 관내 국민 학생	자유주제에 의한 글짓기 및 독후감상문 모집, 시상	

속초도서관 주요업무 소개

행 사 명	기 간	대 상	내 용	비 고
어린이 교실	연중	유치원생 및 국민학생	글쓰기 지도, 동화구연, 고전읽기, 비디오 방영	
청소년독서회	연중	중학생	독서지도, 토론, 신문읽기, 문화유적지 답사	
강연회	4월, 9월	지역주민	문학 및 교양강좌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청소년에게 권하는 책 발간	7월 12월	초, 중, 고등학생	소장도서 가운데 필독도서와 장도서 목록 발간, 배부	방학전 학교를 통하여 배부
중·고등학교 독서반 지원	연중	중·고등학교 독서반원	독서지도, 정리업무 지도	속초여고, 속초상고, 속초중, 속초여중
학교도서담당교사 간담회	매년 1회	속초, 양양, 고성 지역 68개 초·중·고등학교 도서담당교사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 모색	
학교장 초청 간담회	매년 1회	속초 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도서관 역할 홍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독후감상문 대회	매년 9월 (매년1회)	초·중·고·대학 및 일반인	자유독서를 통해 독후감 쓰기	1회 20명 시상
주부독서회	연중	주부	독서토론, 생활정보교환, 시낭송회, 문화유적지 탐방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1회)
우수독서가및 독서가족 표창	9월	도서관 이용자	초·중·고·대학 및 일반인별 모범이용자와 다독자 시상	독서의 달
이용자 좌담회	9월	도서관 이용자	이용자 의견 수렴, 도서관 홍보	독서의 달
도서관 이용 및 독서실태조사	4월	지역주민	대상별 설문조사	도서관 주간
권장도서목록배부	4월, 9월	초·중·고·대학 및 일반	소장도서 가운데 권장도서목록 발간, 배부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가두 캠페인	4월, 9월	지역주민	‘권하는 책’도서관 이용안내문 배부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도서관소식’지 발간	연중	지역주민	도서관행사소개, 독서지도, 좋은 책 소개 등	발행 격월간
홍보활동	연중	지역주민	지역언론매체(신문, 라디오, TV)등 반상회보를 통한 도서관 홍보	
‘청독’지 발간	9월	지역주민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인사 글모음집	

3. 도서관 문화사업

'92년부터 운영한 속초도서관 문화학교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의 사회교육과 예술적 감성훈련을 통하여 문화심성함양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므로써 사회교

육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를 굳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좌에 참여하였으며 '95년도에는 9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95년 도서관문화학교 운영내용

강좌명		기간	요일	내용
한문	초급반	연중	매주 화요일	동몽선습, 맹자
	중급반		매주 목요일	논어
서예		2월~11월	매주 화, 토요일	필법(한문5체등)
한국화		2월~11월	매주 수요일	화법 및 수묵화
영어		2월~11월	매주 수요일	기본발음이해및 문법
일본어		2월~11월	매주 금요일	생활회화
어린이 교실	고전읽기	연중	매주 토요일	우리나라 설화
	영어교실	8월	화, 수, 목, 금	ABC들어가기
	비디오방영	연중	매주 일요일	우수비디오 상영

4. 속초도서관 전산화 계획 및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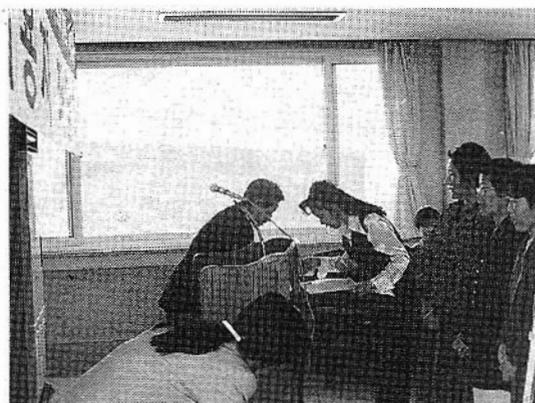
이용자들에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KOR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UNIS SEVER 및 LAN을 설치할 서두

르고 있다. 금년내 전산기기를 도입하고 '96년부터는 도서관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전국 도서관을 연결하는 NETWORK가 형성되어 이용자들에게 봉사될 것이다.

◎ '95 행사 사진 ◎



◆문학강연회-'95.9.15(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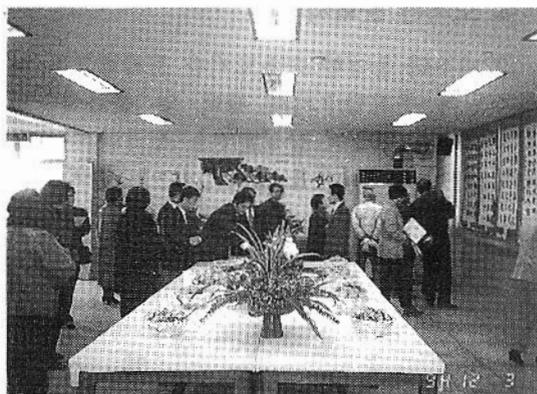


◆우수독후감 및 우수독서가 시상-'95.9.27

속초도서관 주요업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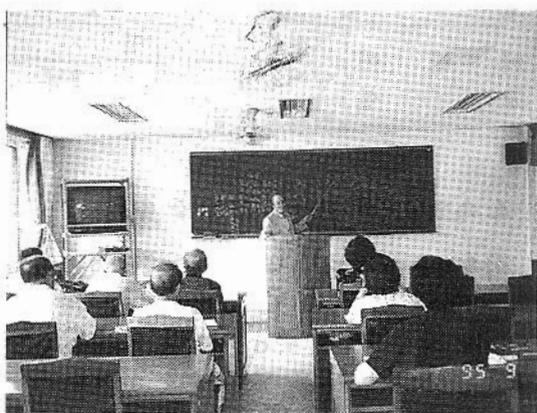
◆이용자 좌담회-'95. 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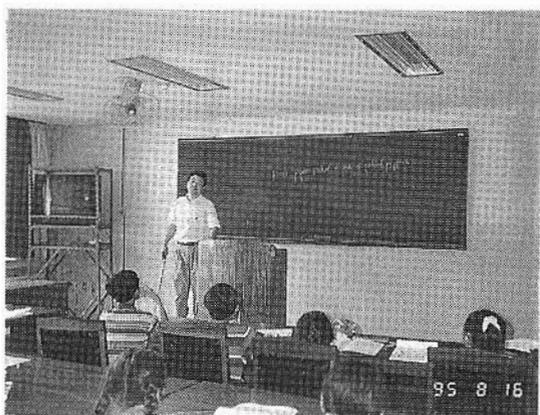
◆전시회



◆독서교실 수료식-'95. 8. 1



◆한문교양강좌



◆어린이 영어교실

지역문화 활성화

최 천 식
문화체육부 사무관

I. 필요성

문화는 근본적으로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가 상호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여야 민족문화가 발전될 것이며,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될 것이다.

지역별로 특성있는 향토고유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의 진작이 지방화시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있는 국민문화 향수기회의 확대신장으로, 국민문화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도 35년만에 부활되어 전면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문화는 지방자치를 할 만큼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에 따른 재정 자립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문화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민족전통문화의 뿌리는 향토문화라고 할 것이다. 지역적인 향토고유문화를 진흥발전시켜 우리문화의 질을 세계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세계화의 한 요체일 것이다.

문화는 나라와 겨레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힘없이 세계경쟁에서 우뚝서는 힘있는 나라가 될 수 없다.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소득이 1만불대에 진입했다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예를들어 쿠웨이트는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하는가?

지역문화 활성화의 진정한 목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인간답게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국민문화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화도 이렇게 될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역문화의 구심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중앙과 지방의 문화과리현상이 심화되어 문화의 중앙 집중화 현상이 평균 70%~전국에 술인 55%, 문화예술행사 70%, 문화시설 30%, 출판 90% 이상으로써 지방문화의 빈곤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므로써 주택문제, 교통문제, 의료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중앙에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인하여 지방은 더욱 황폐화되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문화의식수준은 정부의 세계화 추진에 걸림돌이다.

세계화시대의 도래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문화 활성화가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정부, 기업, 단체에서 어느정도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지방문화활성화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전국에 문화원이 19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매년 10개원씩 증설하여 4~5년 내에는 전

국의 시·군·자치구에 문화원이 균형있게 설립될 것이며, 57개의 문화회관이 전국에 설립되었거나 설립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이 '94년도 부터 매년 10개 곳씩 신설되며 향후 10년간 100개를 신설할 계획을 있다.

2. 문제점

지역문화 활성화가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어느 정도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원점에서 맴돌고 있으며 국민들의 문화수준은 정부의 세계화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문화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몇가지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의 육성 발전을 위한 재정이반이 취약하다.

정부의 정책이 제3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경제 우선 정책을 표방하므로써 문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서해 페리호 참변 등 인재에 의한 대형사건, 사고가 우리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방문화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방문화시설 자체가 지역성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 저기에 건립하므로써 예산낭비가 심하며 건립된 문화시설 자체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지역문화시설이 지역실정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는 편의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립된 것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많고 행정적 편의에 의하여 건립된 곳이 많다. 예를 들어 문화원, 문예회관, 군민(시민)회관, 공공도서관, 복지회관, 청소년시설 등이 이곳 저곳에 건립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일부 지방행 정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은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행정편의대로 운영된 곳도 많다.

셋째, 지역문화 시설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이 없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형편 없어서 이직율이 빈번하다.

지역문화 시설은 점차 확충되고 있으나 문화시설에 종사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이들을 교육시킬 전문교육기관이 없다. 문예진흥원에서 기초교육은 시키고 있으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는 이들을 교육할 전문가나 학자가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대부분이 고용직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고 이직율이 빈번하여 지역문화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지역고유의 전통문화가 파괴되고 지역문화 공동체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

미약한 문헌기록으로 인해 근근히 구전으로 전승되던 우리의 향토문화는 일제 식민지 치하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6·25민족전란을 겪으면서 피폐화 되었고 그나마 남은 것도 산업화와 경제개발 추진으로 인하여 향토문화가 파괴되고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문화의 보편화와 획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문화에 대한 무관심 및 비하 시킴으로써 문화가 위축되고 사라져가고 있으며, 지역적 문화를 중심으로한 주민들의 연대의식도 사라져가고 있다.

다섯째, 지역문화단체가 제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자유총, 바르게살기 등 관련단체에 국고보조금 등이 집중 지원되고 있어서 지역문화기관은 명목뿐이다.

지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 예총지회, 민예총 등이 있고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등 관련단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국고, 문예진흥기금, 지방 재정지원도 이들 관련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서 순수한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원

이 소외되고 있다.

여섯째,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심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없고 국고, 문예진흥기금, 지방비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역적으로 개최되는 문화행사를 살펴보면, 어떤 행사는 시·군에서, 예총지회에서 향토축제는 유산단체에서, 일반적인 문화행사는 문화원에서 주최하므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구심체가 없고 주최, 주관을 달리하는 단체에 국고, 문예진흥기금, 지방비를 분산,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문화 행사의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Ⅲ. 활성화 방안

문화는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문화와 지역문화가 배타성보다는 상호조화롭게 발전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정리해 보면,

첫째, 범정부차원의 『지역문화 진흥위원회』를 (가칭) 구성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계부서(문체부, 내무부, 재정경제원 등)의 관계공무원, 지역문화 전문가, 향토사학자, 자치단체장, 지역문화원장들로 “지역문화정책 추진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향토문화를 발굴·육성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의 구심체가 있어야 하고 국고 등 각종 기금 등이 이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향토의 발굴 육성과 문화행사가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

행하는 문화원에서 추진하여야 하고 국고, 문예진흥기금, 지방비도 문화원에 집중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도 재고하고 전문성도 살려야 한다.

셋째, 지역문화시설의 복합화, 전문화 건립 추진이다.

지역문화기관으로서 기능이 유사한 단체는 문화원, 문예회관, 시민(군민)회관, 공공도서관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제각기 따로 따로 건립하고 있어서 건물의 효율도도 떨어지고, 예산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에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이런 유사한 건물을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복합적으로 건립할 경우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반의 확충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경제부처,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중앙에서 지역성을 무시한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화시대에 모든 것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발상은 지방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지역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정책수립과 재정 지원을 하고 지방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문화시설에 종사할 전문가 양성과 이들에 대한 처우의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문화 시설에 종사할 전문가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건립되어야 하고, 이들이 지역문화 시설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전문직화 또는 별정직화)

여섯째, 지역문화 시설의 꾸준한 확충과 지역성을 고려한 건립추진이 필요하다.

지방박물관, 미술관을 꾸준히 확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에 힘쓰고 국민 정서함양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화시설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및 체육시설은 그 규모나 이용도를 고려하여 시·군·자치구에 1개씩 건립하는 것보다는 인접한 3~4개 시·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나 광역시 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지역문화 공동체 의식의 진작이다.

지역고유의 지역문화가 활성화되어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이 상호 연결되어 상호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향토축제, 출향인사 귀향 활동사업, 향토사료관 건립 등이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중앙문화를 지방무대에, 지방문화를 중앙무대에 소개할 수 있는 지방 문화원의 문화 DB망 기능의 확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문화 시설이 복합화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건립될 경우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를 중앙무대에 올림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에 자극을 주고 진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의 서비스를 전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DB망을 전국문화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IV. 지역문화의 구심체-지방문화원

1. 현황 및 문제점

전국에 190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미설립된 지역이 51개 지역이다. 예산으로는 국고에서 사업비로 1개 문화원에 1천5백

만원과 지방비에서 1천5백만원, 경상운영비 8백3십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사무실 보유실태는 190개 문화원중 13%(25개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란 어렵다. 한편 지방문화원에서 벌이는 문화사업은 향토축제, 지역문화행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주부대상 생활문화 강좌, 노인대학, 미술전시회, 주부백일장, 시낭송회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문화원에서는 지역 향토사료관을 건립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향토사료의 조사·수집·연구·활동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의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립이 가능할때까지 충분한 국고 지원과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문화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문화원의 재정기반이 취약하다.

국고, 지방비를 합하여 1년에 평균 3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으로는 지역문화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경상비를 8백3십만원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 경상비로 사무실도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지방문화원의 자체원사가 없다.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사무실로 빌어 쓰고 있어서 문화강좌 하나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자체를 제대로 치루어 낸다고 볼 수가 없다.

셋째, 지방문화원에 전문인력이 없으며 관변단체화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으며 전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존한 결과 문화원 사업이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

넷째, 지역문화에 대한 문화원의 의식이 부

족하다.

문화사업도 예외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사업은 예산이 많으면 많은대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적으면 적은대로 추진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의 문화사업이 지역성을 고려한 문화행사를 치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직결되는 문화강좌나, 음악회 등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관습적으로 전례답습이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2. 지방문화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

지역문화 활성화가 일반적으로 잘된 나라는 프랑스로서 “문화의 집”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공연장, 전시실, 도서실, 음반감상실, 만남의 장소 등 그 기능이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드골정권이 출범하고 마르로가 초대 문화성장관에 취임하면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의 지방자치’, ‘고급문화의 창달’, ‘수준높은 현대예술의 지방 확산’등을 표방하는 지역문화 진흥에 역점을 두어 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책으로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프랑스 국민들을 세계 1등 문화국민으로 향상시켰다.

프랑스의 “문화의 집”과 그 기능상 비교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나라의 지방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 문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원의 열악한 재정기반의 확충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에서 문화부문에 1%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후원회를 결성·지원해야 한다.

세계 어느 곳을 보더라도 문화사업은 적자일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고 문화원도 출향인사, 연고기업,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한 후원회를 결성 운영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중 문화부문에 1%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문화원 지원을 위한

관계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문화원 회원의 다양한 구성과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

지방문화원 회원은 직업, 학력, 연령, 지역 등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전과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모든 문화행사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문화원장은 지역문화에 대한 분명한 가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정신문화에 대한 책임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에 대한 분명한 가치철학을 가진 사람이 지방문화원장이 되어야 하고 추진력도 겸비해야 된다고 본다.

넷째,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은 지역문화 향토사에 대한 전문가여야 한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원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향토문화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수집활동 전시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하며,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문화원 회원을 배가하여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진작시켜야 한다.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 회원이 고루게 분포되고 시·군·자치구의 인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시 등 광역시는 1,000명 이상, 50만 이상 시에는 700명 이상 기타 시에는 500명 이상, 순수한 농어촌으로 구성된 군단위에는 3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결국 그 지역 인구의 1% 이상이 문화원 회원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문화원의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에 집행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이사회는 지역성과 직업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고 지방문화원 사업의 모든 집행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일곱째, 지역성을 고려한 문화사업을 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지역문화의 교육기능 및 문화강좌로서 '청소년 인성교육', '주부대상 생활문화강좌', '노인대학', '출향인사 귀향문화행사'등을 문화사업과 향토축제, 음악회, 전시회 등을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추진하되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

여덟째, 지방문화원에 문화 DB망을 구축해야 한다.

전국의 문화행사와 연결된 DB망을 지방문화원에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중앙 및 전국차원의 문화행사를 지역무대에, 지역문화 행사를 중앙무대에 올려야 한다.

문화에 있어서 고급, 대중문화를 가른다는 것은 어렵지만 지역적으로 문화에 대한 정서를 고려하여 중앙의 고급문화를 지방무대에 소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방문화를 중앙무대에 올림으로써 지방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는 지역성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주민들에게 마련해 주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군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주민들도 정치와 문화를 혼돈하는 과거를 버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답게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자세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국 시·군·자치구에 190개의 문화원이 건립되어 있으며 공연, 전시, 문화강좌, 음악감상, 도서관,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등 주민들과 인접해 있으면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문화를 펼치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조직이 되

어야 한다고 본다.

한번더 강조하면 『문화의 가치』를 위하여 지역적인 “향토사료관”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지역 구석구석에 까지 미칠 수 있도록 즉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것이어야 하되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에 의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만 하고 추진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연다고 할 것이다.

莊子の 漁夫篇 풀이

菊山 李 建 錫

莊子の 漁夫篇 풀이 菊山 李建錫 莊子は 三世紀 中國 戰國時代의 思想家로서 物의 是非 善惡을 초월하여 自然 그대로 살아가는 自然哲學을 제창 했으며 그의 哲學은 철저하게 個人的 安心立名을 問題삼은데 特邑이 있으며 老子和 함께 道家思想의 中心 뼈대를 이룬바 여기에 三歷三篇으로 그것은 內篇七 外篇十五 雜篇十一篇으로 나눈 바 이 中에서 巾篇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莊子思想의 정수는 이속에 들어 있다 하여 外篇과 雜篇은 巾篇의 思想을 해석한 것으로 莊子思想의 흐름을 계승하는 후인들의 제2차적 저작으로 본다. 다음은 雜篇中 三歷一 漁夫篇을 풀이 옮기고저 한다.

孔子는 검은 장막이라고 불리는 깊은 숲속에 늘 때에 살 구나무 밑의 높은 단에 앉아 쉬고 있었다. 제자들은 책을 읽고 孔子는 노래를 부르며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 한곡조를 반도 타기 전에 漁夫가 배로부터 내려서 다가왔다. 그의 수염과 눈썹은 희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진 채 소매자락을 날리며 강가를 지나 육지로 올라와 멈추었다. 그는 왼손으로 무릎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턱을 괴고서 듣고 있었다. 孔子가 타는 노래의 한 곡조가 끝나자 그는 자공과 자로 두 사람을 불러 같이 만났다. 그 漁夫는 孔子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분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하므로 자로가 “노나라의 군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漁夫는 다시 성을 물으므로 자로는 “성은 孔씨입니다.” 하였다. 漁夫는 “그 孔씨라는 분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하자 자로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자공이 대답하기를 “孔씨는 本性은 忠信을 생각

하고 몸은 仁義를 실천하며 禮樂을 수식하고 五倫을 정하여 위로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교화하여 장차 천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孔子의 하는 일입니다.” 하니 漁夫는 다시 “그러면 그는 영토를 가진 임금이요” 하므로 자공은 “아닙니다.” 하였다. 漁夫는 또 “그러면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인가요?” 하므로 자공은 “아닙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 漁夫는 곧 웃으면서 돌아 걸어 가면서 중얼거렸다. “어질기는 어질다만 아마 그는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괴롭히고 형제를 수고롭게 하면서 그 참된 천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구나. 아 멀도다. 도와 떨어진 것이” 자공이 돌아와 孔子에게 아뢰었다. 孔子는 거문고를 밀치고 일어나 “그는 성인일 것이다.” 하고서 곧 언덕을 내려가 강가에까지 갔다. 그때 그 漁夫는 마침 노를 세워 배를 띄우려다가 孔子를 돌아보고 몸을 돌려 마주섰다. 孔子는 뒤로 물러나 재배하고 앞으로 나아가니 漁夫는 “당신은 내게 무슨 불일이 있으시오.” 하므로 孔子는 “아까는 선생께서 귀찮만 하시고 가셨는데 저는 불초해서 말씀하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려 주셔서 저를 도와 주십시오.” 하였다. 漁夫는 “하하 당신은 매우 배우기를 좋아하는군요.” 하므로 孔子는 두번 절하고 일어나 말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아 六九세가 되었으나 지극한 가르침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제 감히 마음을 공허하게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漁夫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것끼리 서로 따르고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는 것은 진실로 하늘의 이치요 내 청컨데 내가 가진 도를 제쳐놓고 당신이 일삼는 것에 대하여 말해 보리라. 당신이 일삼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천자 제후 대부 서민 이내부류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은 정치가 잘 행해지기 때문이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제 자리를 떠나면 어지러움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관리가 자기의 직책을 다하고 서민들이 자기의 할 일에 걱정을 하면 웃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능멸하는 일이 없게 되고, 그러므로 전답이 황폐되고 가옥이 무너지며 의식이 부족하고 세금이 계속 거치지 않으며 처첩이 불화하고 장유가 무질서한 것은 서민들의 근심거리요 한편 재능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광청의 일이 처리되지 않으며 행동이 결백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게으르고 훌륭한 공로가 세워지지 않으며 작위나 봉록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대부들의 근심거리요, 조정에는 충신이 없고 국가는 어지러우며 기술자의 기술은 교묘하지 않고 공물은 훌륭하지 않으며 봄·가을에 천자를 뵈올때 남보다 높으며 천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제후들의 걱정이고,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가 때를 어겨 만물을 해치며 제후들이 난폭하여 멋대로 서로 침범하여 백성들을 해하여 예악이 절도에 맞지 않고 재정이 궁핍하여 인륜이 정비되지 않고 백성들이 음란한 것은 천자와 곤경대부의 근심이고, 지금 당신은 위로 제후나 곤경대부의 권세가 없고 아래로 대신이나 제후의 경사대부의 벼슬이 없으면서 예악을 멋대로 꾸미고 인륜을 정하여 백성들을 교화하려 하나, 너무나 다사다난하지 않는가? 또 사람에게는 여덟가지 흠이 있고 일에는 네가지 근심이 있으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요. 자기의 일이 아닌데 하는 것은 넘침이라고 하고 돌아다보지도 않는데 간섭하는 것을 간사함이라 하며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하는 말을 아첨이라 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말하는 것을 떠벌이라 하며 남의 잘못을 즐겨 말하는 것을 헐뜯음이라 하고 교재를 방해하거나 친한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을 해침이라 하며 남을 칭찬하여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을 간특함이라 하고 선악을 가리지 않고 둘다 용납하여 안색을 부드럽게 해서 남의 욕망을 엿보는 것을 음험함이라 하오. 이 여덟가지 흠은 밖으

로 남을 어지럽게 하고 안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이니 군자는 그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 법이요 또 이른바 네가지 근심이란 것은 큰일은 잘하려고 몇몇한 법을 고쳐 공명을 드러내는 것을 외람됨이라 하고 지혜를 멋대로 부러움을 독단적으로 하며 남을 침범하면서 제이익만 독점하는 것을 탐함이라 하며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고 충고를 듣고도 더 심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고집장이라 하고 남의 의견이 자기와 같으면 옳다고 하고 자기와 다르면 비록 착하더라도 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라 하오. 이것이 곧 네가지 근심이요 위의 여덟가지 흉을 버리고 네가지 근심을 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오.” 孔子는 슬퍼 탄식하고 두번 절하고 일어나 말하기를 “저는 노나라에서 두번 쫓겨나고 위나라에서는 추방당하였으며 송나라에서는 나무가 베어지고 진나라와 제나라의 국경 사이에서는 포위당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바를 모르겠는데 이런 네가지 비방을 받으니 어찌서 입니까?” 하자 漁夫는 낚시를 고치며 말했다. “심하도다. 당신은 깨달을 줄을 모르는 것이 사람중에 제 그림자를 두려워 하고 제발자국을 싫어해서 그것을 버리려고 달아난 자가 있었오. 그러나 밭은 자주 물면 물수록 밭자국은 더욱 많아지고 뛰기를 빨리해도 그림자는 몸을 떠나지 않았오. 그래서 아직도 계절음이 느려서 그런줄 알고 빨리 뛰며 쉬지 않다가 마침내는 힘이 빠져 죽었오. 그는 그늘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지고 조용히 쉬고 있으면 그림자도 멈춤을 알지 못한 것이오. 그러니 매우 어리석기도 하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지금 仁義의 이해를 살피고 同異의 차이를 관찰하며 動靜의 변화를 보고 授受의 정도를 적당하게 하며 好惡의 감정을 다스리고 喜怒의 도를 중화시키고 있으나 거의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오, 삼가 당신의 몸을 수양하고 자기의 眞性を 삼가 지키며 의물에 대한 명성을 남에게 들려주면 얽매임이

없어질 것이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자신은 수양하지 않고 남에게 화를 당하지 않기를 요구하니 또한 이치에 벗어난 것이 아니오?” 孔子는 더 서글퍼서 묻기를 “청하여 묻건데 眞性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니 漁夫는 또 이렇게 말했다. “진성이란 정성의 극치요 정하지도 못하고 성하지도 못하면 남을 감동시킬 수가 없오. 그러므로 억지로 통곡하는 자는 비록 슬프게 우는척 해도 남들이 슬프게 느끼지 못하며 억지로 성을 내는 자는 비록 위엄을 보이려 해도 남이 위압당하지 않으며 억지로 친하려는 자는 비록 웃으며 친해와도 정말로 친해지지 않소. 반대로 진정으로 슬퍼하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슬프고 정말로 노하면 아직 노여움을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위압을 느끼며 진정한 친함은 웃지 않아도 친해지는 것이다. 진정이 속에 있으면 그 정신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오. 진성을 귀중히 여기는 까닭은 여기에 있오. 그것은 인간관계에도 활용할 때 이로써 아버이를 섬기면 慈孝가 되고 임금을 섬기면 忠貞이 되며 술을 마실 때는 환락이 되고 복상할 때에는 비애가 되오. 충정은 임금을 위하여 공적을 올리는 것이 첫째요 술을 마실 때에는 즐거움이 첫째며 복상 때에는 슬픈 마음이 첫째고 아버이를 섬길 때는 친애하는 마음이 첫째요 모든 일을 훌륭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방법을 하나로만 정할 필요는 없오. 아버이를 섬길 때는 알맞게 할 것으로 그 방법을 따지지 않고 술을 마실 때는 즐겁게 마시면 되니 술그릇을 가릴 필요가 없으며 상을 입었을 때에는 슬퍼하기만 하면 되니 그 예법을 물을 필요는 없오. 예란 세속이 행하는 것이오, 그러나 진성이란 하늘에서 받는 것이라 자연적이 되어야 하지 바꿀수는 없는 것이오. 그러므로 성인은 하늘을 본받아 진성을 높히고 세속적인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법이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는 반대라. 하늘을 본받을 줄 모르고 사람의 일에만 마음을 써 진성을 존중할 줄 모르고 평범하게 속

세의 환경에 감화되어 항상 마음에 부족을 느끼는 것이오. 그러니 슬프도다. 당신은 일찌기 인위적인 거짓에 빠져 대도를 듣기가 늦었노라.” 孔子는 또 다시 두번 절하고 일어나 말하기를 “지금 제가 선생님을 뵈게 된 것은 하늘이 주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저같은 것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자와 같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히 엿주옵나니 선생님 댁은 어디에 있나요. 청컨대 선생님을 따라가 학업을 닦아 대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니 漁夫는 이렇게 말했다. “내 듣건대 같이 갈 수 있는 자와는 함께 오묘한 도에 이를 수 있으나 함께 갈 수 없는 자는 그 도를 알지 못하니 삼가 같이 가지 말아야 자신에 허물이 없으리라.” 하였다. “자네는 노력하게. 나는 가네. 나는 가네”

漁夫는 곧 배를 띄워 떠나갈 때 사이를 떠라 저어갔다. 안연은 수레를 돌리고 자로는 수레고삐를 드렸으나 孔子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물결이 고요해지고 노젓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제서야 孔子는 수레를 탔다. 자로는 수레결에 따르면서 孔子에게 물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오늘처럼 남을 만나 황송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승의 천자나 천승의 제후도 선생님을 만날 때는 틀림없이 뜰가운데 마주앉아 대등하게 예를 했습니다. 그런 때

에는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漁夫가 노를 세워들고 마주서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허리를 굽혀 굽신거리면서 재배하고 응답하셨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선생님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漁夫에게 어찌서 이렇수가 있겠습니까?” 孔子는 수레에 가로지른 나무에 엮으려 한탄하면서 말했다. “심하다. 너는 이해도 더디구나. 예의를 배운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그 야박한 마음이 지금까지 떠나가지 않았구나.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말해주마. 대저 어른을 만나 존경하지 않는 것은 인이 아니라 저쪽이 지극히 어진 사람이 아니면 이쪽에서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또 머리를 숙일 때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진심을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오래동안 자기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애석하다. 어질지 못한 사람에게는 화가 막대한 법인데 네가 그것을 독차지 하는구나 또한 도는 만물의 근원으로 만물이 이를 잃으면 죽고 이를 얻으면 산다. 또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은 거슬리면 패하고 이것을 따르면 성공한다. 그러므로 도가 존재하는 것을 성인도 존중한다. 지금 漁夫는 도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감히 존경하지 않겠는가?”

光復 50年 그때 그사건

이런이야기, 저런이야기



김 정 우

- 서울中央방송국 방송과 근무
- 미군주둔 공보원 문화과 지배인
- 청년 방위군 제七단 정훈과장
- 국민방위군 제26교육대 정훈과장
- 영월 보덕보육원 교사
- 경향신문사 기자
- 건설산업신문사 강원도 특파원
- 속초의노래 작사
- 新 강원도 아리랑 작사

눈 깜짝할사이 50년 세월이 지나갔다. 그때 청년이던 사람들도 오늘에 老人이 되고 말았다. 필자도 마음은 젊은이들과 같은데 하는일은 그렇지 못하다.

1945년 8월15일! 해방된지 반세기 어찌 우리 그날을 잊을수가 있으랴! 대대 손손 이나라 역사가 이룩되는 한 영원토록 그날은 되새겨 지리라. 우리 모-두 다시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날의 일들을 다시한번 조명해 볼때이다. 그런뜻에서 50년전 8·15 해방당시 속초에서 있었던 한토막 이야기와 또하나 6·25동족상쟁의 비극속에 결들인 이야기 하나를 여기에 기록해 본다. 기쁨과 슬픔은 반비례적으로 우리들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안이한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두번다시 동족상쟁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1945년 8월11~12일 두차례 美 군용기 B29가 서울상공의 대낮에 나타나 종로구, 안국동에 기름탱크를 투하하였다. 그로 인하여 서울시민들은 설령이었고 필자도 시골고향으로 소개(疏開) 할것을 결심하였다. 8월14일 밤 11시. 서울역에서 淸津行 列車에 필자도 몸을 담고 다음날 이른아침 安邊에 도착 襄陽行 東海北部線 汽車에 옮겨타고 동이 뜨는 무렵, 망망한 동해를 바라보며 잠시후에 붉은 太陽의 장엄한 햇살이 솟구칠 약한 어두움속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모래불 白沙場의 평화로운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8·15 새아침의 먼동이 뜬다.

수평선 저 멀리 드문드문 떠있는 돛단배! 그 배그림과 검푸른 물결위에 넘실대는 동해 아침풍경! 바라보는 사람마다 넋을 잃곤 하였다. 汽車는 칙칙폭폭! 힘찬 기적소리와 함께 정든 고향길을 재촉하며 한발 한발 다가갔다. 당시 日帝 전시시국하의 비상사태이라 列車안에는 어떤 客室이든 車內에는 이동 고등계 刑事인 감시자가 반듯이 한두명씩 타고 있었다. 수상적은 승객이나 젊은 青年들은 꼭 탐문하였고 눈을 부릅 뜨고 왔다 갔다 하였다.

필자나이 그때 23세! 고향의 내나이 또래 남자들은 거의 다 지원병, 증용으로, 보국대로 끌려나갔고 젊은 女子들 또한 정신대로 끌려 나가곤 하였는데 붙들여가면 죽는다는 소문때문에 정신대에 안 나가고저 마음에도 없는 나이많은 노인에게 시집가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요즘 세상은 男子머리는 길게 기르고 싶으면 장발로! 짧게 자르려면 단발머리로 제멋대로이지만 그 당시의 青年들 머리는 모두가 머리를 짧게 삭발하고 전투모란 모자를 써야만 하였고 양복바지도 되도록 「당꼬」바지라는 것을 입어야만 하였다. 女子들은 치마대신 「몸배이」(日語)를 입어야만 바깥 출입이 가능하였고 해방될 무렵에는 거의 매일같이 방공훈련을 낮이나 밤이나 실시하는 때였다. 필자는 차창밖으로 찬란하게 밝아오르는 햇살에 파도가 철석이는 맑은 白沙場을 바라보며 깊은 감상에 잠겨버렸다. 그리고 혼자 입속으로 “고향아? 오랫동안이다”

그때 당시 이사람은 머리는 장발(하이칼라)에 머리기름(찍구)을 발라 빗가름 머리를

하였고 바지는 「당꼬」바지에 「벙타이」를 맨 사쓰에 양복 저고리를 입은 청년! 그 시국에 걸맞지 않은 모습은 형사들 감시대상이요 일반인에게도 눈총을 맞는 차림세였다. 마침 刑事 한사람이 필자에게 다가왔다. 심문코저은 刑事와 필자는 그순간 서로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연」하였다. 대포국민학교를 같이다니던 동창생이었기에! 형사는 수상한 青年이기에 다가왔지만 상황은 금새 달라졌다. 심문아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수상적었던 이 青年은 그때 서울에서 연극 운동을 하는 조선연극인협회 회원으로서 B29 공습관계로 「소개(疏開)」령이 내린 서울을 잠시나마 피하고저 고향찾는 길임을 알았다. 필자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에 사입함은 그때 그 시국상을 표현함을 말해둔다. 꽤일언하고 汽車가 高城역에 도착하였다.

오전10시 동해안 기차 정거장중 가장 큰 高城역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필자가 보지도 못한 태극기가 고성역 직원들 손에 높이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日本놈은 망했다”고 고래 소리높여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로만 들던 「태극기」를 유심히 바라보았으며 해방된 날이 왔나보다 생각을 하였지만 무어가 무언지! 꿈만 같았다. 그도 그럴것이 다른 정거장에서는 만세 부르는 것을 못보았기 때문에 고향집을 찾아오는 나의 가슴은 착잡하였고 무엇때문인지 몰라도 열차안은 침울하였고, 잡담이 없어졌다. 그리고 왔다 갔다하던 고통계 刑事들도 보이지가 않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通川 庫底, 長箭에 이르는 동안 「계」사시요(바다게 찢것) 「계」사시

요! 하는 아낙네들의 목소리를 못들었다.

그 시절 양곡 배급제였고, 식량이 부족하여 절미운동을 강요, 집집마다 부엌에 쌀주머니를 하나씩 만들어두고 밥할때마다 한순가락 쌀을 저축토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기차에서 사먹던 길게싼 김밥이나 찜쌀떡을 못팔게 되고 대신 바다「게」를 찌서 식용으로 팔곤 하였다.

汽車는 고향 속초에 도착하였다. 행길에 나 서니 동네가 죽은듯 조용하고 사람들 왕래가 없고 거리는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없는 죽음의 마을이었다. 필자가 동명동 집으로 오는 도중 행인은 못 만나고 총을매고 칼을 찬 日本軍 몇사람만 만났다. 이들은 이곳 항공감시 초소에서 감시원으로 파견나온 日本軍인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속초사람들은 그 日本軍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몰라 조국 해방 만세도 못부르고 「태극기」도 휘날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지면관계상 서론적인 긴말은 이만 줄이고 용감했던 한 青年이야기를 기록해본다. 日軍에서 돌아온 징병, 지원병, 학도병들이 경비대를 창설 속초邑內 거주자 日本人 가족들을 옛 설악심상 소학교(日本人子女學校) 오늘에 영랑동에 神興寺 포교당자리, 그전 明信中學校 사립교 자리이기도 하다 그곳에 日本人들을 집단수용실로 하고 거기에서 바깥출입이 엄금되고 자기네 본국출국때까지 생활토록하였고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이지만 소련군이 이지역에 진주(進駐)하여 부녀자를 겁탈코져女子를 내노라고하면 수용소에 日本人부녀자들을 접대케하여 우리고장에서는 지방女子들의 불미스런 사건은 없었다.

그러한 입장에서 日本人부인들은 처녀 아이들은 학교 마루장을 뜯고 감추어 두고

부인들 자신이 차체차레로 욕을 보았는데 남편 불면목없이 낙루(落淚)하며 하소연 하듯 용서를 빌면 日本人 男便들은 (오구니노다메다) 日本나라 위함이다. 걱정말라 하였다고 한다.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참담한 현상이 노출되는 법이다. 그리고 日本人 家財道具 및 生活 필수품은 전부 몰수하여 牛車운반으로 지금 속초 상업은행 건너편 당시 金演柶씨가 운영한 쫄치(개스리부시) 공장 창고에 전부 집어넣고 경비대원들이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금 시청앞 광장 바닷가에서 경축 축구시합이 열리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양양에 주둔하면서 속초 통조림공장 양양 연초조합창고(담배창고)를 털어갈 양으로 속초에 외출나온 놈들이 그중 두명이 따발총을 매고 家財 쌓아논 창고나 나타나 따발총을 무작정 경비원 가슴에 대고 “창고문을 열라! 안열면 쏜다”하고 협박을하자 그때 경비보던 金鴻基씨(제1기 지원병) 상등 병이 옷통을 훌쩍 벗어 헤치고 쏴라면 쏴라! 여기는 절대로 침범 못한다. 하고 맞서자 소련군은 자기네말로 떠들며 돌아갔는데 바로 그날밤 양양군 주둔 소련군 일부 병력이 추력에 분승! 속초 경비대를 습격하여 일시 전쟁을 방불케 총성이 밤공기를 뒤흔들었다. 다행이 人命피해는 없었다.

그때 그 용감했던 青年! 金鴻基씨! 지금은 울릉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데 70대 중반 老人이 되었을 것이고 그분 生家は 걸모양은 달라졌지만 동명동 해안도로변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때 습격당한 경비대 자리는 朴政權 때 共和黨 속초지구당 사무실로 쓰던 집터이고 김○○ 의학박사 병원자리이며 元 日本人 「야노」란 자가 살았던 집터이다. 「야노」란 日本人은 사법대서업을 한 사람이다.

反共투사 탈옥수

李明根·金九淳

이 두 사람은 해방후 이곳 東草에 共產黨 赤旗가 휘날리고 그다음 조선 人民共和國 깃발 아래서 共產政權에 대해 정책반대 언동으로 주민들을 선동하자 공산당으로 부터 반동분자로 낙인! 체포되어 현 속초경찰서자리 그때당시 보안대=치안대, 인지, 감방에 수감되었었는데 두 사람 다 용감한 애국청년 들이다. 틀림없이 형을 받으면 「시베리아」의 동현장에 유배될것이 뻔하자 李씨와 金씨는 生命을 걸고 탈옥할 것을 결심! 明根씨는 감방 화장실 판자를 뜯고 탈옥(년월일미상) 역사 기록이 아니옵고 본인이 이곳에 거주치 않아 양지하시기 바람.)

새벽3시에 캄캄한 밤길을 오금아, 나를 살려라 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다 고개길에 접어들었는데 허기가 지고 기진맥진하여 이대로 도망치다가는 꼭 잡힐것만 같아서 李씨는 생각끝에 크나큰 老松에 몸을 숨기기로 작정! “당장 너 거기 서! 가면 쏜다.” 하는 간수들 목소리가 귀전에 들어오기에 오솔길 숲속 老松 나무에 재빨리 기어 올라가 나무가지 사이로 숨을 죽이고 그들 동태를 살피고 있노라니 뒤쫓아온 간수들이(탈옥한것을 아침에 알고 뒤쫓아 온것) 혈떡거리며 바로 자기가 숨어있는 老松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李씨의 심정은 두눈을 꼭-감고 입술을 있는힘다하여 깨물며 내가 이곳에서 붙들여 죽느냐? 사느냐? 나는 아마 여기에서 죽나보다 하고 生死의 기로를 헤매이는데 天祐神兆로 간수들은 老松나무를 그대로 지나 가더라고 한다. 그때 만일 붙잡히면 그 현장에서 죽는 것! 불을보듯 환하다고! 애써 찾은 울화가 폭발하기 때문에 李씨는 나무에서 내려와 숲

속에서 잠을 청했고 어둠이 덮이자 정신을 차려 깊은 山中길을 헤매며 村落을 찾아 허기짐을 채우고 산길을 잘못 찾아 애를 쓰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洪川쪽으로 가는 길을 물어 조심 조심 마을과 마을을 거쳐 간수들의 동정을 살피며 자기가 아닌 탈옥범 이야기로 부락 사정을 탐지하면서 春川에(즉대한민국땅 38°이남 안전한곳 변두리 촌락에서 양돈업을 하며 생활하였다는데 지금까지도 그곳에 살고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생존해 있다면 80세 중반에 나이시다.

金九淳

이분 역시 反共투사로서 사상범 반동분자로 수감되었다가 감방 밑 판자널을 부시고 땅벽을 헤치고 탈옥하였으나 멀리 도망치지도 못하고 어떤 집에 은거하여 있다가 붙잡혀서 그는 그길로 소련軍에 넘겨져 鐵原에 있는 소련군 정치보위부로 압송 도중 오늘의 군총령(인제군) 맨 꼭대기에 이르자 金씨는 배를 내어 소변이 보고 싶다고 하여 감시병의 승락을 받고 트럭에서 내려 소련군이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 白雪이 뒤덮인 군총령 소양강 상류쪽 언덕을 바라보며 소변을 보는 척하다 수천번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해낸 결심을 실천할 때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한번 죽지 두번 죽겠느냐! 하고 눈 덮인 언덕길 아래로 도망을 쳤다. 소련군이 다급하여 소련말로 “은도요마찌! 카래쓰게!” 격분한 고함소리와 함께 따발총을 겨냥하는 순간 따발총 「캐-스」가 땅에 푹 떨어져 총살을 면하고 金씨는 강변 눈길을 헤매어 永판 강을 건너 38 이남땅을 밟게 되어 서울에서 모친 모시고 남동생, 여동생과 생활하다가 오래전 世上을 떠났다고 한다.

하늘이 도와준 탈옥범! 反共애국청년들이었다. 이분 역시 살아 있었다면 80세 중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 두분은 해방 당시 속초 축구단 멤버였으며 누씨는 풀문직이 김씨는 옆날개(위잉)을 맡아본 사람들이다. 人共초창기 화제의 사건이었다.

변변치 못한 내용이요, 재미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무수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요 이왕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다보니 한가지 이야기만 더 기록해 보렵니다.

靈琴亭은 말이었다.

6·25동란중 9.28 국군의 北進으로 人共治下였던 東草邑도 수복이 되었다. 그런데 수복되자 마자 人共치하에서 말단 기관 단체에서 일을 하였다고하여 北쪽으로 피신 안간 사람들이 저놈 빨갱이다란 말 한마디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집안 가장이 희생되었어도 통곡조차 못했으며 후환이 두렵고 무서워 불안에 떨며 병어리 되어 그날을 살아야만 하였다.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매듭해 보고저 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내리는 지역에 사는 비를 맞게 되어 있지만 자기만이 자기 몸에 비를 안맞으려면 우산을 쓰고 거닐면 몸에는 빗줄기를 피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서있는 그땅에는 빗물이 젖게 마련이다. 人共당시 공산독재치하에서 살아남자니 상부의 명을 따라야하였고 생존키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하였다. 예외의 反共투사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 일반사람들은 생명이 아까워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을것이다.

그래도 日政치하에서 帝國主義 통치를 안

받고 창시 개명 하라면 하였지 별도로리가 없었지요. 단 독립투사는 이런점에서는 제외됩니다. 일반서민을 예로 하는 말입니다. 6·25 때 국군이 북진하자 공산치하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수 없이 봉사하는 백성들이 천만명이나 南韓땅으로 넘어 오지 않았는가요.

빨갱이 노릇을 하면서도 수복후 북진할때 北쪽으로 도망치지 않은자는 자기 마음만은 진짜 빨갱이가 아니고 사과같이 걸만 공산치하의 일꾼이지 마음속은 정신만은 사과와 같은 자기라고 믿고 北피를 안한 사람이라고 본다.

그런데 설마 설마란 생각한사람이 북피를 안하여 무수히 목숨을 잃은 사실이 있다. 간혹 국군이 수복하였을때 관대한 부락의 지도자가 있던 동네는 딱 동네에서 같으면 모두 총살감인데도 죽을 사람들을 살려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에서 명명거리며 큰 소리치고 사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 이렇게 같은 共產치하에서 일을 하고도 生死의 기로에서 天地차로 다르게 지역마다 동네마다 별다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 아니던가? 수복당시 이곳 속초에서도 군 수사기관에 붙잡혀 가진 고초를 겪고 생사의 가름길에서 풀려나 안도의 긴 한숨을 마시면서 하늘을 우르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정든 보금자리 자기집에 밤 9시경 돌아와 아! 이제는 내가 살았다하고 기쁨속에 한잠들어 곧이 자다가 새벽 3시에 날벼락맞듯 또다시 군인에게 포송당해 죽엄의 이슬로 사라진 사건이 있다. 人共때 이곳 기관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몇사람, 이고장에서 이름있고 똑똑하다던 사람) 어제밤에 기쁨은 살아지고 「총살」이 아

닌 바다에 배를타고 끌려나가 무거운 돌맹이를 몸에 매달아! 물속에 잠적!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

전란때 이야기지만 수사기관에서 죄가 안된다고 돌려보냈으면 그것으로 끝날일인데 격분한 개인감정으로 자기들과 통하는 군인들을 앞세워 이런놈들은 죽여야 한다.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할터이니 당신네는 빨갱이 놈들 잡아다 주기만 하면 된다 하며 참극을 연출하였는데 풀려난 그들 집집마다 앞장서 찾아가 손을 묶고 준비해는 「목선」에 태워 이곳 靈琴亭 앞 바다에 나가 한사람 한사람 몸에 돌맹이를 매달아 물속에 집어던져 죽게한 것이다. 돌맹이를 자기몸에 매다는것을 보면서도 반항할 수 없었던 그들! 그때 그들의 심정과 정신상태는 어떠한였을까? 물리학자가 그 심정을 숫자표이할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사람죽이는 총이 무엇이기에 군인이 잡고 서 있는 그 총구가 무서워서 물에 익사 당할줄 알면서도 태연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빠져죽은 영금정 앞바다는 오늘도 말없이 출렁이며 그때 그 현황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영금정은 말없이 아니 말을 못하고 묵묵히 그날을 회상하고 있을 뿐이다. 수사기관에서 풀려난 그들을 죽엄의 문턱으로 끌고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누구, 누구 라고 확실하게 입밖에 떠올리지 않지만 대강 어떤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다 하고 이곳 원주민들은 알고 있다.

또한 참혹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누구 누구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만 필자 역시 여기에서 그분들 명단을 보류하고 다만 한가지 덧붙여 물속에 투하된 사람중 한 사람만이 돌맹이가 풀려 다시 물위로 솟구쳐 올라왔는데 그 사람 말이 나는 4대 독자이니 제발좀 살려달라고 뼈까는 애원을 하였건만 사건 주모자들은 “개새기! 너 놈은 죽어야해! 人共 때 잘살았잖아!”하며 배전으로 끌어올려 또다시 돌을 달아 물속에 던져 그의 죽음을 웃음으로 만끽 하였다고 한다.

이글을 보시는 분께서 그 참상을 한번쯤 상상하여 보십시오. 삶과 죽음도, 가지가지가 아니던가요? 필자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그들 양자간 어느 한쪽을 두둔하거나 편袒함이 아니고 다만 이유라고 하면 법치국가에서는 개인감정으로 어떤 특권이나 정치적 압력으로 생목숨 뺏지 말라는 저의 뜻이며 좌우지간 동족상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 생활에서 한발 물러설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급한 거름거리를 하지말고 느긋한 심정을 배양하고 더불어 잘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인줄 믿습니다.

통일 조국을 바라 보면서

만 남

속초실악여자중학교
2의 1 유 혜 정

‘우와, 다행이다!’

내게 배정된 버스 좌석에 앉고서야,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앉으신 아저씨께 각듯이 인사를 드렸다.

“어, 예, 안녕하세요!”

아저씨께서도 반가운 낯으로 응수를 하신다.

‘야, 정말 위험했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창 밖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 보면, 지금 버스에 탄 내가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4시 반 버스표를, 아무리 버스 정체 현상이 있었다지만, 6시 다 되어가는 시각에 끊은 것도 무모한 행동이었고, 더더욱이 내일 가기로 했던 친척댁을, 짐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충동만으로 당장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지금 생각하니 영락없는 철 모르는 어린애 모습이다. 짐 가져올 때까지 버스가 안 왔었기에 망정이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잠 주무시고 계시던 옆의 아저씨가 깨어나셨다.

“애야, 넌 어딜 가니?”

밖은 한창 캄캄한 이 시각에, 아무리 봐도 중고등학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애가 혼자 서울로 가고 있으니 이상스러워 묻는 말씀일 게다.

“예, 서울 친척 댁에 가는데요.”

“그래? 대단하구나. 무섭지 않니?”

“아니요, 무섭진요.”

솔직히 혼자 버스여행을 떠나는 것도 처음이었고, 옆좌석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말을 주고받는 것도 처음이었다. 내게는 이 모든 상황이 재미나게 느껴졌다.

“여름방학이어서 놀러가나 보구나.”

“예, 맞아요.”

한창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화제가 외국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저, 아저씨께서 어느 나라에 가 보고 싶으세요?”

“응, 나?”

아저씨께서 빙그레 웃음을 띠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도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 인도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지. 그 후로 계속 인도에 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도엘 다녀왔지.”

아저씨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 나는 조용히 다음에 나올 말씀을 기다렸다.

“왜, 사람들은 흔히 인도라면 가난하고 게으른 국민들이 사는, 후진국으로만 생각하잖아. 글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런지 모르지. 그런데, 다녀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비록, 인도가 후진국이기는 하지만, 뜨거운 불별 아래 마음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 고행을 하는 모습들과, 일이 생겨도 재촉하기보다는 명상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인도 예찬론자처럼 신이 나 하시는 말씀을 재미있게 들으며, 한편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람과 한순간에

이리 친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다.

버스는 어느 새 서울에 와 닿았다.

“새벽 3시네, 이런 잘 갈 수 있겠어?”

걱정하시는 아저씨께

“그럼요. 제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도 머뭇머뭇 하시더니

“정말 갈 수 있겠어?”

“아이고, 그럼요. 건강히 가세요.”

“……그래, 너도 잘 가거라.”

아쉬운 이별을 고하며 나는 친척댁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 뒤로, 나는 방학 때 버스여행을 떠날 때면 으레 옆자리의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꺼이 응해 주었고, 나는 대화 속에서 무엇인가 따뜻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내가 자람을 느낄 수 있었다.

만남, 결국, 사람의 모든 성장은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사람과 만나고, 책과 만나고, 또 무언가를 만나면서 우리는 커가는 것이리라.

진지하게 ‘인도’를 알려 주시던, 고마우신 아저씨를 떠올리며 글을 맺는다.

국교고학년 산문 장원

이

현북국교 4학년
이 향 란

“향란아, 일어나라 늦겠다.”

“엄마 일요일인데 조금만 더 잘게요.”

“그럼 더 자려므나.”

엄마의 목소리에 잠이 싹 달아났다.

“아니예요. 엄마 아이참 엄마는 내 계획을 아시면서…….”

“조금만 더 자라.”

나는 엄마가 정성껏 차려 놓은 밥상에 앉아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물에 말아서 넘겼다.

그리고 호미와 삼을 가지고 계피밭으로 갔다. 내가 왜 이런일을 하는가 하면 저금통에 저금을 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에는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402,356원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더욱 일을 열심히 한다.

나와 엄마가 하는 일은 계피밭에서 잡초를 뽑는 일이다. 끊어 오르는 햇볕이 등을 따갑게 했다. 그래도 나는 꼭 참았다.

12시경에 일을 다 끝냈다.

“여보, 오늘 향란이가 계피밭에 있는 잡초를 뽑았어요.”

“우리 향란이가?”

아버지의 눈은 동그레 졌다.

나는 문뒤에서 말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아빠는 착하다고 하시며 1,000원을 주셨다. 나는 뽕뽕이 기뻐했다.

언니는 운동과 일을 싫어 한다. 언니는 시무룩해 하였다. 그래서 나는 언니와 500원씩 나누어서 저금을 했다. 언니는 참 기뻐했다.

오후에는 아빠를 따라 논으로 갔다. 물주전

자와 빵을 가지고 아저씨들이 계시는 우리
논으로 경운기를 타고 왔다. 오늘 따라 경운
기 소리가 더 요란하다.

‘탈탈탈’

나는 아직 조금밖에 자라지 않은 모를 논
에 던져 주었다.

아저씨들께서

“향란이는 참 부지런하구나.”

나는 아저씨들의 말을 듣고 더욱 열심히

모를 던졌다. 새참도 오늘만은 유난히 맛있었
다. 땀이 이마에 송송 맺혔지만 보람이 있었
다. 아버지 경운기를 타고 왔다. 나는 팔다리
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다. 아빠, 엄마도 기
분이 좋으신가 보다. 해가 누엿누엿 지고 있
었다. 나는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왔다.

“보셔요 꽃동산에 봄이 왔어요. 나는 나는
우리 고장 제일 좋아요…….”

국교저학년 산문 장원

우리집

영랑국교 2의3
함 현 식

우리집 문은 작습니다. 어느날, 밖에 나가
시던 아버지께서 머리를 부딪치셨습니다.

“이놈의 집, 문이 낮아서…….”

하셨습니다. 나는 ‘이때다.’하고

“아빠,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가요.”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

“예유, 문에 걸친 수전이 자꾸 머리를 가려
서 신경질이 나요.”

하고 짜증 부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그래, 너 6학년 되면 이사가자.”

하셔서

“6학년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이렇게 투덜 댔습니다.

“현식아, 우린 이런 집이라도 있는게 다행
이다. 서울에 집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엄마 말씀을 들으니, 금방 신경질이 없어
졌습니다.

국교고학년 산문 차상

일

속초청호국교 6의1
김 지 혜

“지혜야, 일어나라.”

부드럽고 낮은 음성에 눈을 떴다. 낯선 장

농이 눈에 들어왔다. 그제서야 내가 어젯밤
할머니댁에 왔음을 떠올린 나는 앞으로 펼쳐

질 시골생활을 기대하며 기지개를 폈다.

문을 열고 나오니 참새소리가 더 맑게 들렸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세수를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물묻은 얼굴을 닦으시며 말씀 하셨다.

“깨우지 말라는 걸 애비가 굳이 할 일이 있다며 깨우더구나. 잘 잤느냐?”

그때 아버지께서 현관을 나오셨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오늘 기대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화장실로 들어가셨다.

‘무슨 일일까?’

산책을 하자고 조를 작정이었던 나는, 기대하라는 아버지말씀에 뭔가 신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 준비됐니? 가자.”

“어디로 가는 건데요?”

“재미있는 일하러.”

그야말로 물음표가 열개쯤 생길 일이었다.

‘바닷가에 가시는 걸까? 아니면 냇가에? 논둑에 가보시려는 걸까? 손에 드신 주머니에는 뭘 넣으셨을까? 가서 먹을 간식인가?’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버지는 계속 시골길을 걷기만 하셨다.

“자, 다왔다.”

아버지께서 걸음을 멈추신 곳은 푸른 풀밭이 길게 난 밭이었다.

“아버지, 여긴 왜 왔어요? 그리고 이전 무슨 풀이예요?”

“쫄쫄. 요즘 애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자연시험만 100점 받으면 뭐 하겠냐?”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물끄러미 고구마만 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손에 드신 비닐백 속에서 호미를 꺼내 시더니 고구마를 캐기 시작하셨다.

“애개, 재미있는 일이라는게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쓸데없이 돈내고 노는것만 재미냐? 일을 해서 재미있고 보람 있어 좋으니 일석이조 아니냐?”

괜히 혼자 들었던 것이 속상하고 속은 것만 같아 분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입을 내밀고 앉아서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다.

화를 내고 시작한 했지만 막상 하다보니 굵은 고구마가 줄줄 떨어져 나오는 걸 보니 신기하기만 했다.

“지혜야,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지 아니?”

“.....”

“일을 할 때란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사람과 일은 뗄래야 뗄수없는 사이란다.”

아빠의 다정한 말씀에 화났던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꽤 많이 캐는걸. 우리 지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시골 아가씨 같은걸.”

나는 ‘헤헤’ 웃고 말았다.

“자, 그만 가자. 할머니께서 기다리시겠다.”

아빠는 흙을 털고 일어 나셨다.

“어이구. 우리 지혜가 아빠만 한걸.”

“몇 년 안 있으면 더 클거예요.”

아빠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아빠의 말씀대로 정말 즐거웠다고.

‘그래, 사람은 일할 때 가장 행복한거야.’

웃으며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아빠와 나의 머리위로 햇살이 가득 쏟아졌다.

국교고학년 산문 차상

친 구

현북국교 3학년
황 지 은

내 친구 성아는 어머니가 없다. 때로는 어머니가 없으니 시치미를 뚝 떼며

“어머니께서는 돈벌러 대구에 가셨어”라고 말하지만 소문으로는 도망갔다는 얘기

가 짝 퍼졌다. 나는 이런 성아가 불쌍하다. 어머니께서도

“성아는 어머니가 없으니 너라도 잘 보살피 주거라.”

나도 이런 말엔 대꾸를 해야만 했다.

“어머니 성아가 무슨 아기인줄 알아요? 성아도 이제 10살이나 된 아니잖아요.”

어머니께서는 내 말대꾸에 더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난 혜정이네 집으로 놀러갔다. 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생각하였다.

‘내가 어머니께 너무 심한게 아닐까? 사과드려야 하겠어.’

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바퀴를 돌리듯이 핸들을 꺾었다. 성아도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다. 지금은 병원에 있는데 성아는 며칠전에 다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떨어졌다. 팔이 잘 움직이지 않고 한쪽 다리가 좀 빠였다는 소식이 왔다.

편지를 쓸려고 문구점에서 편지와 편지봉투를 샀는데 왠지 쓰고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았다. 며칠전에도 편지를 보내주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 좀 섭섭하였다.

오늘 오후에 성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아는 편지 고맙다는 전화였다. 30분이 지난후 난 성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성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성아야, 빨리 나가서 학교로 돌아와 줘.”

성아가 보고 싶다. 성아가 빨리빨리 나아주어 나의 걱정을 싹 없어지게 하길 바란다. 그런데 성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다 썼다.

난 하늘 끝까지 가서라도 성아를 내 동생처럼 보아주겠다. 성아가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내가 성아의 언니라면 정성껏 간호해 줄텐데……. 성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이야기는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 말야.

이제부터는 성아와 사이좋게 지낼것이다. 성아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중등부 산문 차상

작은 고추가 맵다

설악여자중학교
오 수 진

‘작은 고추가 맵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속담이다.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선 키가 작으신 편이다. 그래서 난 키 큰 오빠들을 다루시기엔 너무 작으시다는 생각을 종종 해 왔었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나와 내 동생도 키가 작다. 아는

사람에게서 혹은, 친구들에게서 키작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난 집에 가서 아버지를 원망하곤 했다.

“아버지, 오늘 친구가 나보고 키가 작대요.”

하면 아버지께선 웃으시며

“키 작은 게 얼마나 좋은데? 작은 구멍도 뚫뚫 잘 빠져나가고.”

하시곤 했다.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막 투덜거리던

“여자는 키 작은 게 얼마나 귀엽고 아담하니?” 하며 위로해 주셨다. 나도 웬지 그 때만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가장 심통이 날 때는 TV에서 미스코리아나 슈퍼모델들이 나올 때이다. 늘씬한 키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는 모습이 질투까지 날 정도였다.

그러던 작년 가을쯤, 아버지께서 몹시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들어오셨다. 어머니와 나는 그냥 감기몸살인줄 알고 감기약만 드렸다. 그러나 아버지께선 좀처럼 낫질 않으셨다. 그러기를 3주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계속 아프시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말씀하셨다. 내 손을 꼭 잡으시면서, 다행히도 외삼촌댁이 가까웠으므로 동생과 나는 거기에서 학교에 다니기로 했다. 그 다음날, 나와 내 동생은 외삼촌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께선 서울로 향하셨다.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은 왜 그리도 작아보였는지……. 1개월동안을 우린 외삼촌댁에서 지냈다. 난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작은

아버지의 존재가 우리집에선 얼마나 컸는지를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 내 마음을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계셨는지를.

한달 후,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셨다. 여전히 작으시지만, 예전처럼, 아주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반가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난 무뚝뚝하게 한마디만 하고 말았다. “오셨어요?”라고. 하지만, 그때의 아버지는 하나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커 보였다. 아버지의 키는 작으셨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크기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버지의 모습은 키 큰 오빠들을 다루시기에도 충분해 보였다. 키가 작은 사람을 무시하는 키 큰 사람들에게 나는 몇몇이 말해주겠다.

작은 고추가 매우 법이라고. 그 전에는 그렇게도 부러워 보였던 미스코리아가 지금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 오히려 작은 것이 더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께-세상에서 가장 크신 우리 아버지께-말해 드리고 싶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고.

국교고학년 산문 차상

일

속초국교 5의7
김혜리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신다. 옷의 기장이 맞지 않으면 줄이거나 늘리시고 드라이, 옷을 다리미로 다리시는 등 여러가지 일을 하시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계신다. 이런일을 하여서 가난하기만 했던 우리집은 제법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작은집을 마련하기 까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래서

우리집은 작은일 하나하나라도 열심히 하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집은 이런일을 하므로써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2달이 지난 어느날, 우리 가정에는 불행이 닥쳐오고 말았다. 바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손목뼈가

부러진 것이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즐겁기만 하던 우리 가정은 슬프고도 웃음이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한 동안 일을 못 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돈을 많이 벌지못하게 되었다. 전에는 일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서야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완쾌를 위해 자주 병문안을 갔다. 아버지께서는 아픔을 꼭 참고 누워 계셨다. 얼마 후면 아버지의 수술 날짜가 다가온다. 나는 그때의 수술 결과가 좋기를 바라며 항상 기도를 하였다.

‘제발 아버지의 수술 결과가 좋아서 완쾌일

이 빨리 오게 하시고 그래서 일을 하실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신 동안 어머니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집안일 하시라 가계일 하시라 매우 바쁘셨다.

‘아! 일이란 힘든 것이구나!’

를 깨달았다. 나도 어머니를 도와 드렸다.

며칠뒤, 아버지께서는 완쾌를 하셨다. 그 뒤로는 우리 가정에 활기가 넘치게 되었다.

나는 ‘일이 힘든 것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부터 부모님의 일을 도와 드리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

고등부 산문 차상

만 남

고성고등학교 3학년
이 광 설

내 나이 19살이 되는 동안 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속에서 기쁨 또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런 만남들중 내게 잊을수 없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는 만남이 있다. 바로 나의 새 어머니와의 만남이 그 잊지 못하는 만남이다. 나의 새 어머니와의 만남을 이야기 하려면 먼저 내 어린 시절의 나의 가정생활로 돌아가야겠다.

내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언제나 행복한 생활이었다. 나와는 3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었기에 외로움 같은 것도 없었다. 부모님과 동생만 있으면 언제나 즐거웠고 부족하거나 부러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즐겁기만 했던 나의 어린 시절에 먹 구름이 끼게 된것은 국민학교

5학년때 였다. 웬지 모르게 어머니께서는 잦은 외출을 하셨고 늦게 집에 들어오셨다. 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고, 동생과 난 그럴때마다 그런 부모님의 싸움이 무서워 밖에 나와 싸움이 그칠때까지 울었다.

그런 가정의 불화는 계속되고 부모님은 결국 이혼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내리셨다. 비록 어린 나 였지만 부모님의 이혼이 나에겐 큰 영향을 미쳤다.

평소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던 나의 성격은 난폭하고 급한 성질로 바뀌었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공부와는 당연히 거리가 멀어졌다. 부대 업무에 바쁘시던 아버지께서는 이런 나를 보시고 몇번이고 타이르시고 매를 대셨지만 그럴수록 난 더욱더 방향이 잘못되게 길을 걸어갔다. 너무도 힘들고 지치신 아버지께서는 나중엔 재혼이라는 힘든 결

론을 내리셨다.

주변의 아주머니들의 노력으로 아버지께서는 지금의 새 어머니를 만나셨고 2번째 결혼을 하시게 되었다.

이로써 나와 새 어머니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아직까지 내 예전의 어머니의 공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어머니와의 만남은 막 사춘기로 접어들고 있는 나에겐 심한 마음의 혼란을 만들었다. 마치 내 예전의 어머니의 자리를 새 어머니께서 가로 채는것 같이 느껴졌다.

그런 생각을 자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새 어머니를 바라보니 너무나 새 어머니라는 존재가 밋게만 보였다. 꼭 나에게서 아버지, 예전의 어머니와의 추억, 내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난 그런 생각속에 잠긴채 새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때부터 가출을 시작했고, 아이들과의 싸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라고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고, 그런 소문이 날수록 새 어머니를 괴롭히는것 같아 난 더욱더 빠풀어진 길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내가 그런 모습과 행동을 보일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절없는 나를 위해서 타이르고 이야기 하셨다. 하지만 이미 새 어머니의 감정이 방향이 틀리게 난 내게는 소 귀에 경 읽는 식이었다. 내 행동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난폭해지고 심해졌고 결국엔 어머니와 맞서

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엔 나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 너무도 애를 쓰셨지만 그럴수록 내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도중에 나에게 대한 길 인도를 놓으셨다. 처음엔 난 너무도 시원한 기분이었다. 내가 느낀 감정 그대로 새 어머니께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 너무도 시원스럽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한 순간이었다.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는 새 어머니의 행동에 난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내 지난 행동에 조금씩 뒤돌아 보게 되었다. 게다가 점점 몸이 허약해져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후회라는 감정이 조금씩 느껴지게 되었다. 이런 후회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고 결국엔 어머니께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후회감을 가진 후 어머니를 다른 시점에서 바라 보았을땐 너무도 다르고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렸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요즘 어머니는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그런 어머니를 병문안 가면 어머니께서는 아픈몸을 지니시고도 환한 웃음으로 날 맞아 주신다. 그런 어머니의 웃음을 보면서 나는 늘 느끼는 것이 있다.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머니 만큼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는 드물겁니다.’

주부 산문 차상

속 초

속초국교 2의2김준태(母)
김 수 현

어느덧 속초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되어간다. 서울 토박이인 내가 남편따라 시택인 속초에 시집간다는 말에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시골에 가서 사느냐 하며 의아해 했다. 그이를 부처님 오신날 만나 첫 눈에 내 사람인 걸 느꼈고 그 이듬해 결혼에 이르렀었다.

철이 들면서 시어른들을 모시고 사는것을 생각해 보기도 했던 나였지만 막상 오직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하나 없는 그런 곳으로 시집간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곤 했었다. 차창 밖으로 시원히 바라보이는 넓고 푸른 바다가 가슴 깊이 와 닿는 순간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을 하면서도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생활에 가슴 한 곳에 저리는 부분이 있음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생활하는 곳은 속초하면 생각나는 어촌이 아니라 시내 한 복판 상가 주택이었기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아직 생활수준과 의식 수준이 낮은 곳이었고 문화의 혜택은 거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너무 많은 발전을 보인 속초이다. 관광 도시인 까닭에 상권이 먼저 많이 발전을 했고 문화 혜택 또한 많은 신장을 거듭해 온 것은 나만의 느낌은 아니리라. 큰 애를 갖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 친정 부모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적도 있었고 가곡의 밤을 보러 강릉까지 나간적도 있었지만 자리잡은 유통체계나 문화회관 완공에 따른 많은 문화 행사에 이젠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가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산 좋고 공기 맑은 속초를 생각하며 이젠 제2의 고향 아니 나의 삶의 터전임을 확실히 믿는다.

발전하는 속초, 잘사는 속초를 만들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살 우리의 속초를 위해 내 한 몸을 바치고 싶다. 작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속초 사회에 공

헌을 하셨었고 어머님 또한 속초 발전 특히 여성 의식 개발에 힘쓰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 당연히 집안 분위기가 개어 있음도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이제 두 아이들도 컸고 시간의 여유도 많이 생겼다. 요사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제화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생활 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제 선거를 위해 이제 속초 시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온통 선거 열풍에 휩싸이는 분위기는 그만큼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시 승격 31년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 아직 8만이라는 인구는 아직 속초의 신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녀들을 길러 큰 대 도시로 유학 보내는 과거의 전래들을 되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쏟아야 했던 경제적인 지원들이 지방의 경제적 정체성의 원인으로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어촌의 생태가 이곳 또한 예외가 아니었기에 지역 주민들의 단합 또한 결여된 부분이 많은 곳이기도 했다. 이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커다란 상권 형성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정착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의 속초는 전망이 밝다.

잘 사는 속초 발전하는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가지 남은 목표는 이 속초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잘 뽑는것이고 속초 시민이 한 마음이 되어 잘 사는 속초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내 고향 속초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도 어른들의 몫인것이다.

국교저학년 산문 차상

우리집

속초국교 3의2
김 미 진

우리집은 15층인 아파트이다. 설악산이 보이는 곳에 지어 놓았다. 아름다운 산이 보이고 맑은 공기는 우리집을 통해서 들어온다. 우리집은 방이 세칸이다. 한칸은 아버지 어머니방, 또 한칸은 내 방, 그리고 마지막 칸은 내동생 방이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는 거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먹고 주방에서 달그락 설거지 하는 소리 하지만 나는 내방에 들어가 있다. 텔레비전 보는것 보다 설거지 하는것 보다 방안에 있는게 좋잖아. 밤에는 우리를 포근하게 잠들게 하는 우리집 내 동생은 벌써 잠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유치원에 가려면 잠을 꼭 자야 겠지요. 나도 내일 학교에서 뛰어 놀 것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고 있을 동안 집도 자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이 밝으

면 아버지는 회사에 가시고, 나는 학교에 가고 내동생은 유치원에 가고 엄마 혼자 집에 남아 계신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기뻐 하신다. 나는 우리집이 마음에 꼭 든다. 정이 많은 우리집 따뜻한 우리집, 나는 우리집이 다른집 보다 열배 더 낫은 것 같다. 내가 클때 까지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만큼 땅 만큼 우리 집이 좋고 자랑스럽다. 내가 시집갈때 까지 우리 집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내 동생과 함께 가꿀 것이다. 남보다 더욱 좋고 남들이 부러워 할만큼 가꾸고 싶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푸른 산과 하늘만큼 아름다운 곳은 우리집 뿐일 것이다.

우리집 화이팅!

내 짝

영랑국교 2의2
이진주

내 짝은 마음씨가 착해요
산수도 잘 하고
만들기도 참 잘해요.
싸웠던 일도 있지만 하루밤 자고
사과하는 착하고 순진한 내 짝.
거울앞에 서서 예쁘게 보일려고
애들이 웃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내 짝.
친구들이 옛날이야기 하고 있으면
엉덩이 딱 치고 도망가는
개구쟁이 같은 내 짝.
친구들이 놀리면 엄마한테
이른다고 울어대는 내 짝.
가만이 있다가 웃으면서
또 장난하는 내 짝.
웃는 모습 우는 모습 화난 모습이
개구쟁이 같아요.
하지만 난 내 짝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바 다

속초국교 6의 2
안 철 영

내가 눈 비비고 일어났을때
언제나처럼 일어나시는 우리 아버지
까만 얼굴에 주름지신 얼굴
바다에 나가 고생하시다 들어오시는 우리 아버지

나와 동생을 위해
바다에 나가셔서 가자미, 문어 잡으시느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쿨쿨 잠드시는 우리 아버지

어느땐, 잘 못잡아 들어오시며
신경 예민해 지셔서 화를 내시기도 하지만
이곳 저곳 쫓시고 아프셔서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아버지

바다는 심술쟁이
우리 아버지 고생하시게 하면서
고기 조금밖에 안주는 바다

내일도 우리 아버지
바다나가 고생하시겠지
내일도 우리 아버지
쿨쿨 잠드시겠지.

소 리

속초중학교 2의 7
안 병 옥

산으로 가 보자.

그 곳엔 메아리 소리가 있다.
무언가를 이룬 성취감, 이루고자 하는 희망
기쁨과 열정이 담긴 메아리 소리가 있다.

들로 가보자.

그 곳엔 소 울음소리가 있다.
고요하면서도 외롭지 않은
한 없이 느껴지는 평화로움이 담긴 소 울음소리가 있다.

바다로 가 보자.

그 곳엔 파도 소리가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 대한 경이로움
신비로움과 푸르름이 담긴 파도 소리가 있다.

마음을 열어보자.

이 세상 곳곳의 작은 소리에 귀기울여 보자.
기쁨과 평화로움, 신비로움이 담겨진 소리들
인간과 동물, 자연이 빚어낸 소리들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에 귀기울여 보자.

주부 시 장원

길

속초 4의5 김향실(母)
탁여옥

삶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들장미 넝쿨은 향기를 진하게 풍기며

내 집 뜰앞에 서 있었다.

하얀 장미 모습으로 지낸 내 10대의 순수도,

붉은 장미처럼 지낸 내 20대의 열정도,

가지 가지 퇴색되어 연분홍으로 채색된 내 30대의 생활도,

때론 싱그럽게

때론 지쳐 시들어 버린 모습으로

하나의 꽃이 되어 있었다.

문득,

돌아본 내 작은집 들안엔

어린 원추리 새싹 만큼이나

싱그러운 풀냄새 가득한

두말이 서 있었다

길

조양국교 5의3 홍지원(母)
나 입 순

길은 창창히 뻗어가는 것이었다

머리 위엔 파란 하늘 한쪽이 내려 앉고

들

나무

골짜기의 물 소리……

이름 모를 꽃들이

금잔디 두둑에서 유난히 노르고

꽃잎에 무르녹은 여름별이 다사롭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청명한 하늘의 눈망을 속에

내가 서서

지워도 지워도

서려나는 무지개…

흘러간 세월을 따라

외로움 행복이 울고 간

오솔길을

한 마리 노루 새끼 처럼

내가 간다

아카시아 꽃 그늘이

꿈결 처럼 드리운

오솔길은

운명이란 낯선 친구가 마련한 것일게다.

길은 가난의 마음 속에

끝없이 뻗어가는 빛이었다.

한장의 귀한 옛사진을 찾습니다

本 文化院에서는 문화은행에 보존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옛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문화원 사무국(☎32-1231)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자료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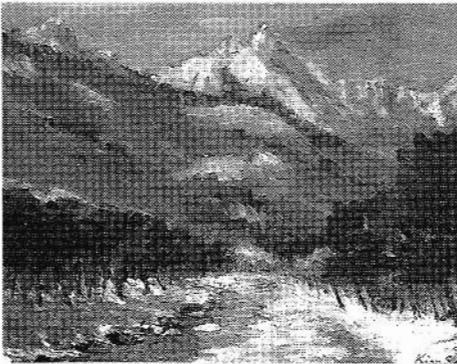
※문헌자료 : 향토사, 지명, 인물등에 관한 기록등

※사진자료 : 속초의 옛풍물, 인물, 옛구조물등을 찍은 사진

※음향자료 : 강연, 연설, 기타 주요인사의 육성을 담은 녹음등

2. 수집기간 : 제한없이 받음.

《표지화》



金光秀

- 함흥사범, 평양 미대 회화과 졸업
- 개인전5회(서울 덕수, 잠실 롯데미술관 외)
- 일본아세아 현대미전 초대참가(한국대표 단장·83)
- 한국미협전 출품(1984~1987국립 현대미술관)
- 함남도전, 한국현대미술 신기획회전 출품(세종문화회관)
- 강원초대작가전 원우회전 출품.
- 속초시 문화상 수상
- (현)강원도전 초대작가, 현대미술 신기획, 원우회 회원.
- 근무처 : ☎32-8322
- 주 소 : 속초시 교동 로얄1차APT B동 409호 ☎635-5853.

편집위원

주 간 이 기 을
위 원 박 의 훈
이 성 선
지 응 준
김 광 수
오 세 하
최 낙 민
정 영 래
최 현 식
윤 의 구
주 상 훈
김 호 응

束草文化 제11호(비매품)

인쇄 : 1995. 12. 1

발행 : 1995. 12. 15

발행인 : 崔 龍 文

발행처 : 束草文化院

인쇄처 : 江原日報社出版局

이 책은 강원도 문예진흥기금의 도움을 받아 발행하였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束草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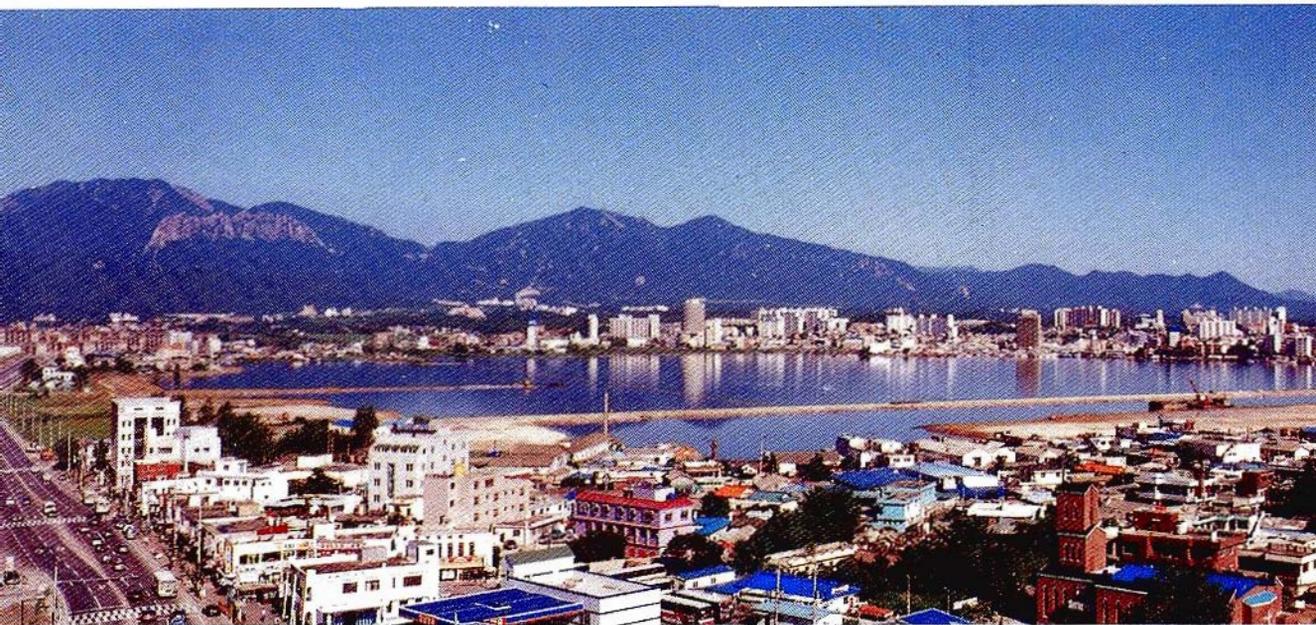
시 장 동 문 성

市政方針

- 투 명 한 自治市政
- 질 높 은 市民福祉
- 내 실 있 는 財政自立
- 생 동 하 는 地域開發



부시장 곽 상 옥



束 草 市

東草市



議會

希望을 주는 議政活動, 未來를 여는 地方議會

議政方向

- *앞서가는 議會運營
- *신뢰받는 奉仕議政
- *다져가는 自治基盤
- *활기에찬 地域開發
- *나아가는 住民福祉



議長 林鎬成



副議長 韓永煥



運營委員長 鄭英泰



內務委員長 金鍾數



產業委員長 朴鶴聲



運營委員會幹事 李正吉



內務委員會幹事 白榮哲



產業委員會幹事 朴日濬



議員 申澈



議員 金正培



議員 崔昌永



議員 金剛秀



議員 金敏式



議員 全商益

조동룡 변호사사무소

속초시 청학동 482-9(전신전화국 앞)

☎(0392)635-2868
2185~6
31-2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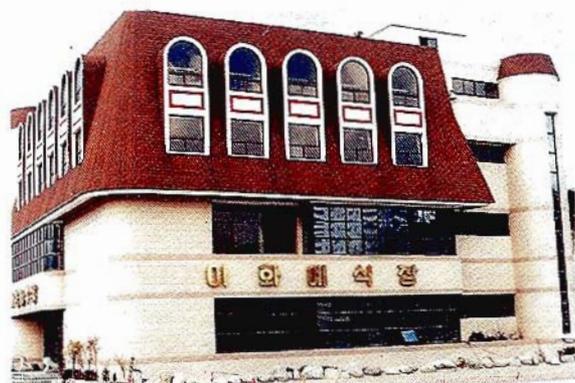


변호사

趙東龍

속초의 명소, 영랑호반에 자리잡은

이화예식장



속초시 동명동 ☎(0392)31-3380~1
(한일레저·영랑호 입구)

설악 프라자 리조텔

1,564 개의 객실을 구비한 설악프라자 리조텔. 다양한 시설과 최신 교육 설비로, 대규모행사, 교육, 극기훈련, 수학여행은 물론, 연수·휴식·레저·관광을 위한 종합레저타운입니다.



객실



설악프라자예식장

객실현황

구분	면적(평)	객실수
패밀리형	23평	1,452실
로얄형	46평	112실

*1일 10실 이상 단체요금 적용

세미나실과 연회실

실명	위치	수용인원
본관	연회실	1F 80~100
	소강당	B1 70
신관	달마봉	B1 1,000
	크리스탈	7F 600
	에메랄드	7F 250
	연회실	1F 80~100
	대청봉	B1 120~160
	중청봉	B1 70~90
	매실, 난실, 국실 죽실, 송실 분임실(2개)	B1 40~50 7F 20

골프장 현황

- 코스규모 : 18홀(PAR72), 6,497yds
- 코스면적 : 698,489m²(약21만평)
- 부대시설 : 크립하우스, 온천욕탕, 그늘집

부대시설

- 단체식당[신관(500명수용), 본관(500명수용)], 레스토랑, 커피숍, 영상살롱
- 프라자랜드(20여종 놀이시설), 디스코텍, 롤러스케이트장, 노래방
- 슈퍼마켓, 기념품점, 미용실, 대운동장
- 오락실, 당구장, 탁구장,
- 종합온천휴양시설(예정)

주변관광지

- 대청봉, 울산바위, 흔들바위, 비룡폭포, 천불동계곡, 비선대
- 척산온천, 오색약수, 영랑호
- 신흥사, 낙산사, 백담사, 의상대
- 알프스스키장, 통일전망대
- 화진포, 송지호, 낙산, 설악, 하조대해수욕장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4-2

TEL (0392)635-7711

 **설악프라자 패밀리타운**

정성을 다하는 기업

(주)대 양



東草市內 도로 확포장사업에 거의 참여한 (주)대양은 시민들의 인정과 신임을 받아 온 것을 보람과 긍지로 삼고 앞으로도 계속 성실 시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올해년을 보내면서

(주)대 양

대표이사 박 봉 영 올림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

전화 한 통화로
은행업무 O·K

농협텔레뱅킹서비스
02) 720 - 8999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은행에 직접 나오시지 않고도
전화 한통화로 간단히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 이용대상 : 본회 거래고객

■ 서비스내용

- 계좌간 자금이체
- 농협 및 타행계좌로 송금 가능
- 비씨카드현금서비스이체
- 예금조회
- 잔액조회
- 입출금거래내역조회등
- 수표조회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 서비스이용시간

- 본회 계좌간 자금이체 및 각종 조회 :
온라인 운영시간중 (08:00~22:00)
- 타행계좌이체 : 영업시간중
(평일 09:30~16:30, 토요일 09:30~13:30)

농협텔레뱅킹 서비스 이용방법

첫째, 영업점 창구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둘째, 아래의 지역별 전화번호로 가장 가까
운 지역의 전화번호를 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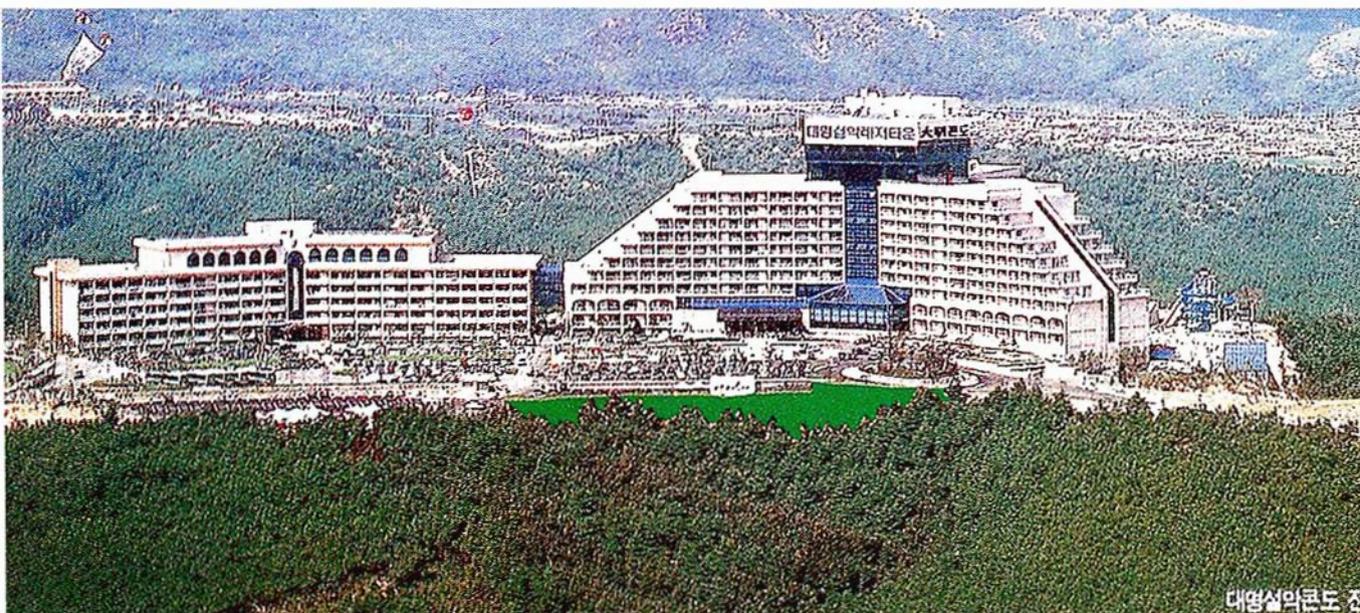
♥ 지역별 텔레뱅킹서비스 전화번호

서울 : 02) 720-8999	부산 : 051) 865-3300
대구 : 053) 256-9100	광주 : 062) 528-2011
대전 : 042) 252-5555	

농민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농협중앙회

지부장 **최 훈**
속초시지부 ☎31-7063~4

대자연, 인간, 그리고...
건강한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명산악레저타운 타워콘도

대명홍천스키장·콘도—사계절 전천후 종합레저타운
“타워콘도 715실 '95년 12월개관!”



타워콘도 715실(95. 12월개관)



별관콘도 375실(운영중)

Daemyung (주)대명레저산업

대표전화 : (02)508-1311, 222-7000

이고장 金銀寶石界 원조

文川堂 시계점은 1951년 수복된 東草와 더불어 개업했습니다.

歴史와 傳統을 소중히 하면서 正直과 信用으로 일관한 文川堂은 各界가 믿고 거래하는 業所로 成長하게 되어 그 고마운 뜻을 받들어 보다 誠實한 자세로 영업에 임할것을 다짐합니다.

丙子年 새해에도 여러분들은 더욱 健康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빕니다.

乙亥年을 보내면서

文川堂(금은·보석·시계)

대표 방 서 호드립니다.

東草市 中央洞 475-6

☎(0392)33-2664, 2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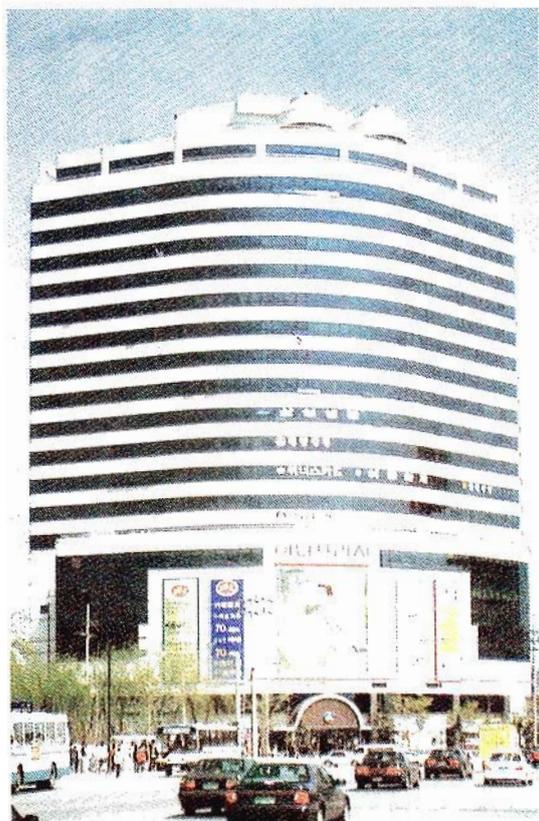




아남프라자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로 도약하는
속초와 함께

생동하는 **아남프라자**가 되겠습니다.



20F	SKY-LOUNGE
19F	컨벤션센터
18F	오피스텔
17F	
16F	
15F	
14F	
13F	사무실
12F	
11F	
10F	
9F	부페/호프
8F	
7F	
6F	예식장
5F	
4F	백화점
3F	
2F	
1F	
B1F	주차장
B2F	
B3F	

信賴받는 企業

信賴하는 會社



株式會社 韓 龍 洋 行
HAN YONG CORPORATION

강원도 속초시 교동 737-7
代表理事 崔 源 圭

대표전화 : (0392)32-1671 직통전화 : (0392)635-0182 FAX : (0392)32-5112

제4기 수강생 모집

◆ 수강과목과 모집인원

- * 서예반(초급반) 30명
- * 국악반(사물놀이) 30명
- * 꽃꽂이 30명
- * 전통예절과 한국의 다도 20명
- * 노래교실 40명
- * 주부합창단 30명

◆ 수강료 및 수강기간

- * 무료
- * 수강기간은 1년간

◆ 접수마감

- * 1996. 1. 13 12:00시

◆ 개강

- * 1996. 1. 15 10:00시

◆ 접수 및 문의

- 속초시 영랑동 570-5
(속초문화회관 별관3층)
- 전화 : 32-1231
- FAX : 32-1241
- 속초문화원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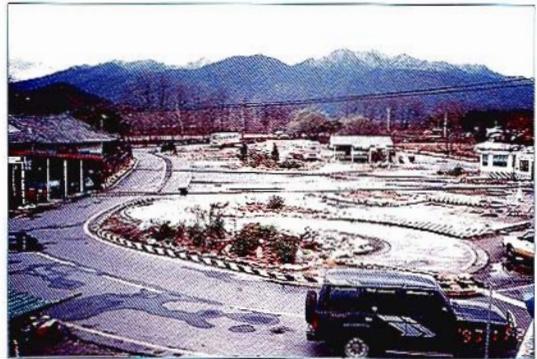
安寧하십니까?

영북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운전면허출장시험장 개설에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응시구비서류 : 응시원서(속초의료원, 인심의원
고성·양양군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시 험 장 소 :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속초자동차학원
- ❖ 문의및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 33-3333
속초자동차학원 ☎ 635-3366, 3377, 3388, 3399



속초자동차학원 강의실



속초자동차학원 시험장

◎ 출장면허시험장 약도



속초자동차학원

학원장 金光洙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雪 嶽 山 新 興 寺



新 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하여 香城寺라 이름하였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22年 (1644) 에 巖瑞, 惠元, 蓮玉 세스님이 중건하여 新興寺라 개명하였다.

新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시루, 극락보전(指定文化財 14號), 경관(指定文化財 15號), 보제루 (지정문화재 104

호) 및 香城寺址, 三層石塔(寶物 第 443號) 이 보존되어 있다.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사 극락보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신흥사 경관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제11호 신흥사(계조암·내원암·안양암·부도 포함) 동산문화재등록 : 신흥사 아미타3존좌상의 9점

◎ 수행하는 도량 ◎ 포교하는 도량 ◎ 청정한 도량

신흥사 주지 송 지 흥 외 대중일동